DAILY

# The Korea Times Toronto

No. 1013·1014 1982년 12월 23일(목)·24일(금)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Friday, December 23, 2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DEC 23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 인플레 9.8%로 떨어져

### 80년5월이후 최초로 1자리수
### 아직도 미국보다 2배나 높아

80년도 중반이후 계속 두자리수를 맴돌던 캐나다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한자리수로 내려왔다.

캐나다통계국이 21일 발표한 경제지표에 의하면 81년12월~82년11월까지 1년간 인플레이션율은 9.8%로 80년5월이래 최초로 10%이하로 떨어졌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3개월(9·10·11월)간의 인플레이션율이 8%선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4~5%로 내려온 미국의 인플레이션율보다는 아직도 두배나 높아 캐나다 금융긴축정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율은 81년7월에 13%까지 상승하자 정부는 긴축정책을 펴 결국은 1930년 대공황이래 최대의 불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금융전문가인 외환은행의 이수신 전무는 "캐나다경제가 미국경제의 추세를 약 6개월간격으로 뒤쫓고 있고 현재 미국은 4~5%의 인플레이션율로 경기회복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캐나다는 83년 후반기에는 경기회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경제학자들이 이상적인 인플레이션율을 5%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캐나다의 8~10% 인플레이션율은 아직도 높은 추세이다.

### 정부 노년연금 새해에 11.2% 인상

(오타와)내년부터 캐나다국가연금 즉 노년연금액(Canada Pension Plan)이 11.2% 오른다

21일 연방보건성의 모니끄·베긴장관은 노년연금은 소비자 불가지수 인상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며 연방정부가 원하는 6~5% 인상통제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 전국에서 740만명이상이 노년연금을 받고 있다.

## 김대중씨도착후, 라이샤워교수
## "조지타운대학서 연구생활"

(보스턴)지난 70년대 김대중씨를 하버드대학에 초청한바 있는 하버드대학 명예교수 에드윈·라이샤워박사는 20일 『김대중씨가 오는 23일 워싱턴에 도착, 병원에서 신병치료를 받은뒤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에서 연구생활을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라이샤워교수는 김씨가 조지타운대학에서 연구생활을 하리라는 사실은 아직 확실하게 단언할수 없으나 조지타운대학이 김대중씨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라이샤워교수는 이어 『당신이 지난 70년대 김대중씨를 하버드대에 초청한 것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초청은 비공식적인 것이었고 그후 나는 하버드대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뭐라 답할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하버드대 한국연구소장인 에드워드·와그너교수는 『김대중씨가 하버드대에서 연구생활을 하기를 아직도 원하고 있다면 하버드대학이 그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개인의견을 말하면서 『그러나 만일 그가 하버드대에서 연구하게 된다면 연구자금은 본인이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행은 강요된 망명"
### NYT 김대중석방 논평

(뉴욕지사)뉴욕타임스는 한국정부가 김대중씨에게 정치적 망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김씨의 부인 이희호여사와 한국의 기독교지도자들은 지난주말 뉴욕타임스의 헨리·스톡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묵인아래 김씨의 망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씨가 『한국정부는 우리에게 23일 안으로 서울을 떠나도록 통보해왔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여사는 그녀의 두 아들은 도미를 원치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양국은 김대중씨측과 사전논의없이 김씨의 도미를 주선한 것같다고 뉴욕타임스는 해석했다.

이희호씨와 기독교지도자들은 김대중씨가 신병치료를 위해 도미할 필요가 없으며 김씨는 망명보다 한국에 남아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워싱턴에 있는 김대중씨의 처남 이성호씨는 김씨의 도미가 망명이든 아니든 그가 23일 워싱턴에 도착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20일 밝혔다.

## 대통령비서실 개편
### 정무 제1수석에 정순덕씨 임명
### 사정수석비서에 정관용씨

(서울본사전화)전두환대통령은 20일 대통령비서실을 개편, 허화평 정무비서관과 허삼수 사정수석비서관을 각각 의원면직시켰다.

전대통령은 정무제1수석비서관 후임에 정순덕의원(민정당·전국구)을, 사정수석비서관후임에 정관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을 이 날짜로 임명했다고 황선필 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전대통령은 이날 하오 신임 정정무제1수석비서관과 정사정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정순덕 정무제1수석비서관 약력

▲경남충무 출생 47세 ▲육사졸 16기 ▲국방대학원졸 ▲보병연대장 ▲군단작전참모·참모장 ▲육군준장예편 ▲11대 국회의원·전국구 ▲국회재무위간사 ▲한일의원연맹 간사

◎정관용 사정수석비서관 약력

▲서울출생 47세 ▲동국대법학과졸 ▲총무처관리인사과장 ▲중앙공무원 교육원 부원장 ▲국보위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Merry X-mas*
*& Happy New Year*

## 폭행 북한축구에 2년간 출전 금지

(취리히·스위스)국제축구연맹(FIFA)은 18일 제9회 아시안게임 축구경기에서 주심에 폭행을 가한 책임으로 북한축구협회에 앞으로 2년간 각종 국제무대에 참가치 못하도록 결정했다.

FIFA는 또 당시 폭행에 가담한 북한 축구임원들에 대해서는 종신출전금지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콜롬비아가 1986년도 월드컵대회를 반납한후 차기 월드컵개최국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 불법이민자 특별사면 내년봄 이후에나

(오타와)로이드·액쉬디 이민장관은 현재 작성중인 특별보고서가 내년봄 완성될때 까지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12월초 이민성자문위원회는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사면을 고려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건의한바 있다.

액쉬디장관은 21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어떤 조처를 강구하기 전에 캐나다에 불법체류자들막기 위한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별보고서는 정부에 의해 작성중이라고 연방정부 이민문제위원장 로빈슨씨가 맡고있다.

로빈슨위원장은 이민성자문위의 건의서와 함께 각 에트닉그룹별로 불법체류자 실태조사를 한 연후에 최종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 불법체류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社 告

## 〈주간한국〉
### 새해부터 별도인쇄 서비스

토론토한국일보사는 새해 1월초순부터 서울본사발행 〈주간한국〉을, 매주 별도로 인쇄, 독자가정에 우송합니다.

매주 타브로이드판 16페이지 이상으로 발행될 토론토 〈주간한국〉은 한국서는 가장 인기있는 주간지입니다.

토론토 〈주간한국〉의 표지는 이곳 사진으로 대체됩니다.

〈토론토 한국일보〉를 판매하는 각 식품점에서는 〈주간한국〉을 신문과 같은 가격인 1부당 40센트로 별도판매합니다.

현재까지 본사는 〈주간한국〉을 수요일자에 4페이지(타브로이드판 8페이지)로 재편집, 인쇄해 왔읍니다.

〈한국일보〉를 계속 애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소전화부 발행연기

12월 중순께 발행 예정이었던 「한인업소전화부」(Business Directory)는 본사사정상 신춘(내년초)으로 연기합니다.

이같은 연기는 연말을 전후해서 동창회장등 단체장이 바뀌는 일이 많은 것도 한 이유입니다.

본사는 가급적 속히 한인단체·업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일목요연하게 적힌 전화부를 만들어 독자의 편의에 응하고자 합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교통신호를 하는 산타크로스-21일 어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세인트·죤·스쿨에 들린후 인근 킹스톤·로드에 나와 80세의 건널목 안내원인 할아버지를 잠시 쉬게 하고 대신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너게 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치정판매대리점
다이아몬드·순금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사무실
410 DUNDAS ST. E.
☎: 961-2417
(12월20일부터)
537-3171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드디어 판매개시!

감기는 만병의 원인! 건조한 아파트생활에 주의하세요!!

日本제 최신형원심식전자동 가습기

(株) 日本家電
NIPPON KADEN LTD, BO.
MODEL NO. V.—57D
물용량 : 5ℓ
연속가습시간 : 14시간

가습기 원심분무식
Humidifier

* 예방보다 더좋은 약은 없읍니다!

습도가 부족한 겨울철의 건조한 실내는 누구나 쉽게 편도선(목젖)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아이들은 늘 감기가 계속되며 피부도 건성이됩니다. 필수적인 습도유지로 각종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세요.

* 최신형 전자동가습기의 특징

1. 소음이 전혀없으며 실내전체를 쾌적하게합니다.
2. 고장이 전혀없읍니다. (2년간보증)
3. 켜고 끄는 번거로움이 없이 최저 습도 40%이하에서는 즉시 자동으로 켜집니다.

[판매처]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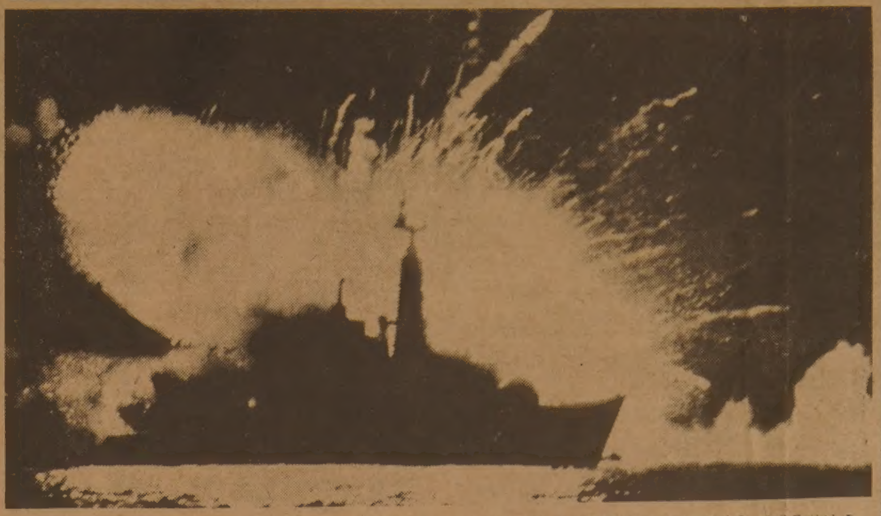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多事多難…「1년간의世界」를 본다

'82 베스트·포터 〈시리즈 ①〉

# 74일戰爭의 傷痕…화염속의 戰艦



▲한해가 다시 저물어가는 12월. UPI가 선정한 「1982년의 베스트·포터」로 다사다난했던 지난1년간의 세계를 뒤돌아본다. 시리즈의 첫번째는 「포클랜드전쟁」. 남대서양의 황량한 작은섬 포클랜드의 통치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벌인 74일간의 전쟁은 결국 영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으나 수백명 젊은이의 생명과 수십억달러 전비를 희생시켰다. 사진은 전쟁중반인 5월23일 포클랜드군도의 동쪽 산카를로스만에서 아르헨티나 공군에 격침당한 순간, 화염에 싸인 영국 프리기트함 앤텔롭호. 이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한 포클랜드는 아직 전쟁의 상흔이 생생한데 혹한속에서 복구작업에 몰두하고있다.

## 해병·참전용사 합동파티

### 태권도시범, 해병기 인수식도

"캐나다군 한국전참전용사회"와 "해병전우회"의 합동연말파티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성황을 이루어 금년에는 약 130명(81년 110명참석)이 모였다.

지난 18일 캐나다군기지내 장교클럽에서 열린 합동파티에는 해병전우회보다 오히려 캐나다참전용사회측이 6명이나 더많이 참석하기도 했다.

해마다 해병전우회(남상현)의 초청으로 망년파티에 참석하는 캐나다군 한국전참전용사들은 이날 파티초청의 보답으로 대형 해병전우회기(旗)를 수여하기도 했다.

해병전우회기 인수에 이어 양국국가봉창, 남회장 인사말, 내빈 이상훈 총영사 축사, 참전용사회 마이크·하이랜드회장의 답사가 있었다.

제2부 순서에서 해병전우 정영수사범의 태권시범에 이어 최영호악단의 밴드플레이에 맞추어 댄스파티, 복권추첨등의 순서를 가졌다.

정사범은 를베이른·생구아니(정영수도장 사범)씨를 못이 박힌 판위에 뉘어놓고 배위에 벽돌을 해머로 부수는 묘기를 보여 용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Merry X-mas & Happy New Year*

◆남상현씨가 참전용사회로부터 받은 해병전우회기를 보여주고 있다.

◆해병전우회 남상현 회장이 참전용사 마이크·하이랜드 회장(우)으로부터 해병전우회기를 수여하기 앞서 서로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 성남동문신년파티

### 전원참석의 전통

성남동문회(회장 서광철) 신년파티가 1월2일(일) 하오8시 이종후 동문댁(11 Bethanyleigh Dr. Scarboro.)에서 열린다.

항상 전원 참석하는 성남동문회의 파티를 위해 이번에도 임원진은 다양한 게임을 마련했다 한다.

회비 없음. 연락처는 이종후(299-5736), 김영철(248-6531).

## 잘린 손가락 10개

### 한국최초 접합 성공

(대구22일=연합)기계에 실수로 잘린 손가락 10개를 접합시키는데 한국최초로 성공을 거두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팀은 18일 대구형무소에 수감중인 구모(28세)가 형무소 작업장에서 종이절단기를 작동하다가 실수로 잘린 10손가락을 전자현미경을 동원, 18시간의 수술끝에 접합했다고 의대측이 22일 밝혔다.

박병철, 백봉수 양교수가 이끄는 의료팀은 손가락이 잘라진후 5시간30분후에 접합수술을 시작했다.

## "법정이 너무 관대해"

### 겔럽여론조사 밝혀

범죄자에 대해 법정이 보다 가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주장하는 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발표된 겔럽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조사된 성인 1,066명중 76%가 법정이 범법자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답변했다.

66년 이 질문에 대한 첫번째 겔럽여론조사에서는 43%만이 법정이 범법자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대답했던 것이 80년도에는 63%로 증가되었다.

법정이 너무 관대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은 최근 수년간 살인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던 브리티시·콜롬비아주로 82%였다.

## 극단 '얼' 송년파티

### 28일 정창헌씨댁

극단 "얼"(대표 이장성)의 송년파티가 28일(화) 저녁 6시 단원 강종희(Mrs.정창헌)씨 댁에서 열린다.

내년 2월중순 구정에 창단기념으로 오영진작 〈맹진사댁 경사〉를 공연할 극단 "얼"은 현재 매주 목·일요일 두번씩 장연탁씨의 삼우스튜디오에서 연습하고 있다.

〈맹진사댁 경사〉는 런던및 몬트리얼등 지방에서도 공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티장인 강종희씨댁의 위치는 브램톤 하이웨이 10과 Steeles 북쪽인 14 Riverview Dr.(전화 457-1234)이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제5계절

## 성탄의 계절

이필주(목사·순복음토론토교회)

일년중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들떠지고, 바빠지고, 흥겨워지는 계절이 성탄절이다.

그러면 성탄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X-mas란 말씀이신 성자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코자 직접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시간의 세계로 탄생하신 날이다.

이 주님의 탄생일은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날이다.

인간사회는 소식을 전달하고 소식을 전달받는 사회다. 그러나 인간사회에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얼마나 전달되고, 전달받는가! 신문보도나 T.V.나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보라.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중에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을까? 더우기 내 주변에서 나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이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 인간사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살아갈수 없는 날조된 사회이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되고, 복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2천년전 주님 탄생시에 하늘에 천군천사가 전하여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신 소식이다.

예수의 탄생소식이야말로 인간 너 나에게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까닭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는 참다운 구세주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세상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세주가 필요없을만큼 완전한 능력을 가졌거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만능자는 절대로 없다. 아무리 세상지식이 많고, 온갖 재능이 있어도, 천하를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부족함없는 물질이 있어도, 든든한 사업의 기반을 닦고, 남이 알아주는 명성을 가져 내노라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생은 누구나 절대로 선하거나, 모든 일에 능하거나, 모든 일에 완전하거나 충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모두에게 죄와 불의가 있고, 번뇌와 탄식이 있고, 내 힘이나 내 재주나 그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되는 모호한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이 모든 한계적 상황에서 언제나 우리를 건져주셔야할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다. 바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분이시다.

◆이필주목사

또한 주님의 탄생이 그토록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가장 크고도 참다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요. 고통과 싸움 뿐인 이 세상 죄와 전쟁은 끝이 없고, 불화와 미움이 가득한 이세상에 참평화를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말구유가 되어 참평화를 누리는 은총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면서 X-mas를 하나의 선물이나 주고받고 파티나 열어 기분만 내다 마는 무의미한 계절로 보내지 말고, 성탄의 의미를 살려 불행한 이웃을 돕고 위로하며, 미움을 사랑으로, 불화를 화평으로, 고만을 겸손으로 바꾸는 인정미, 사랑미가 넘치는 진정한 White Christmas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본다.

## 한국프로야구단 한해 100억원 적자

(서울22일=연합)한국의 6개 프로야구단이 지난 1년간 총100억원 적자를 본것으로나타났다.

82년도 우승팀인 OB베어스가 15억으로 가장 많고, 최하위인 삼미·슈퍼스타스가 12억원으로 가장 적다.

금년부터 시작한 한국프로야구리그는 당분간 입장료등 모든 수입금은 6개구단이 공동분배하기로 합의, 돈을 가장 많이 쓴팀이 적자가 많다.

한편 21일 발표된바에 따르면 83년 시즌은 4월2일에 시작 10월9일의 코리안시리즈로 막을 내리며 각팀 50게임씩 총 300게임을 갖는다.

## 경작지 보존위해 분묘제도 철폐

(서울22일=연합)경작지를 보호하고 자연의 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적 관습인 묘지를 만드는 분묘제도가 철폐 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농대의 김갑덕 교수는 현재 한국 전국의 경작지 총 99,000평방킬로미터의 0.64%인 72.2평방킬로미터가 묘지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김교수가 밝힌 전국의 묘지수는 총 1천7백만개소이며 매년 75만개의 새 묘가 생긴다.

*Merry X-mas & Happy New Year*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록키모피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D LIKE TO BILL TO A THIRD NUMBER.

어떤 교포가 B라는 친구 집에 가서 C라는 사람에게 장거리 전화를 하였다. 이때 전화 요금을 B도 C도 아닌 바로 본인의 집 번화로 요금을 물게하고 싶었는데 도무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결국 본의 아니게 친구인 B에게 요금을 물리게 되었다. 이같이 다른 곳에서 전화를 건 후 자기집으로 요금을 물게 할 때는 일단 교환을 통해야 하는데 0를 돌린 후 교환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계속해서 본인이 걸고자하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돌리게 되는데 번호를 다 돌리면 그때 교환이 나와서 도와준다. 교환이 나오면 대부분이 Operator, may I help you?(교환입니다. 도와드릴까요?) 혹은 Operator 307.(307교환입니다. 이때 307번은 신분번호로서 교환마다 번호가 다르다)라고 할 것이나. 그때 I'd like to bill to a third number.(제삼의 번호로 요금을 물게 해 주십시요.)라고 하면 교환이 다시 What is the number, please?(몇번으로 해 드릴까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이상은 coin phone(공중전화)가 아닌 경우이고 만일 공중전화를 사용하면서 이같이 자기 집이나 제삼의 번호로 요금을 징수케 할 때는 요금을 부담케 할 번호에 누가 지금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교환의 도움을 통해 전화를 걸게되면 요금이 더 비싸진다는 것이다.

A: Operator 307. May I help you?

B: Yes. I'd like to charge this call to my home phone.

A: What is your name and number, please?

B: My name is R.C.Park. My number is 262-1439.

A: Will someone be at that number now to accept the charge?

B: Yes.

A:교환 307번 입니다. 도와 드릴까요?

B:네. 이 전화 요금을 우리집 번호로 물게하고 싶습니다.

A:성함과 전화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B:제 이름은 알.씨.박이고 전화 번호는 262-1439입니다.

A:요금을 부담할 사람이 지금 그 번호에 있읍니까?

B:그렇습니다.

※bill:청구서. 동사로서는 「청구서를 보내다」.
accept the charge:요금을 부담하다.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 됩니다. 가격은 권당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966-4050.

83년도 새 달력이 나왔으니 가시는 길에 들려 주십시오.
IATA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김창범
R) 492-7525

謹賀新年

# 아르투르·루빈스타인 사망

## 폴랜드태생의 금세기 최대피아니스트

(제네바)20세기 피아노의 거장 아르투르·루빈스타인이 20일 제네바에서 사망했다.

최근 수개월간 급격히 건강이 약해진 루빈스타인은 새해 1월28일 96세 생일을 한달 앞두고 있었다.

1887년 폴랜드 태생인 루빈스타인은 쇼팡곡 연주로는 어떠한 피아니스트도 따를수 없는 경지를 보여주었고 비단 쇼팡 뿐 아니라 브람스, 베토벤, 리스트, 라벨, 드비시등 대곡에서부터 소품까지 누구보다도 많은 곡을 연주해낸 피아니스트로도 꼽힌다.

첫 데뷰는 5살 폴랜드에서 가졌지만 그의 자서전에서 루빈스타인은 실질적 데뷰는 11살로 꼽았고 정작 연주가로서의 연주는 50살 이후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45살에 26년 연하에 19살의 부인과 결혼한 그는 94살이었던 지난 80년 48년간의 결혼을 청산하고 별거해왔다.

"내게 있어 음악은 취미도 정열도 아니다. 음악은 나자신이다"라고 말한 루빈스타인은 40여년간 피아니스트로서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음악적 평가와 명예와 부를 누렸다.

2차대전중, 미국시민이 된 그는 주로 뉴욕과 파리에서 살며 하루에 6~9시간씩 연습했고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여성들을 공개적으로 즐기는 호탕한 성격으로 피아노를 마치 "여성"을 대하듯 하라고 말하기도 한 고전파 낭망주의 연주가였다.

◆40여년간 피아노 연주계의 왕좌를 지켜온 아르투르·루빈스타인. 95세까지 장수한 그는 폴랜드 태생으로 쇼팡연주에 특히 탁월한 낭만주의자였다.

## 첼리스트 하노이양 카네기·홀 데뷰 성공적

토론토의 스타지로부터 놀라운 10대로 손꼽혔던 첼리스트 오프라·하노이(17)양은 19일밤 카네기·홀에서 가진 데뷰공연에 성공, 뉴욕·타임즈(NYT)지등 권위지로부터 절찬을 받았다.

NYT지는 "그녀의 연주회는 앞으로 우리 시대의 최고 수준의 첼리스트가 될 젊은 연주가의 재질을 엿보게 하는 드문 기회였다"고 말하고 하노이양은 마치 첼로를 연주하기 위해 태어난 듯이 보였다고 평했다.

82년 콘서트·아티스트·길드상을 획득한 하노이양은 새해 1월부터 프랑스를 순회공연하며 오는 2월14일 세인트·로렌스·센터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19일 카네기홀에서 데뷰연주를 가진 첼리스트 오프라·하노이양.

## 소련검찰당국 미특파원문초

(모스크바)소련검찰 당국은 유대계 소련인의 평화운동가를 취재·보도한 월터·비스네프스키 UPI통신 특파원과 〈로스앤젤스·타임스〉의 로버트·지렛트 특파원을 출두시켜 문초했다.

모스크바 주재 미대사관은 두 특파원에 대한 출두조처를 중대시하고, 대항조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두 특파원의 소련검찰청 출두에는 미대사관원과 통역이 동행했다.

---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36>

## 출발 ⑰

### "1백만弗을 스위스은행에 입금시켜라"

「20만…」

늙은 사내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참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20만 정도의 일거리라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얼마를 요구하는거요?」

「싯가의 10프로를 내시오. 절반을 요구해도 되겠지만 그 정도로 참겠소.」

「싯가의 10프로라니 물건값을 말하는 거요?」

늙은 사내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렇소. 찾아야할 물건의 싯가가 2천만 달러라고 했으니까 10프로면 2백만이지요.」

「2백이나…」

늙은 사내는 머리를 휘휘 저었다.

「요구액이 너무 지나쳐요.」

「그것도 일시불로 먼저 주시오.」

「그건 안돼요. 어림 없어요.」

「그래도 물건을 잃는 것보다는 나을텐데, 그게 비싸다는거요?」

「그러지말고 다시 조정해 봅시다.」

「그 이하는 안 돼요. 당신들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일을 떠맡겼으니까 나도 내 맘대로 값을 정한거요.」

늙은 사내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눈치다가 슬그머니 일어섰다.

「그렇다면 조금 기다려보시오.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늙은 사내는 처음 들어왔던 문으로 나갔다.

10분쯤 지나 그는 다시 들어왔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 대신 일시불로는 안 돼요. 처음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일을 끝내면 주겠소. 그것이 일반적인 거래원칙이라는건 선생도 잘 알고 있을거요.」

「알았소. 절반은 먼저 받겠소. 나머지는 일을 끝내는대로 주시오.」

그는 더이상 입씨름을 벌이지않고 그 조건을 수락했다. 사랑하는 여인을 인질로 잡혀둔 것만 아니라면 흥정은 성공이었다. 일찌기 그는 이렇게 큰 거래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거래에 있어서 건당 1백만 달러를 초과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2백만 달러를 받기로 한 것이다. 목숨을 건 도박 치고는 그것이 아무리 위험하다해도 2백만달러는 역시 큰돈이었다.

「돈은 내일 정오까지 지불하겠읍니다.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스위스 유니온은행에 입금시켜주시오.」

「비밀구좌번호는?」

「4449번…」

늙은 사내는 그것을 메모했다.

「즉시 일에 착수해주었으면 하는데요.」

「나도 빨리 물건을 찾은 다음 내 여자와 만나고 싶소. 입금된것을 확인하는대로 즉시 출발하겠소. 그런데 한 가지 말해 둘것이 있소.」

「네, 뭔가요?」

「내 여자에 대해선데…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여자한테 손가락 하나 대지 말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최고로 대우해줘요. 그여자의 요구도 모두 들어줘요. 만일 그여자한테 상처를 입힌사실이 드러나면 나는 트라이앵글을 가만두지 않을거요. 보스 세명을 모두죽이겠소.」

늙은 사내는 손을 들어 그를제지했다.

「그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 여자를 여왕처럼 모실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여자의 요구도 가능한한 모두 들어주겠읍니다. 내보내 달라는 요구를 말고는…」

사내는 음흉한 미소를지으며 말했다.

朴男 그림

---

# 女性만 去來 美에 새銀行

## 세계여성금융(WWB)의 실상 자본3백만弗 會員 千여명

소규모사업을 하는 여사장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여자들만의 금융단체가 있다. 세계여성금융(WWB)이 바로 그것.

79년 뉴욕에서 창설되어 현재 네덜란드에 등록돼있는 이 단체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워크숍을 갖고 세계여성경제인들의 현황과 그들의 사업실태·경영개선방안들을 논의했다.

3년전 유엔개발기금과 개인들이 출자한 자본금 1백50만달러로 시작한 이 단체는 창설3년만에 자본금 3백만달러및 15개산하기구 1천여명의 회원을 거느리는 막강한 경제기구로 성장했다.

현재 WWB는 수개국에서 추진되고있는 50여개사업계획에 차관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업지원기준은 여성이 반드시 그사업의 지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것과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는것이다.

현WWB회장인 미카엘라·왈쉬여사는 20년간의 뉴욕 월스트리트 생활을 통해 많은 여성경제인들이 무궁한 잠재력과 능력을 갖고도 자금조달을 제대로 못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보고 여성들만을 위한 금융기구를 만들기로 결심, WWB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회의에서 재확인된 WWB의 주요취지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기회를 늘리고 여성경제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자는 것.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남자들은 발전과 번영의 길을 걸어온 반면 여자들은 전통적인 롤에만 얽매어 왔기때문에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 지원, 경제활동에 기여하게하자는 WWB의 취지는 많은 나라들이 호응을 얻어 스웨덴·네덜란드·캐나다·미국등 많은 선진국정부들이 자진하여 기부금을 내고있다.

---

〈독자 시〉

## 겨울 기도

송순태

당신은 아시노니,
식은 계절, 매서운 바람따지의 한기(寒氣),
따뜻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맑은 피,
기도는 심야(深夜)의 어둠 속에 묻힌 호롱불 같은 것을.

가난한 이들은 오래 침묵하게 하소서.
헐벗은 나무,
숲이 쓰러진 언 땅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것은 오직 침묵이거니,

겨울 교각(橋脚)에 걸린 손시린 시간에는
심오한 신학이란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해오(解悟)의 은총마저도 너무 밝은 빛입니다.

오로지 순종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참아내기 위하여.

가장 작은 욕심도 잠들게 하소서.
지하혈관에 스며 계시는 당신,
당신의 은밀한 사랑의 물소리만으로도
만족하기 위하여.

하늘의, 온갖 땅위의
하느님이여.

*Merry X-mas & Happy New Year*

---

# 性教育 모두 말합시다

##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한 택시운전사가 어느 아가씨와 데이트를 몇번 하고나서 결혼해 줄 것을 청했다. 청혼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아가씨는 직업이 운전사여서 또 학벌이 없어서 싫다고 했다고 한다. 데이트야 직업이고 학벌이고 관계없이 차 타고 다니면서 또는 돈 쓰고 다니면서 놀고 다닐 수 있으니 좋았지만 일생을 같이 사는데야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일 것이다. 물질에 또는 안이함에 점수를 주고 그러면서 놀것은 논다는 아가씨, 그자신에 문제가 있는 여성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운전사청년은 이 경박한 여성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다시는 만나 주지도 않는데 스스로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바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잊을 수가 없다는 심정은 진정이다. 곁에서 보기에도 약이 오를 만큼 분한 일이어서 만일 내자식 내동생이란다면 정신차리라고 실컷 야단 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느끼는 감정, 그것을 사랑이라 생각하며 아쉬워하는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결코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번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한다고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따지기 좋아하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것이다.

많은 청춘남녀들이 짝을 맺지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도 여전히 원하는조건에 부합되기를 바라고 있는것을 보면 한편 딱하고 한편 부럽기조차한 느낌이다.

자신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노력하여 무엇인가(원하는것)를 이루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고 그 상태가 미리 준비되어져 있어서 자신의 큰 노력이 없이도 어느급이상의 편한 생활을 원하는것이다.

어쩌면 얄밉기까지한 안이를 원하는 그들, 어찌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져볼수가 있을것인가. 물질에 강하고 노력에 약한, 약은척하면서 어쩌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하다.

그런 친구들에 비한다면 경박한 아가씨를 잊지못하고 고민하는 이 운전사청년이 얼마나 순수하고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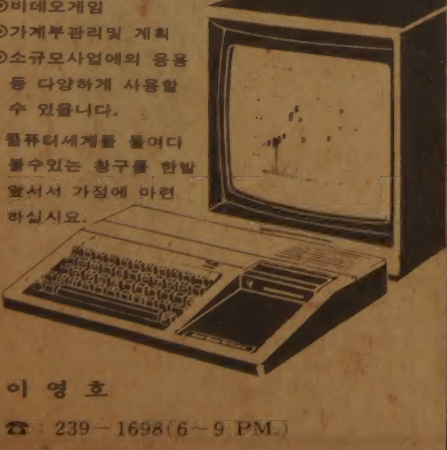
이 청년의 경우 못잊겠다는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 물론 잊을수는 있다. 또 이러한 여성과는 결혼이 안되었던 것이 본인의 장래를위해 오히려 다행한 일이라 할수있다. 그보다는 잠시나마 누군가를 순수하게 사랑할수 있었다는 감정, 이 마음의 여유가 이 청년에게는 아주 소중한것이다. 남에게 속을 수 있는 순수함, 이거야말로 사랑만이 지닐수있는 마음가짐이라 할수있다. 이 청년에게는 또 다른 사랑이 있을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권리가 있는것이다.

## 사랑의 감정은 아름다운것


J&S ELECTRONIC
78 ELMBROOK CR. ETOBICOKE

Home Computer TI-99/4A

⊙프로그램 습득
⊙비데오게임
⊙가계부관리및 계획
⊙소규모사업에의 응용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읍니다.
＊컴퓨터세계를 들여다 볼수있는 창구를 한발 앞서서 가정에 마련 하십시요.



이 영 호
☎ 239－1698(6～9 PM.)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협신기도원 개원 4 주년 연말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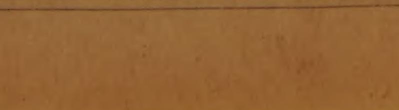
하나님의 축복이 각 교회 성도님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시카고 미현교회에서 시무하시며 말씀과 능력이 충만하신 조인택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아래와 같이 수련회를 하고자 하오니 시내 각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사 : 조인택 목사
약력 : 총회 신학대학졸업
서울 신학대학교강사 7년
수도 성경학교강사 11년
서울 남산교회시무 14년
청계산기도원 관계
현 시카고 미현교회시무 중

일자 : 1982년12월27일(월) 오후5시～30일(목) 낮12시
장소 : 협신기도원
연락처 : 245－1687

준비물 : 성경, 찬송, 슬리핑, 백, 담요, 세면도구등 식사제공(금식은 자유)

주최 : 협신기도원
후원 : 협신선교협회






감사의 말씀

제2회 코리안·컵 볼링대회및 년말잔치를 성대히 마치게 된것에 한국일보사및 교민들께 우선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배전의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코리안·컵 경품 내주신분 :
● 영리무역(이영현)
● 브랜든스포츠(이건영)
● TORCH FIRE CANADA(송인문)
● 삼복식품(김규석)
● DY총판(오기환)
● 동양식품(함태민)
● 종교서관(김명준)
● 한인식품(손덕수)
● 체육회캐나다지부(부회장 강준남)

재카나다볼링협회 임원 일동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 신규: 년 $99. 월 $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성장하는 우리실협 성공하는 나의사업

## 조합 금융지원 방안토의

### 최행장 협회의 협조에 감사표시

◆최승락 행장

지난 16일(목) 캐나다 한국외환은행의 최승락 행장은 실협의 회장단과 이사회 간부일동을 다운타운의 개인디너·클럽으로 초청하고, 현재 실협이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적극적 자금지원 방안을 광범위하게 토의하였다.

은행측 대표로 이수신 전무와 김남수 블루어지점장이 동석한 이날의 회담에서 최행장은 "은행개점 후 3년은 적자를 면치못하는 것이 북미사회의 일반적인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교포 여러분은 물론 특히 교포사회의 경제주축인 실업인협회원들의 적극적 후원덕분으로 개점 첫해의 사업이 지극히 성공적임에 무한히 감사한다. 거리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회원들이 블루어지점을 이용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거듭 감사한다.

금융지원상에 특별한 무리가 없는한 실협회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금융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11월말 현재 600에 가까운 협회원의 사업체에 금융지원을 한바있는 외환은행측은 실협과의 지속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교포사회의 지위향상과 아울러 교포실업인의 사업신장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으며, 이는 곧 이윤추구만이 지상목표가 될 수 없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임무라고 말하였다.

실협의 간부들은 외환은행의 협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자금 지원에 대해 치하하고, 앞으로 더욱 깊은 상호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약 3시간반 계속된 이날 오찬회에서는 주로 한인사회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한 다각적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추진과 아울러 연구하고 있는 Central Billing System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K.B.A. 교환센터

◆4 feet card rack 8개 있음. (845-5445 박만기)
◆4 feet 길이의 벽커에서 쓰는 shelf 구함. (421-6880 Mini Mart)
◆6 feet icecream freezer 구함. (469-1521 Mrs.백)

## 오샤와실협 성탄파티 성황

지난 12월17일 저녁 Oshawa Shrine Club에서 개최된 오샤와 교민을 위한 성탄파티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벽까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오샤와실협(회장 이영민)이 주관, 동지역의 한인들을 위해 차린 잔치로서 협회측에서는 차선겸 회장, 김태진 이사장, 조기연 부회장이 동석, 축하하였다.

## 배리지역 실협지부 탄생

### 초대회장에 김근철씨

◆김근철 회장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의 지부로서 Barrie지역에 「Huronia 실업인협회」가 탄생하였다.

서쪽의 해밀톤지구와 동쪽의 오샤와지구에 이어 세번째로 북쪽에 실협지부가 조직된 것이다.

지난 12월15일(수) 오후 토론토 북쪽에 위치하는 Barrie를 중심으로한 인근지역의 한인실업인들이 Mother's Pizza에 모여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지역의 한인실업인들이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여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의 지부로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조직체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온타리오실협측에서 차선겸 회장, 김풍수 총무, 강공선 상담실장이 동석하여, 협회의 운영에 관한 여러가지 자문에 응하였다.

특히 온타리오실협측은 해밀톤과 오샤와지구 실협과 마찬가지로 현지에서의 개별적인 「딜」은 자유로 추진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고, 온타리오실협이 추진하는 모든 「딜」은 종전과 같이 전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노력함으로써 전체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임을 명시하였다.

초대회장에는 배리에서 기반을 잡은지 9년이 되고, 현재 Enterprise Variety를 경영하고 있는 김근철씨가 선임되었고, 총무에는 같은 지역에서 Hi-Land News를 경영하는 오상길씨가 선임되었다.

특히 새로 탄생한 Huronia 실협은 배리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참전용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12월21일의 그들 파티에 초대되어 참석하고, 내년에는 Huronia실협이 이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한다.

이날 현재 가입회원은 16명이나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북쪽의 한인업체 증가현상으로 미루어 가까운 시일내에 회원수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법률상담〉 유 서

Ralph M. Levine 강공선 역

1. 자필로 작성하는 유서에는 유언자가 말미에 서명만 하면 되고, 입회인이 필요 없다.

2. 자필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 변호사가 초안을 만들어서 유언자로 하여금 읽어보게 하고, 서명은 변호사사무실에 나와서 하게 하거나, 아니면 유언자집에 찾아가서 서명을 받게 되어있다.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우송해서 서명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유언자가 너무 병약하면 제3자가 손을 잡아서 대신 서명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너무 취약하여 정신박약으로 인정, 유서가 무효가 되는 수가 있으므로 역시 위험한 방법이다.

3.(1)유서작성시에 유언자는 2명의 입회인 앞에서 서명해야 하고, 각 입회인은 유언자와 다른 입회인이 보는 가운데 서명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안지켜서 나중에 입회인이 유언자의 서명을 목격 못했다고 하면 무효가 될수 있을 것이다.

(2)유서는 반드시 원본 한통에만 서명해야 한다.

(3)유서를 입증하는 입회인은 반드시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4)법률상 입회인이나 그 배우자는 상속자가 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입회인이 유언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되면 법원이 이를 구제조처할수 있게 되어있다. 이러한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입회인은 상속자 아닌 사람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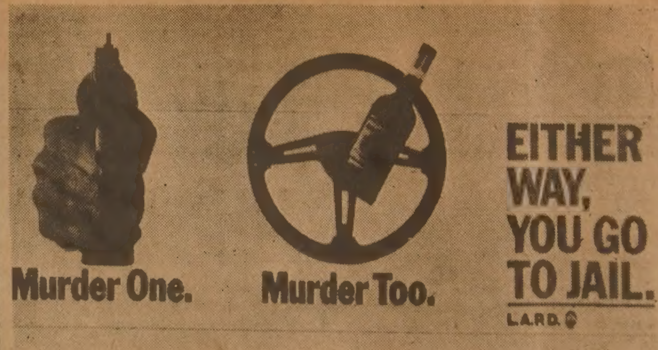
(5)유서가 여러 페이지인 경우에는 하나하나 페이지 번호를 기입하고, 각 페이지의 우측 하단에 3인이 각자 「이니시얼」하는 것이 좋다. 법률상의 요건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4. 유서의 원본은 지방등기소(Registrar)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3이면 영구히 보관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유언자의 사망후 가장 용이하게 찾아낼 수 있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서를 작성한 변호사에게 맡겨놓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 역자 주 —

지금까지 10여회에 걸쳐 우리가 흔히 소홀히 하기 쉬운 「유서」에 관하여 연재를 한 결과 어떤 독자들은 매우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되어 유익하였다고 격려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흥미도 없는 내용을 왜 귀중한 「실협뉴스」란에 연재하고, 하필이면 유서냐고 꾸지람하는 분도 있었다.

어쨌든 역자의 생각에도 너무 긴 감이 있어 끝을 맺거니와 매주 정성껏 써준 Mr.Levine에게 감사하고, 무엇인가 생각지않던 필요한 지식을 얻은 것같아서 역자도 「유서」를 작성해 놓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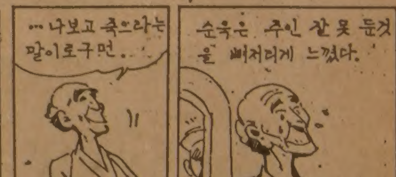



▲『취중운전도 살인』…LA경찰국의 빌보드—취중운전단속강화 캠페인을 벌이고있는 LA 경찰국이 거리에 세우려고 디자인한 대형선전간판. 그러나 취중운전을 총기살인과 함께 취급「어느쪽이든 감옥에간다」고 강력히 경고한 이 빌보드는 당장 주류업계의 거센 반발을 받아 약간 수정될 예정이다. 〈LA-AP〉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여러분의 년말연시 축하광고 및 인사는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간 한국일보社에게 맡기십시요. (☎ 533-2361)

三國志 529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Rosen DAIRY PRODUCTS LTD.
"YOUR EXCELLENT SERVICE" is our "NUMBER 1. CONCERN"
FEATURING "Silverwood" AND MANY OTHER QUALITY PRODUCTS
CALL 278-MILK
AND "WATCH YOUR SALES GROW!"

## 정기이사회 소집공고

회칙 제15조1항에 의하여 198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아 래 —

일시 : 1983년1월6일(목) 오후6시
장소 : Inn on the Park Hotel Park Ball Room (Leslie & Eglinton)
안건 : 1. 집행부 현황보고
2. 이사장 선출
3. 감사및 선관위원 선출
4. 분과위원회 구성
5. 기 타.

1982년12월16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이사장 김 태 진

## Welcome to K.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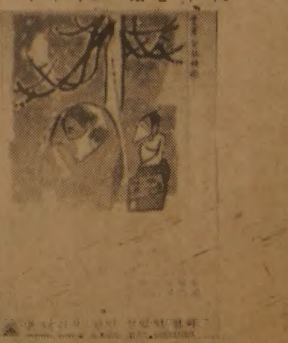
### — 금주의 신입회원 —

Three Joon Chang Investment Ltd. 장가진
Forest Glen Sea Food ..... 임호빈
Lucky Dollar .......... 김병천
Brown Mart .......... 박인서
Pik Kwik ............ 최길우
Mike's Milk & Variety .... 박회우
8 to 11 Milk Store ...... 이한근
Weston Milk .......... 김선자
Family Mart .......... 박인세
Jai & J Convenience ...... 김재웅
The Food Basket ....... 박종수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 실협 칼렌다가 나왔읍니다!

운보 김기창화백의 화폭이 담긴 아름다운 협회 칼렌다가 서울에서 도착하여 새해의 선물로 회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직접 또는 인편으로 협회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당 1부)

이는 850회원에게의 우송료 1,700불을 절약하기 위함이오니, 회원제위의 양해를 바랍니다.

실협총무 김 풍수

# 拘束영장청구된 피의자·親族등 有利한 資料 제출가능

## 검찰求刑·辯論 끝난후 14일内 判決선고 해야

### 保釋신청·구속취소청구는 7일 내처리
### 묵비권 알려야, 檢事는 위압적신문못해
### 刑事소송법규칙 고쳐 來年3월 시행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나 그변호인, 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피의자에게 유리한자료를 법원에 제출할수있게된다.

또 보석신청이나 구속취소청구를 접수한 재판부는 검사의 의견이 제출된때로부터 7일이내에 그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지금까지는 결정기한이 정해져있지않아 피고인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다.

대법원판사회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형사소송법규칙」을 의결, 대법원장의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칙에는 그동안 법원과 검찰등 유관기관간에 논란이 돼온 법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는 제외됐다.

그대신 이 규칙은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합의서·진단서·피해자의 처벌 불원(不罰) 서면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수있는 규정을 마련,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할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 규칙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제한하지 않았던 판결선고의 기한을 원칙적으로는 검찰의 구형이있고 변론이끝난날(결심공판일)로부터 14일이내로정했고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때에도 21일을 초과할수없도록했다.

이규칙은 또 재판장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이 끝난 직후 피고인에게 검사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수 있는 묵비권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고 검사는 피고인을 신문할때 진술을 강요또는 유도하거나 그밖에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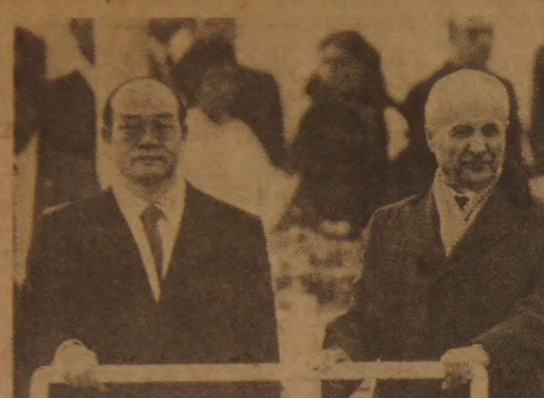
이 규칙은 또 재판부가 보석이나, 구속취소등 판결이아닌 결정을 할때라도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수있게했으며 이때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및 변호사등 소송관계인도 참여할수있게했다.

또 검사는 구속됐다가 적부심이나 구속집행정지 보석등으로 석방되거나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피의자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때는「재청구」라는 취지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인멸한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으며 구속기간연장신청때 역시 연장이 필요한 상당한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규칙은 이밖에 ▲변호인의 효력이 추가기소된 사건이나 파기 환송된 사건에도 미치고 ▲재판부가 공판개정시간을 가능한한 세분해서 지적,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이 오랜시간 기다리는불편을 없도록 했다.

# 에브렌大統領 어제入京

## 오늘 韓·터키 頂上회담



◇양국頂上 의장대사열 全대통령이 20일 來韓한 에브렌 터키 대통령을 맞아 金浦공항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케난·에브렌 터키대통령 이 全斗煥대통령초청으로 우리나라를 4일간 공식방문키위해 73명의 공식·비공식 수행원과 함께 20일하오 특별기편으로 來韓했다.

全대통령과 영부인 李順子여사는 이날 金浦공항에 나가 에브렌대통령을 영접했고 양국 대통령은 함께 3군의장대를 사열했다.

이날 공항에마련된 환영식장에는 金俊成부총리、3부要人、駐韓외교사절단등 3백여명이 환영나왔으며 金聖培서울시장은 에브렌 대통령에게 행운의열쇠를증정했다.

에브렌대통령은 訪韓기간중 21일 全대통령과 韓·터키頂上회담을 갖고 韓半島정세를 포함한 세계정세와 양국간의 교역증진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韓·터키頂上회담에서는 또 터키의 경제개발에 한국이참여하는 문제도 논의될것으로 보인다.

# 許和平·許三守 비서관 依願免職

### 후임 政務1 鄭順德 司正 鄭寬溶씨

靑瓦臺

全斗煥대통령은 20일대통령비서실을 改編、許和平정무제1수석비서관과 許三守司正수석비서관을 각각 依願免職하고 정무1수석비서관 후임에 鄭順德의원 (民正黨·全國區)을、司正수석비서관후임에 鄭寬溶중앙선관위사무처장을 이날자로 각각 임명했다고 靑瓦臺대변인이 발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신임 鄭정무1수석비서관과 鄭司正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鄭順德씨

◇鄭寬溶씨

◇鄭정무1수석略歷=▲경남忠武출신·47세▲陸士卒(16期)▲국방대학원졸 ▲보병연대장 ▲軍團작전참모·참모장 ▲육군准將예편▲11代국회의원(全國區)▲국회재무위간사 ▲韓日의원연맹간사

◇鄭司正수석略歷=▲서울출신·47세 ▲東國大법학과卒 ▲총무처관리·의정·인사과장 ▲총무처총무·인사·행정관리국장▲중앙공무원교육원부원장▲國保委사무처장▲중앙선관위사무처장

# 5년이상 같은장소 영업

## 附價稅率 50%경감

정부는 소득세법및 부가세법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부동산 취득가격의 7%를 매매에따른 필요경비로 인정、양도차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는한편 5년이상 장기간 동일장소에서 영업하는 일부 서비스업종 사업소에 대해서는 부가세 표준신고율의 50%를 경감적용키로 했다. 〈稅法문답풀이 3면〉

정부는 또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받는 週休日수당등 복지후생적 성격의 급여와 대학교수를 비롯한 학계인사가 정부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해 비과세하거나세액감면혜택을주기로했다. 이밖에내년부터발행되는 올림픽복권당첨금 (최고1억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하지않고 분리과세 (세율15%) 키로 했다.

# 北傀、이란에 武器판매

## 올들어 탱크등 8億弗상당

### NYT보도

【뉴욕=金泰雄특파원】북한은 이란이 對이라크전쟁을위해 금년에 전세계에서 사들인 20억달러의 각종무기중 약40%에 해당하는 8억달러상당의 무기를 이란에 판매、이란의 주요무기공급원으로 등장했다고 뉴욕·타임즈紙가 프란시스·웨스트 국제안보담당 국방차관보의 말을 인용、19일자 1면에 크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은 이란에 蘇製T62탱크 1백50대、박격포1천문、對空기관포 6백문、소형총기 1만2천개및 다량의 탄약등을 이란에 판매했다고 전하고 이들무기들은 소련 또는 중공제이거나 북한제로 알려지고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무기외에도 소련식 훈련을받은 3백명의 군사교관을 이란에 파견、이란의 對이라크戰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 鄭順德의원 辭退

## 金志虎씨가 承繼

靑瓦臺정무제1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民正黨의 鄭順德의원이20일낮 丁來赫국회의장에게 辭表를제출함에따라 民正黨전국구 예비후보6번인 金志虎씨(民正黨서울市支部사무국장·사진)가 의원직을 承繼했다.

◇金志虎의원略歷=▲咸南元山출신·55세▲國民大정치과卒▲대한민국의용군중앙본부회장▲仁荷工大총무과장▲共和黨서울도연락실 선전직부장·사무차장 ▲民正黨서울市사무국장

# 오늘 韓日議員聯 총회

## 經濟협력등 중요현안문제 協議

【東京=宋孝彬특파원】韓日의원연맹 제10차 합동총회가 21일 東京에서개최된다.

지난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교과서파문으로연기됐던 이번총회는 나까소네(中曾根康弘)수상취임후 처음으로 갖는 양국가의 공식접촉으로 그동안 교착상태에빠진 경제협력(經協)문제등 중요현안문제들을 집중협의할것으로 보인다.

의원聯盟은 이날 총회와함께 ▲안보·외교▲경제 ▲사회문화·교과서▲在日한국인 法的지위 위원회등 4개분과위를 각각 열고 분야별 議題를 논의하며 폐막에앞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측은 이번공동성명을통해 ▲日本역사교과서 歪曲의 조속한시정 ▲經協의 조속타결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는 협력강화 ▲기술협력의 심화등을 촉구할것으로 알려졌다.

나까소네수상은 日本수상으로서는 異例的으로 아베·신따로 (安倍晋太郞) 외상과함께 개회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韓日관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므로 서로 우호증진을다짐해나가자」고 강조, 韓日관계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밝힐것으로 보인다.

한편 韓日의원연맹의 李載瀅등 대표단52명은 이날 상오 東京에도착、나까소네(中曾根)수상、아베·신따로(安倍晋太郞) 日韓의원연맹회장등 日本정부지도자들을 예방、양국간의 현안문제등 공동관심사에대해 논의했다.

# 蘇、플로리다海峽위협

## 쿠바서 海軍力 크게增強

### 레먼 美海軍장관 警告

【워싱턴=聯合】소련은 쿠바에서 해군력을 대규모로증강하기 시작、비상시 미국의 對外군수품및 병력수송로인 플로리다 해협을 위협하고있다고 존·레먼 美해군장관이 19일 밝혔다.

레먼 장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紙와의 서면회견에서 소련은 쿠바인근 플로리다해협에 연하는 미국의 주보급로에 60여기의 순항미사일어뢰정 M23機 신형 프리기트함을 배치하고 있으며 쿠바도 완벽한 잠수함기지를 보유하고있다고 말했다.

# 独立紀念館건립誠金

## 우리의 작은 精誠이 큰뜻 이루게

〈20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民正黨鍾路·中區지구당 3백24만원
青松食品대표金泰煥씨 1백만원
天道教京都교구 30만원
〃 關義〃 27만원
〃 仙區〃 21만원
대원기업 장대성씨 21만원
山井物産金俊煥씨 20만원

▲民正黨 서울第1(鍾路·中區) 地區黨委員長및 黨員一同 (2차분) =3백24만3천원
▲青松食品 (株) 대표이사 金泰煥씨=1백만원
▲天道教 日本京都教區=30만원
▲天道教 關義教區=27만5천원
▲天道教 仙區 教區=21만8천원
▲天道教 聖區 教區=14만4천원
▲天道教 安東教區=10만1천원
▲대원기업사 대표 장대성씨외 임직원 一同=21만7천원
▲(株) 山井物産 대표이사 金俊煥씨=20만원
▲서울공곡국교 (교장 김태웅) 전교생一同 (2차분)=13만9천6백60원
【소년한국접수】
▲동대문구전농동195의30 이충애씨=10만원
▲韓國상이군경出身老人會天一회(회장 張林潤씨)=10만원
▲大邱市北區山格3洞1429의17 許敬誠씨=10만원
▲종로구홍지동97 박주민一同=5만원
▲서대문구홍은3동 白蓮鄕友會 회원一同=5만원
▲서대문구현저동32 친목회원一同=5만원
▲무암 (母岩) 친목회一同=2만원
▲民族統一大田市東區협의회 朴明出씨=1만원
▲경기도화성군송산면사강리 허영범씨=1만원
【사강지국접수】
▲강원도영월군주천면양조장 박권식씨=1만원
【영월지국접수】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社会漫評

歲暮기분 좀 나빴으면 참 좋겠다…

## 地平線

세모가 가까우면 모든 사람들은 혈육과 고향을 그리게 된다。막다른 세모인 20일상오 이북5도민회가 중심이돼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를 통일회관에서 순수 민간단체로 발족시킨 것은 꼭 해야할 일을 했다는 반가움이 따른다。호마가 북풍에 울고 월조가 남쪽 가지에 깃들듯 혈육을 그리는 정은 천륜의 소이인 것이다。▼이날 위원장에 선출된 趙永植경희대이사장은 「막연히 혈육을 만날날을 소극적으로 기다릴것만이아니라 적극적으로 혈육을 찾아나서자」고 했다。사실 이산가족찾기의 추이를 돌이켜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혈육을 찾아 나서려는 시도가 때늦은감마저 없지않다。대한적십자사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지도 이제 11주년을 넘겼다。그때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1천만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을 실현시키기위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를 북한에 제의이었고 국토분단 4반세기만에 대화는 시작됐었다。▼이제는 대화가 이어져 단절의 두터운벽이 뚫리고 남북으로 헤어졌던 혈육끼리 만날수있게 되었다는 기대와 나아가서는 조국통일의 희망도 엿보인다 하여 온겨레의 그감시 기쁨은 그지없던 것이었다. 하나 그 기쁨도 잠시의 일일뿐、북한은 73년 8월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시켜 겨레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혈육끼리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안부라도 알고자하는 애틋한 심사는 가위 단장의 울부짖음이라 할수가 있다。우리적십자사는 그후로도 꾸준히 노부모사업、가족사진교환、성묘방문단교환、판문점 면회소및 우편물교환소설치등의 제의를 계속해왔으나 저들은 어느 하나에도 아랑곳이 없었다。▼북한 공산주의자의 사람답지 못한 얼음덩이 심사가 이어져오는 76년에는 제네바에서 국제인도법회의가 열려 이산가족 재회에 관한 권리규정을 새로 채택했었다。「흩어진 가족의 안부를 알고자 하는것은 「가족의 욕구」라고만 소극적으로 표현되었던 종래의 개념을 이때 아예 「가족의 권리」라 명시하고 국제법상 인간기본권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권리규정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그후도 북한은 피맺힌 국내 이산가족들의 울부짖음이나 국제적 양심의 소리엔 귀를 꽉 틀어막고 있는것이 현실이다。이제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고 또 이미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서로가 천륜으로 이어진 정을 모른채 세상을 떠나고 있으니 이산가족찾기가 민간운동화하는 이번에야 말로 그 사무친 한을 풀게 되었으면하는 바람이 앞선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illegible]
부동산

김종주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謹賀新年

조용하고 따스한 정. 카나다내 "한국인"
그 안에서 좋은 "벗"됨이 "D.Y.식품"의 소원입니다.
우리고유의 "맛"을 정성으로 다듬어 제품마다 소복하게
담아드릴 때 "D.Y.식품"의 기쁨이 있읍니다.

인기최고의
가주미 쌀
➡ $16.95

즐거운성탄과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하옵니다.

DY식품 카나다 총판
오 기 환

# 波, 31일 계엄 停止

## 國家評議會발표 宣布 1년18일만에

### 半軍·半民 통치時代예상

### 安保·經濟등은 軍서장악

【바르샤바AP UPI=聯合】 폴란드국가평의회는 19일 자유노조에의해 야기된 정치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선포된 계엄령을 1년18일만인 오는31일을 기해 잠정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앞서 폴란드의회는 전날인 18일 계엄령을 정지시킬수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계엄령에의해 제한을받던 많은 규제조치들이 완화되게됐으나 당국은 아직도 안보및 경제분야를 완전하게 장악할수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당국은 [illegible] 불화를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illegible]에 따라 이를위반하는 노동자나 학생을 해고하고 퇴학시킬수 있게 된다.

또 대부분의 공장들이 軍의 통제를 벗어나게됐으나 군법에 예속되는 공장의 근로자들은 공장경영진의 승낙없이는 마음대로 직장을 그만둘수없다.

계엄령정지로 1단계 軍政통치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半軍半民통치로 접어들게됐으나 국가평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 계엄령을 전국또는 일부지역에 사전경고없이 선포할수있는 권한을갖고있다. 폴란드관리들은 83년중반에는 계엄령이 완전히 해제될것이라고 말했다.

실베스터·자바즈키법상은 그동안 계엄령위반행위로 구금된 수천명의 자유노조원과 그지도자들이 대부분 석방될것이나 2백명은 반국가혐의로 기소될것이라고 밝혔다.

◇계엄령停止 조치후 야루젤스키 폴란드수상 보이체흐·야루젤스키가 18일 계엄령정지조치를 승인한 의회에서 부수상 야누스·오보도프스키와 숙의하고 있다. 【바르샤바18日AP聯合=聯合】

# 콜레라로 1만명死亡

## 방글라데시 인접國家들에 擴散위험

### 日교수 厚生省보고서 밝혀져

【東京=聯合】 세계보건기구(WHO) 콜레라오염지역명단에 들어있지않은 방글라데시에서 지난9월초이후 지금까지 콜레라가 맹위를 떨쳐 추계 1만여명이 사망한것으로 일본후생성에 제출되어 19일 공개된 한 보고서가 밝혔다.

대카에 본부가있는 국제설사병연구소의 사회의에 참석하고 지난달 귀국한 오사카(大阪)대학 다께다교수는 후생성에 세출한 보고서에서 지난9월초 대규모 콜레라가 발생하기시작한 [illegible] 아시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콜레라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께다교수는 방글라데시에서 콜레라의 전염기가 11월이 [illegible]으로 보고있으며 우기인 5월경에는 인접국가들까지 확산될것으로 우려했다.

# 핀토前부수상이 가장有力

## 포르투갈聯政 首相후임에

【리스본UPI=聯合】 전격사임한 프란시스코·핀토·발세마오포르투갈聯政수상후임으로 카를로스·모타·핀토前부수상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고 포르투갈신문들이 19일 전했다.

신문들은 이밖에도 조아오·살게이로경제상및 아조레스·지방정부수반인 조아오·모타·아마랄씨등 3명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들의 경우 제1당인 社民黨등 聯政참여정당들로부터 반발이 나오고있다고 덧붙였다.

◇內外動靜

▲民韓黨소속 의원들은 林鍾基총무 초청으로 20일하오 6시 국회귀빈식당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人事異動

◇(書記官級) 水産廳 ▲公報擔當官 林鍾國 ▲法務〃 高德鳳 ▲漁業振興官室國際協力擔當 金相洙 ▲〃遠洋開發擔當 徐[illegible]

# 일부서 鄧노선 批判

## 중공 紅旗 점차 共産主義교리 離脫

【北京AP=聯合】 일부 中共黨간부들은 毛澤東이후의 鄧小平정권이 점차 공산주의교리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中共黨이론지 紅旗는 이날 발간된 최신호에서 中共의실력자 鄧小平이 이끄는 毛사후 정권이 점차적으로 공산주의교리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일부 당간부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잡지는 「일부 黨간부들이 毛澤東이후의 정권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공산주의에서 이탈한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일부 간부는 일례로 과거 수년동안 지방에서 확립된 「책임량」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국가에 의한 한정된 책임량을 채운후의 잉여생산분을 농민들이 직접 내다파는 행위와 개인소득추구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紅旗는 비판자들이 「책임량」제도를 과거의 「집단주의정신」을 희생시킨 이기적 제도라고 비난하고 있는것으로 전했다.

中共黨총서기 胡耀邦은 지난9월의 黨전국대표대회에서 中共인구의 80%가 사는 농촌지역에서의 불만조장이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 南태평양서도 地震

【호놀룰루·웰링턴AP·UPI=聯合】 지난주 北예멘을 비롯, 아프가니스탄·印度·臺灣·쿠바등 위도상으로는 北回歸線上에 위치한지역에서 잇달아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19일 南태평양에서도 리히터지진계로 7·5가넘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호놀룰루의 퍼시픽쓰나미지진예보센터는 19일상오(한국시간 20일새벽2시44분) 리히터지진계로 강도7·4를 기록한 강력한지진이 뉴질랜드북동쪽 7백마일떨어진 케르마데크군도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호주 골든의 지질연구소는 南태평양에서 발생한 지진의 강도가 7·7도로 나타났으며 진앙은 濠洲동쪽 2천마일 떨어진 통가군도라고 말했다.

【사나(北예멘)WAM=聯合】 지난13일 1천5백여명의 인명을 희생시킨 강진이 발생했던 北예멘북부 다마르에서 18일 또다시 3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北예멘관리들이 말했다.

## 얼굴

### 鄭順德 청와대政務제1수석비서관 — 陸士16期 上下 신망두터워

陸士16期로 맹호단지 3개월만에 [illegible] 政界에 투신한후 국회[illegible] 黨간사로서 작년에는 [illegible] 小委위원장, 금년에는 [illegible] 한 재정금융법안의 절충과정에서 力量을 발휘했다. 특히 금년에는 實名制과 [illegible]동을 국회에서 처리하는과정에서 初選답지않은 솜씨를 보여 黨內外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았다.

작년에 재무위 간사가된 뒤 생소한 재정분야를 익히기위해 주위 전문가들을 찾아 거리낌없이 배우고 [illegible].

越南戰에도 參戰하는등 「강직하다」는 것이 [illegible] 평소에 원만하고 부드러운 [illegible] 두터웠다는 評. 취미는 [illegible] 테니스와 독서. 가족으로는 부인 宋[illegible]여사(42)와 1남2녀.

### 鄭寬溶 청와대 司正수석비서관 — 총무처서 25년 사교적性品

듬직한 체구에 원만하고 사교적 성품의 소유자. 일을 처리하는데있어서는 좀처럼 틈을드러내지않고 매사를 섬세하게 완벽을기하려는 꼼꼼한 일면을 갖고있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 총무처의 前身인 國務院사무국에서 수습행정원으로 출발, 25년간 총무처의총무·인사·행정관리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부원장을지내는등 총무처에서 官職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다.

國保委시절 國保委사무처장으로 발탁되면서 새공화국 준비를위한 개혁작업에 참여했으며 이어 80년8월 중앙選管委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민투표, 대통령선거, 11代總選등을 잡음없이 치러냈다.

이 무렵 선거가 끝난후에는 선관위직원들을 독려, 「選擧實務要覽」과 「지방選管委연혁집」을만들고 선거관리조직을 항상 재정비하는등 全天候稼動하는 스타일로 인식됐었다.

취미는 테니스. 가족으로는 부인 崔孝順여사(42)와 2남2녀.

# 라이벌 韓化 완파…5連覇노려 太平洋

# 팀파울 위축 漢陽大에 역전승 海龍

## 대통령盃 농구

太平洋化學과 東邦生命, 海龍과 現代가 제11회 대통령배농구대회 패권을 다투게되었다. 20일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대회8일째 준결승에서 太平洋化學은 라이벌 韓國化粧品을 64-58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 5連覇에도전하게되었다. 東邦生命은 金和順·李美子의 분전으로 코오롱에 68-52로 압승, 결승에 도약했다.

東邦의 金和順과 李美子는 각각22득점을 올렸고 리바운드에서 李美子가 12개, 金和順이 11개를잡아내는 활약을 보였다.

한편 남자부준결승서 海龍은 후반 중반까지 漢陽大의 파이팅에말려 고전했으나 黃有福·李廣宰의 슛이 호조를 보이고 漢陽大의플레이가 팀파울로인해 위축된틈을타 역습, 88-79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太平洋과 化粧品의 대결은 朴贊淑, 金英姬, 두장신의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는데 太平洋이 중거리슛과 [illegible]에서 앞서 승리했다. 朴贊淑은 金英姬와에서 골밑슛을 제대로 날리지못하고 협동반격이 위축되었으나 太平洋은 東善姬, 洪惠蘭의 중거리슛으로 게임의주도권을잡았다. 化粧品은 기동력이없는 金英姬 때문에 수비약점이 노출되자 숏을 버리고 [illegible]으로 공략했으나 중거리슛의 침묵으로 전반을 39-27로 뒤졌다. 金英姬의 장신파워는 후반에 들어서 돋보였는데 朴贊淑과 1對1로 맞서 대등한 리바운드 싸움을 보였고 간간이 골밑슛을 날려 팀플레이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太平洋은 朴贊淑·柳明姬 두 장신이 化粧品의 수비속을 드나들며 골밑슛을 날렸고 [illegible] 중거리슛으로 한때 15점까지 점차를 벌렸다. 化粧品은 朴良桂의 골밑대시와 金英愛의 슛이 패이스를 찾아 추격의 불을당겼으나 1분30초를 남기고 金英姬가 5반칙으로 쫓겨나 전세를 뒤집지 못했다.

◇제8일준결승

▲여자부

동방생명 68(30-30, 38-22)52 코오롱

태평양화학 64(25-31, 39-27)58 한국화장품

▲남자부

해룡 88(45-32, 43-47)79 한양대

현대 80(41-37, 39-29)66 용비

◇준준결승(19일)

▲남자부

현대 87-60 산업은행

용비 62-61 기업은행

▲여자부

태평양화학 67-47 국민은행

한국화장품 61-60 외환은행

◇千金의 리바운드 결승진출권을 다투는 東邦生命-코오롱대전. 東邦의 장신신예 李美子(6번)가 한발자 늦게 달려든 코오롱 센터 金福順(14번)을 제치고 리바운드 볼을 낚아채고있다.

# 프로蹴球선수 出戰허용

## 올림픽 유럽·南美지역 예선戰에

### IOC·FIFA, 82월드컵選手는 제외

【취리히AP=聯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은 오는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축구본선진출권을 따내기 위한 지역예선전에 유럽과 南美의 프로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을 허용했다.

조앙·아벨란제 국제축구연맹(FIFA)회장은 18일 취리히에서 열린 FIFA집행이사회에서 IOC의 그같은 결정내용을 밝히면서 다만 지난 7월 스페인에서 열린 8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예선및 본선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이 결정에서 제외될것이라고 덧붙였다.

IOC와 FIFA의 대표들로 구성된 小委員會는 유럽과 南美지역 프로선수들의 올림픽본선 출전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나 기타지역의 축구선수들은 프로선수들에 대한 IOC의 규제조치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않고 있다.

FIFA관계자들은 90년 월드컵축구주최의사를 밝히고 있는 나라는 伊太利,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유고등이며 한국, 브라질, 페루등은 94년 월드컵대회 개최의사를 비공식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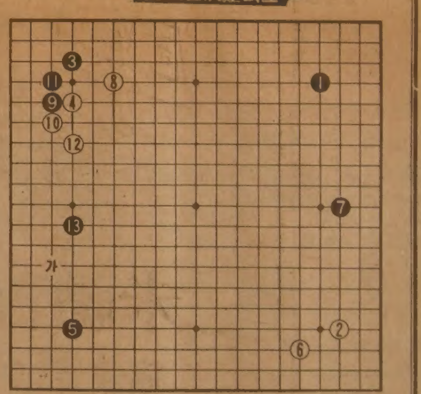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588·2861

#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6局 第1譜 1~13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 姜 勳〈2勝〉

黑(7段) 盧 永 夏〈2敗〉



盧7단은 이미 연2패, 도전권은커녕 자칫 시드組에서 또한번 탈락할까 염려된다. 다만 그의 성품탓인지 늦게 발동이 걸리는 편이므로 殘餘4국을 지켜보는 것도 일품일것같다.

이에반하여 姜4단은 이번期에도 호조의스타트로 연2승을 올리고있다. 작년도에 아까운기회를 놓친일이 「藥」이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현재까지 무서운 기세로 단독선두에 나서고있다.

段은 비록4단이나 청상팀 고단자와 큰승부를 수없이 치른 姜4단이지라 白을 들고두어도 당당하게보인다.

### 全勝者와 全敗者

그리고 항시 서슴없이 「破定石」내지 「破常識」적인 運石으로 상대의 의표를 찌른다. 白2가 그런종류에 속하는, 발향변경으로서 역시 대담한취향. 그러나 黑5까지 보통포석으로환원되었다.

黑7로는 좌상귀쪽을 먼저 9에 너붙여도 무방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전연다른 또하나의 바둑이 벌어질 판이니 왈가왈부할 단계는 못된다.

白8로 씌운이상 이하 12까지 가장 무난한 정석형이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지만 전문기사들은 대체로 手數가 긴 정석을 피하려드는 경향이 농후하다. 수수가 길면 그만큼 변화의 여지가 적어국세도 간명하게 되기때문이라고한다.

黑13. 그냥 「가」의곳에 굳힐수도 있는곳인데 적극적으로 두어본 점이다. 【一凡】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 교 회 안 내

| 교회 | 목사 | 예배시간 | 주소 | 전화 |
|---|---|---|---|---|
| 가나안교회 | 이정춘 | 주일오후 1:30 |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 742－7010 |
| 대한교회 | 조남유 | 주일오후 2:00 | 3819 Bloor St. W. | 621－6340 |
| 대한수도원 | 조권사 | 철야기도 금 밤11:00 평일기도 오후2:00<br>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 100 Lawlor Ave. Tor. | 698－5363 |
| 런던제일교회 | | 주일오전 11:00<br>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 135 Briscoe St. E. | (519)439－6331 |
| 런던한인교회 | 신용규 | 주일오전 11:00<br>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10:00 | 530 Topping Lane, London | 473－5257,<br>686－0224 |
| 메시아한인교회 | 조창환 |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br>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 1580 McCowan Rd. | 298－1876 |
| 시민교회 | 조성관 | 주일오후 3:00<br>오후 4:30 금요기도 밤 9:00 | 662 Pape Ave. Tro. | 266－4918 |
| 선교교회 | 강제철 | 주일오후 1:00 | 1 Greenland Rd. | 444－8002 |
| 임마누엘교회 | | 일요오후 2:00 | 63 Dunblaine | 488－4141 |
| 은성장로교회 | 장은덕 | 주일오후 2:00 | 8 Amroth Ave. (at Danforth & Woodbine) | 694－9691,<br>266－8820(R) |
| 제7일안식일 | 박형종 | 금요오후 7:30<br>토요오전 9:30, 11:00 | 255 Finch Ave. W. | 630－4284 |
| 중앙한인연합교회 | 김태규 | 주일오후 12:30 | 353 Sherbourne St. | 922－3863,<br>922－0605 |
| 천주교회 | 최규식 | 주일오후 1:00<br>토요오후 5:30 | 439 Dundas St. E. | 863－0415 |
| 충현교회 | 박경남 | 주일오후 2:00<br>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 8:00 | 240 Manor Rd. | 446－1211 |
| 한인중앙교회 | 정관일 | 주일오후 1:00<br>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 502 Bathurst | 245－4980<br>(전화설교) |
| 한인교회 | 반병섭 | 주일예배 오후 1:30 | 69 William St. Weston | 243－9543,<br>743－8082(R) |
| 해밀턴연합교회 | 김나중 | 성경공부 2:30<br>예배 3:00 주일학교 3:00 | 1570 Main W. Hamilton | 627－4329 |
| 키치너워터루교회 | 정동서 |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 388 Ottawa St. S. Kitchener | (519)579－0954 |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시편 100 : 1~2〉

# 피의자 權益보장에 「새로운章」 열었다

### 새로제정된 刑事소송법규칙의 意義

## 강제人身구속素地 제거

## 誘導신문금지도 進一步

## 진술거부권 明文化에 큰뜻

### 令狀실질검사제 연기는 아쉬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형사소송법만 있을뿐 형사재판절차를 자세히 규정한 규칙이 없어 관행에 따라 형사공판이 진행돼와 이에따른 불편이나 미비점이 적지않았다.

현사소송법이 54년 제정된이래 28년이 경과하면서 몇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형사소송절차 일반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지않았던것.

때문에 재판실무상 불편은물론이고 무엇보다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무시된채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많을수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형사소송법규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위해 사법부가 거보(巨步)를 내디딘것으로 평가된다.

이규칙은 지금까지 대법원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마련했던 잡다한규칙과예규,하급법원의 질의에대한 회답및 통첩, 실무관행을 종합적으로 흡수한외에 모법인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곳곳에 담고있다.

우선 이규칙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청구를 받은 판사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수있는권리를 인정하고있다.

지금까지는 법원은 검찰이나 경찰등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 제출한 구속영장신청서와 피의자진술서, 수사기록등에 의해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로인해 영장담당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범죄사실이나 피의자진술조서등에 의문이 있어도 이를 확인할길이 막혀있어 억울한 인신구속의 소지가 없지않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의자측에서도 합의서, 진단서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탄원서등을 제출할수있게돼 법관은 이를 참고자료로 사용할수 있게됐다.

예를들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자신이 주장하는「진짜계약서」를 제출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수있는 사람은 피의자본인외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있는 사람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등이다.

원래 법원은 규칙제정작업을 벌이면서 법관이 영장발부단계때 피의자를 직접불러 진술을 들을수 있는「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을 검토했으나 유관기관의 이견도있고해서 결국 제도 도입은 다음기회로 미루어졌다.

유관기관의 반발이 많기도했지만 대법원 판사회의에서는▲체포장제도등피의자의신병확보제도가 마련돼 있지않고▲법관으로서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영장청구를 기각해버리면 되고▲구속적부심제도가 마련돼있다는 점등이 거론돼 제외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신구속을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결정하던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자료 제출권을 부여한것은 진일보한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되어야한다는데 재야법조계의 주장이다.

보석이나 구속취소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기한을못박은것은 청구인이 결정을무작정 기다려야하던 폐단을시정하기위한것이다.

재판부는 청구가 있으면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하고검사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하며 이기간내에 검사의 의견표명이 없으면 보석허가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한다는게 형사소송법규정이다.

따라서 규칙은 검사의 의견제출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있어 검사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적어도 10일이내에는 보석허가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판결선고 역시 검찰의 구형이 있고 변론이 종결된날(결심공판)로부터 원칙적으로는 14일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21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구속기간(1심6개월, 2심4개월) 만기가 되기때문에 결심이 되고도 사건에 따라 종종 1～2개월씩 기다려야하는 폐단이 있었다.

특히 형선고에따라 무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풀려나게될 피고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형이 선고되는게 불필요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막는 길이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상소하는 경우라도 형이 확정될때 미결 구금일수를 산입해주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길어지는 일은 없다해도 정신적으로나 상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형선고가 빠를수록 좋은것이다.

이밖에 불구속피고인의 경우에도 자신이 재판을 기피해온게 아니라면 형선고가 빠른것이 형이 확정 안돼 겪던 불편을 막는 길이 될것이다.

앞의 2가지 기한규정은 지켜져야하는「강제규정」이 아니고 법관들에게 준수를 요망하는「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기는하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검사의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하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고모욕적 위압적신문을 하는것등을 제한한것도 반가운 일이다.

모법에 그러한 정신이 담겨져있고 실무적으로도 이루어져온것은 사실이나 명문화한것은 나름대로의 의의가 더 있는것으로 보인다.

자칫 피고인보다 더 무시되기 쉬운 증인에 대한 신문도 크게 제한했다.

우선 개별적, 구체적 신문을 원칙으로 하고 위협,모욕적인 신문, 중복신문,의견을 묻는 신문등은 금지했다.

또 증인을 신청한 측의 신문(주신문)의 경우 유도신문을 금지시켰다.

다만 예외규정을 두어▲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 ▲검사, 피고인및 변호인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측에 대해 적의나 반감을 보일 경우▲증인이종전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할때 그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등에는 유도신문이 가능한 길을 터놓았다.

한편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측의 신문(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지나치다고인정될때에한해 재판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했다.

공판개정시간을 가능한한 세분해 정하도록 한것도 피고인이나 변호인,가족등이 불필요하게 자기차례를 기다려야하던 불편을 시정하기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며칠날 상오 또는 하오공판」으로 막연히 지정해 맨마지막 차례의 피고인이나 그사건관계인은 몇시간씩 기다려야하는게 관례였다.

검사가 한번구속됐다가 석방됐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피의자에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때「재청구」라는 사실을 반드시 써넣고 새로 발견한 중요한 증거및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실여부를 기재하도록 한것도 의미가 있다.

이규정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지키게할 수있는것이다.

또 영장이 기각됐던 사안보다 더 발전되게 없는데도 영장담당판사가 바뀜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를 막을수도있다.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할때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서면에 기재하도록 한 것 역시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구속기간이연장되던 폐단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즉 검찰은 사건폭주와 인력부족때문에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관계로 1차구속기간 10일이 지나면 거의 예외없이 구속기간을 10일씩 연장하는타성에젖어온게사실이다.

이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계속수사의 필요가 있다는 문귀만 써넣어 연장신청서를 내왔고 법관은 의례적으로 이를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계속수사의 상당한 이유를 밝히고 법관은이를 검토, 인정될 경우에만 발부하겠다는 취지로서 불필요한 구속의 장기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규정도 법관들이 실질적으로 준수할 때에만 실효를 거둘수있을것으로보여진다.

국선변호사건에 관한 절차는 종전의「국선변호인 선정등에 관한 규칙」을 그대로 흡수했다. 오히려『불성실한 국선변호인의 징계조치를 대한변협회장에게 요구할수 있다』고 돼있던 것이『불성실사유를 통고할수있다』로 후퇴했다.

변호인선임의 효력이 추가기소된 사건이나 파기환송된 사건에도 계속되는것으로 규정한것은 지금까지 실무관행상 또다시 선임계를 제출해야하던 번거로움을 제거하기위한 것이다.

이 규칙제정은 새사법부가 출범한 이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등이 크게 관심을 기울여 송무제도개선위원회에서 조문 조문이 성안될때마다 보고를 받고 검토하는등 1년6개월의 시일이 걸렸다.

또 대법원판사들의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좋은 규칙이 제대로 운용될수 있느냐가 더 큰과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사법부 자체의 관심과 검찰등 유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할것같다. 【裵泰植기자】

---

## 메아리

10

MBCTV의「장학퀴즈」가 지난일요일로 5백회를 맞았다. 한 TV 프로가 10년을 끌어온다는것도 장한일이지만 그것이 퀴즈 프로이고보면 시청자들의 퀴즈에 대한 熱이 새삼 놀랍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賭券에 당첨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수수께끼를 맞히고 싶은 마음 또한 있는것이다. 賭券이 射倖心의 발로라면 수수께끼를 푸는것은 날으는 새를 떨어뜨리고싶은 사냥꾼의 심리와같다. 사냥이 운동이라면 퀴즈는 머리의 體操다. TV의 퀴즈는 참가자뿐이니라 모든 시청자가 함께 문제를 푸는것이므로 가히「國民體操」라 할만하다.

지난 19일의「장학퀴즈」시간에는 그동안 이 프로에서 期壯元을 한 15명중 지금은 대학생이 된 5명이 특별출전했다. 5백회동안에 참가한 2천5백명의 결승전같은 것이니 섬광같이 번쩍번쩍 빛날것으로 기대했지만 의외로 활기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출제에 재치가 모자랐던 탓이다.「시간을 안내하는 전화번호는 몇번이냐」하는 출제는 한사람도 못맞힌것을 방청석에 있던 국민학교 4학년생이「116」이라고 정답을 대답했다. 모든 시청자는 폭소를 터뜨렸으리라. 이런일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고 또 이것이 퀴즈의 애교인 것이지만, 폭소를 그치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TV퀴즈 출제의 虛點을 웃었던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TV에는「장학퀴즈」말고도 KBS의「퀴즈대결」등 모두 7가지가량의 퀴즈 프로가 있다. 이 퀴즈들은 출제가 한결같이 지식 테스트 위주다.「폭넓은 교양과 해박한 지식의 제공」이 퀴즈의 목적일수도 있지만 그것이 모두인것은 아니다. 우라 TV들은 퀴즈 프로 출전자와 시청자들의 기억력 시험만을 하고있다. 우리는 흔히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을 천재라고 한다. 그러나 기억력만 가진 천재는 아무 用途가 없다. 그 기억력에 創意力과 연결되지 않으면 타락한 천재다. 몰리에르의 연극「女學者」에「유식한 바보는 무식한 바보보다 더 바보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한 사나이가있었다. 이 사나이는 이 마을에 관해 모르는것이 없었다. 마을에 있는 가로수의 數, 모든 건물들의 높이, 자기집에서 그 건물들까지의 거리등을 죄다 외고 있었다. 그는 물론 그 마을의 소문난 바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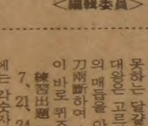
우리 퀴즈 프로는 應用力, 推理力, 觀察力, 分析力등을 묻는 힘이 약하다. 한날 오락프로에 너무 큰 주문이라고할는지 모르지만 방송국측 주장대로「방송을 통한 사회교육」이 이 프로의 한가지 목적이라면 그 국민교육이 偏食的이어서는 안된다. 그렇잖아도 우리나라학교교육이 암기식 주입식이란 말을 듣는 마당에 TV퀴즈마저 학교교실의 연장일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지식」보다는「지혜」다. 이 인식과 이에 대한 훈련이 우리에게 모자란다. TV가 一役이 되어 나쁠것 없다.

역사를 추진시킨것은 무엇보다도 콜룸부스의 달걀이나 고르디온의 매듭이다. 콜룸부스는 新大陸발견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위에 세우지 못하는 달걀을 세울줄 알았고, 알렉산더 대왕은 고르디온의 神殿기둥에 매인 줄의 매듭을 아무도 풀지못하자 칼로 一刀兩斷하여 大帝國의 王이되었다. 이들이 바로 퀴즈王이었다.

練習出題 한가지.

7, 21, 24, 21, 63, 66, …이 數列에는 각숫자사이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럼 點線의 숫자는? 63이다. 3을 곱하고 3을 보태고 3을 빼고…해나가는것이 법칙이다. 같은 식으로 數列이 100, 64, 39, 23, 14, …일때 點線의 숫자는? 正答은 이 欄속에 있다.




金聖佑
<編輯委員>

---

◇말하는 人形 美國최대의 장난감 제조업체중의 하나인 피셔·프라이스·토이즈社의 프랭클린·배티 사장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로 만들어낸 말하는 인형을 선보이고있다. 【이스트오로라19日 AP합=聯合】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 海外토픽

### 中共, 反落胎폭동

★擁衛班 38명 모두살해

정부당국으로부터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은 임신부 2명이 사망한데 자극받은 中共山西省의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산아제한시술반 38명을 살해한사건이 발생했다고 臺灣의 청년루사紙가 17일 정보소식통들의 말을 인용보도.

이신문에 따르면 지난6월 山西省의 지방에서 당국이 28명의 임신부를 강제로 낙태수술했는데 이중 임신8개월인 2명의 여성이 유산후 사망했다는것. 【臺北=UPI】

### 샌터할아버지편지

★美서, 北極보내달라쇄도

크리스머스가 며칠 남지 않은 요즈음 미국의 각지역 우체국에는「북극의 샌터 클로즈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어린이들의 편지가 셀수도 없을만큼 많이 쇄도하고있다고.

우체국직원들은 편지를 보낸 어린이들이 샌터 클로즈의 이미지를 영원히 간직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 편지들을 반납하지않고 답장을 직접 써보내거나 자선단체나 독지가들에게 의뢰해서 정성이 듬뿍담긴 선물을 안겨주도록 주선하고있다는것.

어린이들의 편지중에는 우표도 붙이지 않은 것이 있는데 편지내용은 연필이나 크레용 혹은 페인트로 쓰여져 있다고 우체국직원들은 설명.

어린이들의 편지중에는「사랑하는 샌터할아버지, 강아지 한마리를 갖게해주세요」란 깜찍한 예원조의 사연이 있는가하면『말을 타게 지폐한장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소박한 내용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호소하는 아름다운 마음씨가 담겨져 있기도 하다고. 【워싱턴=UPI】

### 한국行우편 混線

★번호誤認해 日로 잘가

연하장 발송계절을 맞아 韓國으로 보내는 일부 연하장이 우편번호때문에 日本 국내 우편으로 잘못 취급되는 수가 많다고 日本 우체국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東京=聯合】

### X머스트리에 肥料묻혀

#### 西獨서 도난防止등위해

크리스머스때마다 크리스머스트리를 훔치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있는 西獨에서는 북부 베스트팔렌州만 해도 올해에 약 15만그루가 도난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독일의 DPA통신이 보도.

들키면 4백 달러의 벌금을 물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층까지도 크리스머스트리를 훔치려 한는 이유는 팔려오는 과정에서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나무를 원할 뿐만아니라 삼림감독관들의 눈을 피해 나무를 훔치는 것을 일종의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기때문. 【함부르크=UPI】

---

## 改正된 5개稅法시행령 어떻게 달라졌나

# 未納稅率 日邊 5錢으로

### 癌등 死亡보험가입자엔 年24만원 혜택

▲稅法개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조세감면규제법, 상속세법,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특별소비세법은 차후 부처간의 의견조정을 거친후 확정될예정. 세법개정령의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양도소득세를 매길때 적용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의 판단기준이 달라졌다는데.

▲지금까지는 1차 중도금 지급일을 양도·취득시기로 잡았으나 개정령에따르면 대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단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原因日이 그 기준이된다.

―단기양도시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달라졌나.

▲일반적으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연2회 결정되기때문에 그기간보다 짧은기간에 전매한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어지게 된다. 이점을 개선하기위해 취득시기준시가에서 전기준시가를 뺀금액에 보유월수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6개월로 나눈금액을 양도차액으로한다.

계산例. 83년2월1일취득. 83년5월1일양도(보유기간3개월). 83년1월1일현재 기준시가 1천3백만원. 82년7월1일기준시가 1천만원.

양도가액=1천3백+(1천3백-1천)×3개월÷6월=1천4백50만원.

양도차익은 1천4백50-1천3백=1백50만원.

―부동산 양도비용 개산공제도의 신설내용은.

▲특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동산 취득가격의 7%는 필요경비로 인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준다. 개산공제 7%란 등록세 3%, 취득세2%, 방위세0.6%, 소개료 1.4%를 합산한 것이다.

한편 기타자산이나 미등기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의 1%를 필요경비로 인정.

―錢主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대한 과세방법이달라졌다는데.

▲지금이자금액전체를법인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이미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未納付(과소납부)의 경우 적용되는 加算稅率은 얼마나 인하됐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했을때적용되는 이 납부가산세율이 日邊7錢에서 日邊5錢으로 인하되었다.

따라서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日邊5錢을 적용하거나 10%를 곱한 것중 많은 액수를 적용한다.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非課稅범위가 확대됐다는데.

▲육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는 현행처럼 전액비과세되며 이제까지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포함)는근무소득으로 인정, 과세되었으나 이가운데 월정급여액의 20%까지는 실비변상적경비로 인정, 비과세한다. 이에따라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大田등을 제외한 지역의 국민학교교원들이나 職原기능대학 교원들이 혜택을 받게됐다.

이밖에 정부가 출원하는 특정연구기관 종사원의 연구활동비도 월정급여의 20%까지 비과세한다. 해당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업경제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등 17개 단체다.

―週休수당이나 여성의 生理수당도 새로 非課稅된다는데.

▲지금까지는 年·月次수당만 복지후생적 경비로 간주, 비과세해왔으나 앞으로는 週休日이나 生理休가일에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소득 공제대상이 달라지나.

▲소득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제대상 보험종목이 한정되어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암보험·질병보험·사망보험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월납여액에 관계없이 연간24만원이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게된다.

이자가 붙거나 납입보험료총액보다 만기보험금이 많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월납여액에 관계없이 공제혜택을 받지못한다.

다만 기존가입자들로서 월납여액이 50만원미만인 근로소득자들은 연간 24만원이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게된다.

―신축주택양도에 대한 實行세율은 어떻게 결정되었나.

▲개정조세감면규제법은 ①82년5월18일부터 83년6월18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은 5%까지 세율을인하할수있도록하고②83년7월1일부터 84년6월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은국민주택에한해 5%, 나머지는 20%까지 인하할수있도록하고 실행세율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시행령은①항은 5%로 정하고②항은 83년상반기에 정하도록 했다. 다만 감면세율은 83년1월1일이후 양도한분부터 적용한다.

―83년부터 발행될 올림픽복권에 대한 과세는?

▲주택복권당첨소득이나 복금부예금당첨소득처럼 15%세율을 적용, 분리과세한다. 따라서 1억원에 당첨된 경우 세금은 1천5백만원만 내면된다.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더욱 완화했다는데

▲현재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는경우 공장을 이전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舊공장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경기와 대규모공장을 일시에 처분하기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舊공장처분시안을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3대이상 대물림 주택 및 5년이상 동거부양주택에 대한 주택상속세추가공제액의 산정방법은?

▲3대이상 대물림은 증조부→조부→부→자로 대물림한 경우와 외증조부→외조부→모→자로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5년이상 동거부양이란 성년의상속인이 배우자와함께 계속하여 5년이상 같이 살면서 부모를 모시는 경우를 말한다. 입증방법은 주민등록표에 따른다. 추가공제액의 산정방법은 주택가격에서 주택상속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90%를 곱한 금액. 예컨대 1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과표는 4천만원이나 5년이상 동거자는 4백만원이 된다.

―5년이상 年賦年納할수있는 사업상속의 범위.

▲개정상속세법은 상속세납부세액이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3년분할납부를 5년분할납부할수있도록했는데 시행령은 상속범위를 규정, ①개인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3년이상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 ②法人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3년이상 소유한 주식으로서 출자지분이 10%이상인 주식을말한다.

―동일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한 사업자에 대해 세제상혜택을 부여하기로했다는데.

▲음식·숙박등 현금취급업종중 國稅廳長이 지정한 업종으로서 한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한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대로 인정해주는 표준신고율을 일반업소보다 50%경감적용해주고 객관적인 탈세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하지않기로 했다. 예컨대 일반업소의 표준신고율을 전기대비 1백20%로 했을경우 장기계속업소는 1백10%가 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한 연장.

▲현행은 당해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한했으나 개정령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한으로 연장했다. 예컨데 82년2월10일 거래가 있었다면 현행은 수정세금계산서교부기한이 82년6월30일이나 개정령은 83년1월25일까지로 연장했다.

―買入稅額을 공제받을수있는 사업자 등록일은?

▲현행은 등록증을 교부받은날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하고있으나 개정령은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부터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經濟部】

---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TOEFL과 미시간시험을 대비한 특별교실.
□기초반·중급반·상급반
□83년도 1월·3월·5월·7월·9월 그리고 11월에 수업시작.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외국학생의 비자신청 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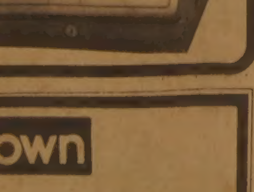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드립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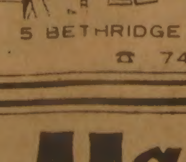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Pender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595.00
SAN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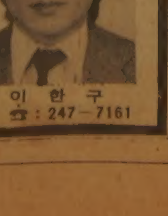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성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 해넘긴 "양성화" "단속" 論爭속

# 電子오락실 "新種도박" 盛業

## "상금 最高 2백50배나" 기념주화 郵票등걸어

### 클로버게임 동전밀기

「단속이다」「양성화다」는 찬반 양론속에서 이렇다할 결론없이 해를 넘기게된 「전자오락실」에 최근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형태의 유기시설까지 등장했다. 「클로버게임」「동전밀기」등 낯선 이름의 이 신종 유기행위는 방학을 맞은 전국의 초·중·고교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머스와 연말연시를 노리는 이놀음은 상금으로 내건돈이나 기념주화, 우표등을 따먹는 형식이어서 오락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도박이라 할만하다.

클로버게임은 일종의 주사위놀이다.

가로·세로·높이 각 40cm 가량의 플래스틱 통속에 10원짜리 동전2개를넣고 단추를누르면 통속에든 6개의주사위가 용수철의작동에 의해 한꺼번에 구르는데 주사위색깔의 배열에 따라 점수가 정해지는 방식이다.

주사위는 면마다 빨강·파랑·노랑등 각각 다른 색깔의 클로버잎이 그려져 있는데 6개의주사위가 모두 같은색인경우 5천원, 2가지 색깔이 나란히 배열된 경우는 1천원등으로 상금이 걸려있다.

최고2백50배의 돈을 딸수있다는 허황된 유혹에 솔깃한 청소년들이 몰리지만 실제 2백원, 3백원짜리 상금이 걸린 주사위배열이 나오는 확률도 극히 낮다.

또 어쩌다 2~3백원짜리 상금을 받아도 5천원짜리 「대상(大賞)」을 제외하고는 동전으로 상금을 받게 돼있어 결국 딴돈을 모두 잃고 일어서게 마련이다.

또 한차례 게임을 하는데 불과 10여초밖에 걸리지 않아 20원씩을 걸고 게임을 계속하다보면 10분이면 1천원정도를 그대로 털리기 십상이다.

永登浦 경원극장앞의 무허가 전자오락실에서 클로버게임을했다는 金모군(16·Y고 2년)은 『하학길에 친구들과 어울려 게임을했다가 1시간만에 1주일치용돈 5천원을 모두 날렸다』면서 『3백원짜리 상금을 겨우3번탔을뿐』이라고 업자의 「사기」에 속은것을 분해했다.

이같은 클로버게임은 지난 8월초 서울시가 무허가전자오락실에대한 집중단속을 한차례 편뒤 「양성화」와 「무기한단속」 사이에서 뚜렷한 정책결정을 하지못하고 망설이는 틈을타고 처음나타났는데 지금은 서울역주변과 永登浦역주변, 鍾路1·3街, 新村로터리, 淸凉里역주변등에서 폭발적으로 성업중이다.

「동전밀기」는 특히 중·고생들에게 큰인기를 모으고있다. 쇼케이스처럼 생긴 상자속에 10원짜리동전을 무더기로 밀어넣으면 가로40cm, 세로20cm넓이의 판위를 나무막대가 스치고오가면서 동전을 가장자리로밀고가는데 이때 판위에깔린 동전뭉더기위에 각종상품을놓아두어 동전과함께 가장자리의 구멍으로 굴러떨어진 상품을 가져갈수 있게돼있다.

상품은 제5공화국탄생기념·88올림픽기념·찰즈英황태자결혼기념등 각종 기념주화와 외국우표·고화폐·외국화폐등인데 기념주화는 대개싯가 5천원정도의 것이고 고화폐중에는 싯가 1만원짜리까지 있지만 이게임에도 업자들의 교묘한 「눈속임」이 작용, 대개의 상품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동전이 밀려 상품과함께 떨어지게돼있는 가장자리의「상품구멍」외에 양옆에도 구멍이 뚫려있어 동전이 빠져나가기때문에 상품이 떨어지려면 적어도 3~4천원어치의 동전을 넣어야한다는것이 게임을 직접 해본 청소년들의 경험담이다.

또 나무막대가 움직이는속도와 상품의 무게가 교묘히 조절돼있어 가벼운 우표종류는 비교적 쉽게 굴러 떨어지지만 기념주화나 바닥에 두꺼운종이를 붙여놓은 고화폐는 「눈속임처럼 밀려나가지 않고 아래의 동전만 밀려나간다.

이처럼 사행성높은 신종오락기구들은 대부분허가 전자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오락실 한쪽에 7, 8대씩의 기구를 설치해놓고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도 지난 80년 당국의 단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던 사행성높은 구슬당구장(속칭「토게놀이」)도 최근들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있고 담배등을 상품으로내건 소형당구, 건전한 스포츠와는 거리가먼 「경품부기」등사격놀이곳곳에서성업중이다. 【姜東泰기자】

◇겨울방학과 연말을 맞아 최근 청소년들사이를 파고드는 「클로버게임」이란 신종유기장。즐비하게 놓인 동전바구니가 영락없이 도박장을 연상케한다。

# 현행 醫保制度 점진적 擴大

## 保社部 「종합방안」

## 國會 연초 토의·공청회도

정부는 80년대말까지 국민개보험을 실시하기위한 의료보험일원화방안을 확정짓지 못한채 현행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보완하는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내린 「전국민의료보험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연내까지 의보일원화 법안을 국회에 내기로 돼있던 보사부가 일원화법안대신 내놓은 종합방안은 ①현행제도의 확대적용 ②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보확대 ③전국민 대상을 전제로한 진료권(診療圈)별 절충식종합운영등 3가지로 돼있으나 ②③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①안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있다.

이에따라 국회는 보사부가 제출한 이3가지 방안을 토대로 내년초 의료보험일원화 소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한편 필요할경우 공청회를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했다.

崔永喆 보사위원장은 이날 『보사부안을 바탕으로 전국민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줄수있는 방안에 가장 가까운 案을 만들방침』이라고밝혔다.

보사부가 제시한 3가지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제1안=의료보험조합연합회(1종·사업장근로자)와 보험공단(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등)을 현행대로 두고 연합회산하에 근로자 지역(2종) 직종의보조합을, 공단산하에 시도지부를 설치하는것이 한가지.

다른 한가지는 연합회와공단을 통합, 중앙에 의보연합회를 두고 그산하에 근로자 지역 직종 단체조합과 공단을 설치토록 하자는것.

이경우 간편한 집단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보험재정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는등 수혜대상을 넓혀 나갈수있으나, 전국민적차원의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등 사회보장적 기능이 미약한단점이있다.

▲제2안=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실시하고 의보제도를 종합관장하기위해 公社와 [illegible]을신설, 산하에 시도지부를두고 운영한다는내용.

적용대상의 직업 소득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강제적용함으로써 농어민 자영자에대한 적용확대가 가능하며 소득재분배기능에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전달체계미약 ▲재원조달대책불투명 ▲2종(지역)보험재정적자등으로 드러난 주민부담능력등 문제가많은 실정이다.

▲제3안=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2안과 같으나 다만 중앙연합회산하에 광역생활권별조합을 구성, 운영하며 지방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제2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있다.

# 智異山서 50명조난

## 1명死亡 4명凍傷

【晋州】 대설주의보가 내린 주말 지리산에등산갔던 50여명의 등산객들이 조난, 이들중 재수생1명이 동사하고 4명이 동상을 입고 晋州시내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해발1천7백60m지점인 장터목산장과 세석산장으로 대피했다.

18일하오3시께 35cm가량의 눈이쌓인 지리산 세석산장을 떠나 장터목산장으로올라가던 전남대1년 정일현군(21)등 20대등산객 5명은 도중에서 영하18도의 추위와 허기에지쳐 이들중 강선필군(20·全南潭陽郡鳳山面新鶴里)이 동사하고 정군등4명이 심한동상을 입고 쓰러져있는것을 이날밤11시40분께 장터목산장관리인 이종화씨(33)가 발견, 구조했다.

동상을입은 정군과 박대신군(20·全南潭陽郡鳳山面新鶴里) 이무형군(20) 김형주군(20)등은 이날밤 늦게 구조대에의해 긴급 하산, 晋州시내 김유양병원등에 입원가료중이다. 【聯合】

# 전국에 毒感 注意報

## 방콕A型등 新型3종 면역성 약해 "위험"

보사부는 20일 독감환자가 급증하자 전국에 인플루엔저 주의보를 내리고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및 집단생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당부했다.

보사부는 올겨울에 방콕A형 브라질A형 싱가포르B형등 세가지유형의 인플루엔저가 유행할 우려가 많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통보에따라 인플루엔저 예방대책을 강화토록 각시·도에지시한것이다.

보사부는 특히 브라질A형 및 싱가포르B형같은 아직 우리나라에 상륙한적이 없는 신형독감으로 이에대한 면역성이 약하다고 지적, 인플루엔저예방법및 예방접종방법등을 설명한 홍보자료50만장을 제작, 각시·도와 문교부 노동부 문공부등에보내 반상회 학교 산업장등에 배포토록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각시·도에서는 관할지역 종합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독감환자의 가검물을 채취, 국립보건원에 직송토록 지시하는한편 보건원직원을 지방에보내 가검물을 직접 채취토록했다.

인플루엔저는 바이러스에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크게 유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75·76·77·80년등 거의 매년겨울 크게 유행해왔다.

# "가난하고 弱한자들에게 구세주의위로 가득하길"

## 金壽煥추기경 聖誕節메시지

천주교 서울대교구 金壽煥추기경은 20일 구세주의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모두에게, 특히 가난하고 약한이에게, 고통에 신음하고 우는이들에게 구세주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빈다』는 내용의 성탄메시지를 발표했다.

金추기경은 『지난1982년은 인종과 우리겨레가 많은 상처를입고 괴로와한해로 국제적으로는 영·아르헨전쟁, 이란·이라크전쟁, 레바논사태의 엄청난 참상, 아프리카내륙의 내전과 기아상태등 비극적인 사태로 인류는 아물수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수많은 이들이 크게 타격받은 모습이 역력하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와 우리교회에 충격과 시련을 안긴 미문화원 방화사건은 우리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 정신착란 家長이 3남매殺害…자살

## 榮州

【榮州】 정신분열증환자가 갑자기 발작을일으켜 3자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은 분신 자살했다.

20일낮 12시께 경북榮州市 榮州4洞29 金相泰씨(31·국제탁구장 경영)가 집에서 자신의 장남 훈석군(8) 장녀 은정양(4) 2녀 유희양(2)등 3자녀를 흉기로 찔러 차례로 살해하고 자신은 집에서 2백m떨어진 속칭 제인투산중턱에서 석유를 온몸에 뒤집어쓰고 불을붙여 자살했다.

이날 金씨의 처 주영숙씨는 시6촌동생에게 빚을 갚으려고 외출, 집에는 남편 金씨와 아이들만 있었다.

주씨에 따르면 남편 金씨는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아왔으며 6촌동생에게진 1백만원의 빚때문에 최근 자주 발작을 일으켜왔다는것.

부인 주씨에 따르면 빚을 갚으로 갔다가 하오1시께 집에 돌아와보니 안방문이 잠겨져있어 이상히 생각하고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숨진 아이들이 이불에덮혀있었다는 것이다. 【聯合】

# 돼지 8천마리 폐사

## 務安 農畜場 9월이후번진 豚콜레라에

【木浦】 전남務安郡望雲面城內里 久一산업務安농축장(대표 李仁炯·50)에서 기르고있는 돼지8천여마리가 지난 9월중순부터 20일까지 3개월사이 콜레라에걸려 죽는등 7억원상당의 피해를 입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날 농축장측에 따르면 이들 돼지들은 대부분 4~5개월된 것들로 지난9월17일께 처음 1천여마리가 40여도의 고열과 설사를 하면서 눈에 핏발을 보이다가 10~15일뒤 죽기시작, 9월에 8백여마리가 죽은것을 비롯, 10월이후 계속 하루1백여마리정도 떼죽음을 당해 이날현재 폐사된 돼지가 8천여마리나 된다는 것이다.

이 농축장은 지난75년 이일대 20여만평의 간척지에 3백평규모의 돈사30채를 지어 연간 2만여마리의 버크셔, 요크셔, 햄프셔, 듀록등을 길러오면서 매일 수백마리를 서울, 부산등 전국각지에 방출, 국내 굴지의 양돈업체로 알려져왔다. 【聯合】

# 濟州황새도 죽었다

## 國內에없는 寄生虫감염…치료끝에

【濟州】 충남瑞山 황새가죽은지 한달만인 19일하오 濟州에서도 심한 영양부족으로 빈사상태에있는 황새 1마리가 치료를 받다 죽었다. (사진)

18일 하오 3시35분께 北濟州郡翰京面龍水里용수저수지 동쪽 수심10cm 깊이의 갈대밭에서 지난달 16일 濟州에온 황새 3마리 가운데 1마리가 날지못하고주저앉아있는것을 이마을 高榮敏씨(26·농업)가 발견, 집으로 옮긴 다음 濟州道에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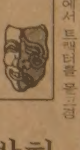
이에따라 濟州道는 19일상오 9시30분께 조류연구가인 濟州大 朴行信교수(47)등과 함께 현지에서 황새를 인수해와 濟州市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치료를 했으나 이날하오 5시께죽었다고발표했다.

濟州道가축위생시험소 수의사 尹琰振씨(31)에 따르면 이황새는 오른쪽 발가락 5개중 길이 7mm쯤되는 가운데 발가락이 약1개월전에입은것으로 보이는 상처로 썩어들어가 세포조직이 완전히 파괴되고 발가락뒤 50cm가량의 다리관절부분에도 염증이 있는데다 오른쪽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된 길이 4~7mm 너비1~2mm의 황갈색 기생충(이) 수천마리가 붙어있는등 심한 영양부족으로 빈사상태였다는것이다. 【聯合】

# 82 새마을勳章 노력장 탄 梁基淑양

## 「처녀 농사꾼」

## 마을의 앞날 밝힌 「故鄕의 꽃」



환한 가의 鄕里 출신의 젊은 여성들을 볼 때 마다 그들이 어째서 고향에다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청춘을 허비하는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고향이 그들의 뿌리를 받아들여 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애초에 황폐한 고향의 구차함을 등지고 돌아서버린 것인지, 「호스티스物」영화를 봐도 해답은 없다.

전남 光陽郡 道月里 道谷마을의 처녀농사꾼 梁基淑양(20·사진)은 자신의 고향마을에서 믿음직한 삶의 뿌리를 가꾸고있다. 처녀의 몸으로 마을 논에서 트랙터를 몰고 경운기를 끈다. 돈이많아 트랙터나 경운기를 구입한 것이 아니다. 마을청소년 12명과 함께 「새마을 기계화영농단」을 조직하고 농촌지도소에서 「과학영농」의 길을 열심히 공부해서 「기특한 처녀」로 인정받게 되었다. 융자금과 보조금을 받아내 자 융자금으로 콤바인, 트랙터, 경운기등 중장비를 구입한 梁양의 영농단은 이를 테면 마을의 기계화 부대이다.

『경험도 없는 것들이 농사를 지을수 있겠는가』며 혀를 차던 주민들도 농번기가 되면 늘 이 기계화부대에 조력을 요청해온다.

기계화부대의 도움으로 일손이 남아돌게되자 주민들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특용작물재배, 축산등에 힘을 기울이게 되어 금년에는 가구당 4백30만원의 소득을 올릴수 있었다. 소득이 올랐을 뿐아니라 청소년들은 농번기탁아소와 도서관을 개설했고 식생활개선강습회등을 열어 고향에서의 생활의 質을개선하는 일까지도 펼치고있다. 조상 전래의 가난을 숙명처럼 알고 살아온 노인들도 청소년들의 도전에 『마을의 앞날은 든든하다』고 말하고 있다.

梁양은 82년도 전국농어민 후계자대회에서 우수농사꾼으로 뽑혀 대통령으로 부터 「새마을훈장 노력장」을 받았다.

고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梁양은 처녀다운 자태를 잃지않고있다. 梁양의 아름다움은 떠도는 자들의 허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생활의 뿌리를 움켜잡고 이를 가꾸어나가는 사람의 貫하고 믿음직한 아름다움이다. 【順天=聯合】

# 어린이4명 또入院

## 新岩校長 직위해제

【大邱】 속보=대구新岩국교 납문계단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던 어린이 9명중 황인호군(11·5학년)등 4명이 20일상오 다시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현재 치료를 받고있는 학생은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다.

大邱시교위는 이번사고의 책임을물어 교장 姜聲敎씨(58)를 직위해제한데이어 문제의 남쪽교문을 폐쇄하고 사고경위를 면밀히 조사, 학교관계자를 추가로 문책키로 했다. 【聯合】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 알 림

아래와 같이 권욱순, 박성조 두분의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오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2월26일(주일) 오전11시

장 소 :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1982년 12월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목사 박희민 드림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배건물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 751-7664 (××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 성도교회

## 창립제6주년 기념예배안내

즐거운 성탄과 희망의 새해에 교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하오며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시 : 1983년1월1일(토) 오후 1시30분

장소 : 성도교회당(87 Elmhurst Dr. Islington)

☎ : 745-7370(사택)

행사 : 창립 제6주년 기념예배와 장립및 임직 예전.

□ 장로장립 : 이중배 집사

□ 안수집사장립 : 최경덕 집사

□ 권사임직 : 장안자 집사

1982년 12월

성도교회 담임목사 김용진및 교우일동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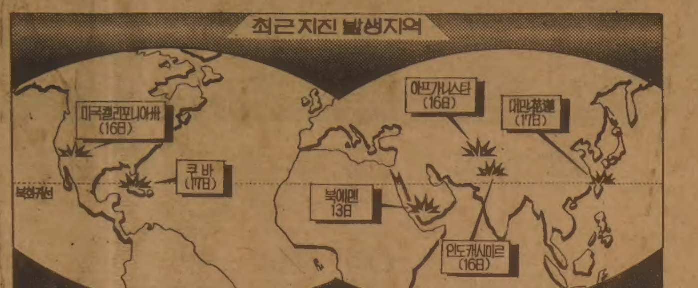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 全世界에 地震공포

## 北예멘↓아프간↓印度↓美↓臺灣↓쿠바 잇달아 強打

## 모두 北回歸線上 발생

### 北예멘、死傷3천 罹災民 40만




【뉴욕·臺北=聯合】 지난 13일 북예멘을 강타한 사상최악의 지진에 이어 16일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인도북부 캐시미르, 美캘리포니아州북부, 그리고 17일에는 臺灣과 쿠바에서 잇달아 지진이 엄습,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있다. 이일련의 지진들은 위도상으로 北回歸線상에 걸쳐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北예멘정부는 이번지진으로 1천4백48명이 사망하고 1천4백89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실질적인인명피해는 확인된 사망자수의 2배에 이를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北예멘의 사나방송도 4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피해부락이 속속 발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臺灣에서는 금년들어 두번째로 17일 상오11시45분 (韓國시간) 리히터지진계로 강도 6.5를 기록한 강진이 동부 花蓮市일대를 강타했으나 피해정도나 사망자수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臺灣기상대는 이번지진의 진앙지가 東海연안 花蓮市東北方40㎞의 해저약30㎞지점이라고 밝혔다.

또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청취된 아프가니스탄의 관영 카불방송은 17일 아프간북부지방을 강타한 지진으로 카불북방 1백60㎞지점의 카르카르광산촌에서 6명의 광부가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리히터지진계로 강도 7·1을 기록한 이번 아프간지진은 카불과 북부바그란까지 엄습한것으로 보도됐는데 서방외교소식통들은 아프간당국이 정확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데 며칠이 걸릴것이며 사망자도 늘어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바북부의 아바나省과 마탄사스省에서도 17일상오5시30분(韓國시간) 지진이 발생, 6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쿠바국영TV방송이 보도했다.

쿠바에서는 이례적인 이번 지진으로 일부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美國캘리포니아州 북부해안에서도 리히터지진계로 4·6을 기록한 미진으로 유리창이 깨지고 도난경보기가 울리는등 한때 소동을 벌였으나 인명피해는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 地殼의 "板운동"이 主因…火山·核실험도 영향

해설

지진은 지각이 깨지며 나타나는 일종의 충격파 현상. 板構造운동, 화산폭발, 핵실험, 댐이나 산사태등이 원인이되고있다.

그러나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판구조운동. 세계적으로 말썽을빚는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은 거의 대부분 판구조운동이 원인이 되고있다.

지각은 마치 물위에 뜬 얼음 덩어리와 같이 여러개의 板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판이 밀치고 밀릴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맞부딪쳐 생겨나는 충격파가 지진으로 나타난다.

지각은 크게 태평양板, 아메리카板, 아프리카板, 인도板, 유라시아板, 남극대륙板을 비롯 북아메리카板, 남아메리카板, [illegible]板, 동남아板, 마다가스카르板등 12~13개板으로 나누어져있다. 지진은 바로 이들 가장자리에서 빈발하고있다.

예를들어 태평양板은 매해 7.5㎝씩 日本列島 쪽으로 움직이며 일본해구에서 유라시아板과 부딪쳐 그 가장자리가 밑으로 가라앉고있다.

이때 부딪치며 밀리는힘에 의해 에너지가 지각깊숙이에 축적된다. 이에너지는 지각이 누를수있는 한계치를 넘어설때 방출하게마련인데 이때 지각이 깨지며 지진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판구조운동에의한 지진 지대에서는 비교적 안전지대에 속해있다. 【李光榮기자】

# 各黨 全黨大會준비 착수

## 國會폐회 따라 地區黨개편작업 서둘러

### 民正 黨要職 대폭改編가능성
### 民韓 1월말까지 改編마무리
### 국민 17개사고地區黨 곧整備

民正·民韓·국민당은 정기국회가 閉會됨에따라 내년초로 예정된 全黨大會준비에 착수, 지구당 改編대회를 비롯한 본격적인 黨조직정비와함께 소속의원들의 歸鄕활동준비를 서두르고있다.

아직 구체적인 전당대회일정은 확정되지않았으나 民正은 3월께, 民韓 2월말, 국민당은 1월말께 치르어질전망이며 대회이후 폭넓은 黨職개편이 뒤따를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民正黨의 경우 내년 4월초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의장단을 포함한 국회要職의 개편과 함께 주요당직의 변화, 내각개편의 가능성이 예상되며, 民韓·국민당은 柳致松·金鍾哲총재의 현체제가 지속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일대당직개편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民正黨** 民正黨은 지구당개편대회를 계기로 黨조직강화를 서두르는 한편 소속의원들의 귀향활동을 통해 黨의 업적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民正黨은 이같은 방침에따라 年末까지 3천5백명의 중앙위원 개편작업을 계속하는한편 내년1월17일의 海南·珍島지구당과 忠武·統營·巨濟·固城지구당 개편대회를 시발로 2월10일까지 92개지구당에대한 개편대회를 끝마칠 예정인데 지구당개편대회를 앞두고 「當面활동지침」을 각지구당위원장들에게 시달했다.

民正黨은 오는29일 黨중앙정치연수원에서 의원세미나를 소집, 歸鄕활동과 지구당개편대회에대한 구체적인 논의를한후 31일終務式을갖고 일제히 귀향활동에 들어간다.

**民韓黨** 民韓黨은 오는 20일의 東大門과 京畿·坡州·高陽지구당 개편대회를 시발로 전당대회준비작업을 본격화, 내년 1월말까지 전국지구당 개편대회를 완료하며 이어 각市道지부개편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지구당개편대회중 도청소재지에는 柳致松총재등 당지도부가 참석, 제1야당으로서의 확고한 민의 이미지쇄신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원내총무실은 의원들의 귀향활동자료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속의원들의 활동상황과 이에대한 평가를 담은 책자를 마련, 20일 의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당** 국민당은 금주중 당무회의를 소집, 全黨대회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초 당무회의에서 全黨대회일자를 확정한다.

국민당은 民正·民韓등 다른정당보다 먼저 지난15일의 서울城東지구당(위원장 曺德鉉의원) 개편대회를 시발로 이달까지 지구당개편대회를 끝낼 계획이다.

국민당은 또 78개 地區黨 가운데 현재 위원장이 辭退 또는 脫黨으로 공석이된 서울鍾路·中區등 17개 사고지구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부위원장이나 사무국장 등으로 직무권한대행을 지명, 최소한 법적소멸을 막도록하고 14개 未創黨 지구당에대해서는 全黨대회직후에 조직책을 임명할계획이다.

# 다나까 前日首相에 懲役5년 求刑될듯

## 록히드事件, 추징금 5億엔도

日紙 보도

【東京=宋孝彬특파원】 일본 검찰은 록히드사건으로 재판계류중에있는 다나까(田中)前수상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엔의 법정최고형을 구형할것이라고 도쿄(東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야스하라·요시오(安原美穗)검사총장등 검찰고위간부들과 록히드공판담당 검사들은 이달들어 몇차례 회담을갖고 내년1、2월중에 있을 구형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기로 합의했다는것이다.

검찰측은 다나까 피고인이 사건에대한 반성의빛을 보이지않고 알리바이 조작공작등을했으며 최고지위자의 범죄라는점에서 국민이 납득할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政治자금 11億배정

## 民正 5억4천 民韓 3억 국민 1억5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重瑞)는 18일 제5공화국출범후 최초로 全經聯·商議·貿易協會등 經濟3단체의 회원65개業體와 개인이寄託한 정치자금 11억5천만원을 정당에 配分했다.

選管委는 기탁자가 지정기탁한 2억원은 기탁자의뜻에 따라 그대로지급하고 나머지 9억5천만원은 각정당의 院內議席비율에따라 배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탁금의 정당별 배분금액은 다음과같다.

▲民正黨=5억4천18만8천8백80원(49·11%) ▲民韓黨=3억1천1백14만1백26원(28·28%) ▲국민당=1억5천5백22만8천4백34원(14·11%) ▲新社黨=6천6백22만7천4백11원(6·02%) ▲民權黨=2천85만6천10원(1·9%) ▲勤農黨=6백40만9천1백36원(0·58%)

## 터키 大統領 내일 서울에

케난·에브렌 터키 대통령이 全斗煥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기위해 20일하오4시 특별기편으로 來韓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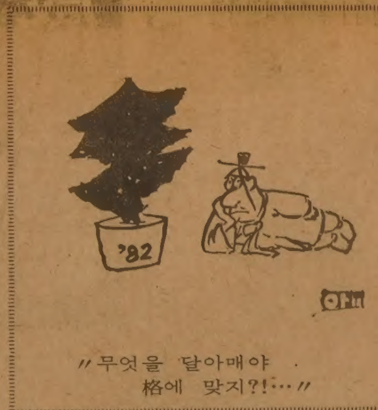
3泊4日간 滯韓할 에브렌 대통령은 21일 全대통령과 韓·터키頂上회담을 갖고 양국의 우호관계 강화와 통상증진방안등 공동관심사를 협의한다.

## 特許廳長 洪性佐씨
## 商工部、局長級인사

정부는 18일 특허청장(차관급)에 洪性佐상공부제1차관보(사진)를, 工業試驗院장(1급)에 全炳植대통령경제비서관을, 특허청抗告審判所장에 李東勳상공부상역국장을 각각 승진전보하고 상공부제1차관보에 車秀明 제2차관보를, 제2차관보에 車相弼특허청차장을, 특허청차장에 朴弘植항고심판소장을 전보발령했다.

李相[illegible]전 특허청장과 尹德[illegible]전 공업시험원장은 의원면직됐다.

## 社會漫評




"무엇을 달아매야 格에 맞지?!…"

## 地平線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땅속에는 지금 88억8천만달러의 노다지가 저장돼있다. 우리돈으로 6조7천44억원의 노다지다. 이것은 지난 73년의 첫 오일·쇼크이후 75년부터 시작한 기름비축량이다. 폐광된 岩鹽鑛속에 하루 22만배럴씩 기름을 부어 넣고있어, 지난 10월초현재 2억7천5백만배럴이 됐다. 이것은 미국전체소비량의 18일분이 넘는 분량이다.

▼선진공업국의 석유비축은 서슬이 시퍼런 기름생산국의 압력에서 벗어나기위한 방편의 하나였다. 최근에는 이들 공업국이 재여놓은 기름을 퍼쓰고있다. 지난 9월말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이들의 비축량은 1년동안에 1백1일분에서 97일분으로 떨어졌다. 연말에는 95일분이 될것이라고 한다. 기름부자들의 텃세가 그만큼 약해진 원인의 하나다.

▼기름값이 폭락할지도 모른다는 조짐이 일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오페크)의 호령이 통하지않게 됐기때문이다. 그최대의 이유는 두말할것도 없이 불경기다. 그래서 지난 3월 오페크는 기름생산량을 하루1천7백50만배럴로 줄여 1배럴에 34달러선을 지키기로 했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비용에 쫓기는 이란이나 리비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등이 생산을 줄이지않고 헐값에 팔기때문에 시작됐다.

▼게다가 공업국들의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개발정책도 큰몫을 하고있다. 선진공업국들의 모임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4개국은 73년에 비해 8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9%올랐는데 에너지소비는 겨우 4%늘었다. 더구나 기름소비는 73년수준보다 3%가 떨어졌다. 79년부터 자그마치 15%나 줄었기 때문이다.

▼세계기름시장을 쥐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마니석유상은 오페크회원국들이 석유생산할당을 지키고, 덤핑을 중단하지않으면 사우디아라비아도 기름값전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있다. 기름값이 25~28달러선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오늘 빈에서 열리는 오페크총회는 말하자면 코앞에 다친 기름값 폭락을 막기위한 모임이다.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올해는 영국과 멕시코등 非오페크회원국들의 기름생산량이 오페크회원국들을 앞지르고있다. 이래저래 기름값은 폭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IEA는 80년대말부터 다시 기름고갈이 시작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한 노력을 늦추지말라는 경고다. 추운 겨울에 떠는 매미신세가 되지않게 정신바짝 차려야겠다.

## 独立紀念館건립誠金

### 우리의 작은精誠이 큰뜻 이루게

<18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李載灐씨

全州李氏大同宗約院 6백34만원
大韓輕印刷協會 1백31만원
在요르단韓人會 1천6백弗
N·C·L社 한국인 6백29弗
駐獨대사관부인회 4백42弗
디자이너 姜淑姬씨 50만원
濟식품공사 30만원
東進出版貿易 20만원
함평李氏 훈응奬學會 20만원
柳仁企業(株) 20만원

▲社團法人 全州李氏大同宗約院理事長 李載灐씨외宗員一同=6백34만8천원 【個別명단2면】 ▲大韓輕印刷協會회원一同=1백31만원 ▲在요르단한인회=美貨1천6백달러 ▲在美아틀란타N·C·L회사소속한국인一同=美貨6백29달러 ▲駐獨대사관직원부인회=美貨4백42달러50센트 ▲디자이너 姜淑姬씨=50만원 ▲濟식품공사사장 陳[illegible]씨외 임직원一同=30만원 ▲東進出版貿易(株) 대표이사 김동욱씨=20만원 ▲경기도평택군오성면안중리 함평李氏 훈응장학회 (회장 이충헌) 회원一同=20만원 【安仲支局접수】 ▲柳仁企業(株) 代表理事 柳[illegible]씨=20만원 ▲(株)이스턴애드 대표이사 김의철씨외직원一同=15만8천5백10원 ▲社團法人 共産圈問題 研究所 理事長 李相[illegible]씨=10만원 ▲社團法人 共産圈問題 研究所회원및任職員一同=10만원 ▲韓永電機商社 대표 김상화씨외 임직원一同=10만원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김현진씨=10만원 ▲極樂庵(麻浦區麻浦洞414) 신도회=10만원 ▲在스페인교민(조성희씨、김창양씨、김장수씨)=美貨2백12달러 ▲在에콰도르 교민 변용웅씨 (전교민회장및현평통자문위원)=美貨2백달러 ▲在스위스 한인회 (회장 김정해) (2차분)=스위스貨4백35프랑 ▲在美샌프란시스코교민 최봉윤씨(전버크리대교수)=美貨1백달러 ▲在호주브리스베인한인회(회장김만영)=호주貨1백달러 ▲在호주시드니교민 최태순씨=호주貨20달러 ▲서울문성국교 (교장 이상훈) 전교생 (대표 6년 엄우용, 권진희, 5년 박정수) 일동 (2차분)=7만8천1백50원 【소년한국접수】

구독신청 배달사고 535-29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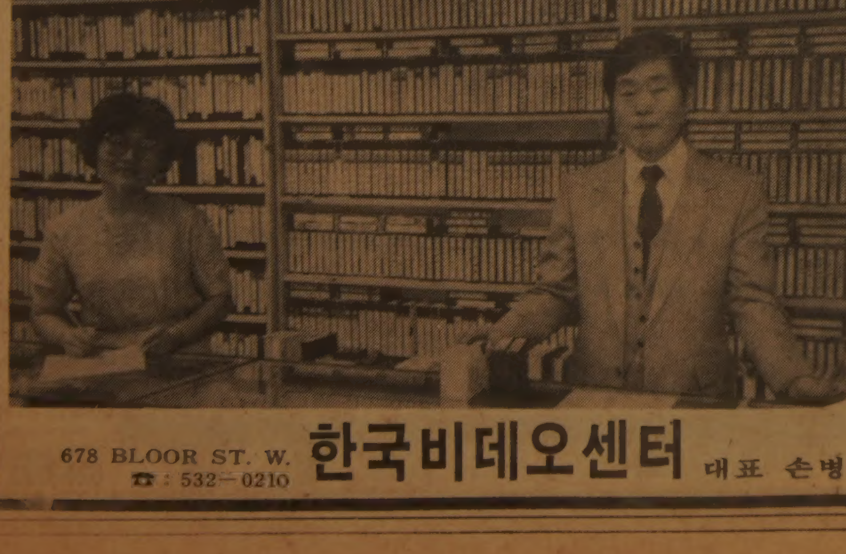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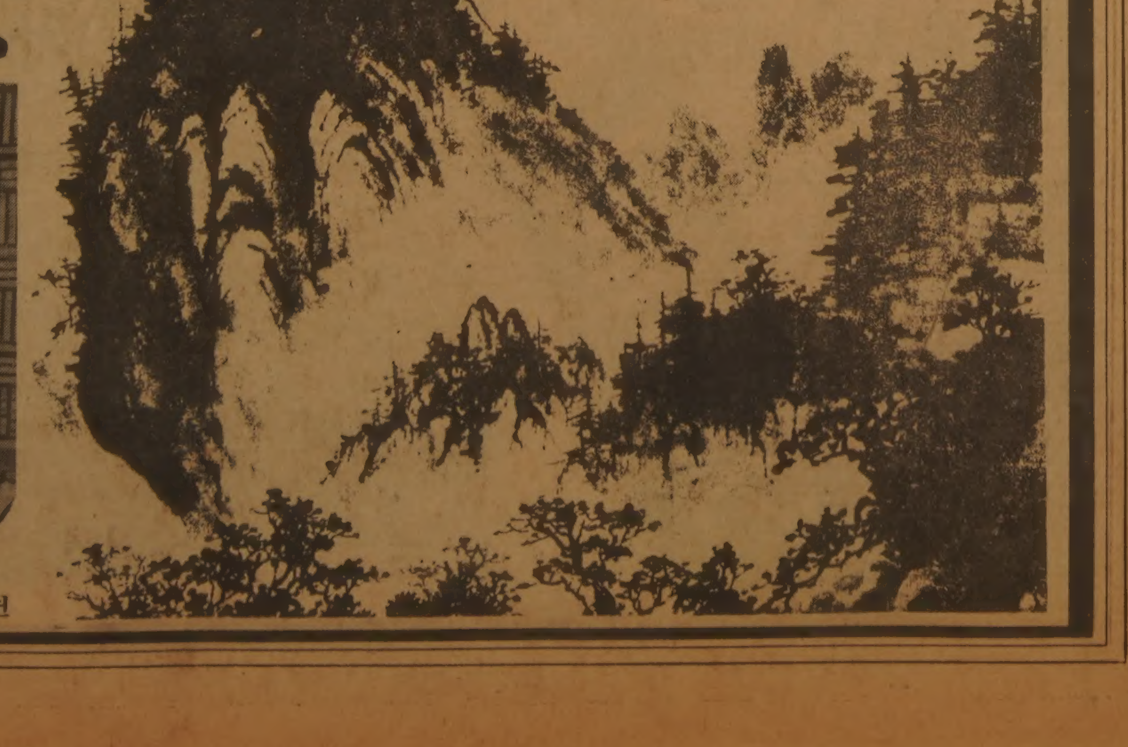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가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근하신년
새해도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678 BLOOR ST. W.
☎: 532-0210
한국비데오센터 대표 손병헌





# 아침 한때

# 事實과 眞實

## 報道하지 않는건 誤報보다 더 나쁘다

李相回 〈延世大 敎授〉

지난주부터 일기시작한 誤報에대한論難과 是非는 言論從事者들의 관심과 주의를 불러 일으키는데 그치지않고 일반 市井人들까지도 이문제에 지대한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誤報에 관한 각종 보도가 오보를 하나의 중요한사회문제로 클로즈·업 시켜놓은 것이된다.

신문과 방송의 誤報를 비판하는 측은 誤報가 사실을 虛僞로, 虛僞를 사실로 둔갑시킴으로써 수용자에 擬似環境을조성해주는 원인이 되기도하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侵害함으로써 인간의 基本權을 유린한다는 이유를들어 誤報에 철저한 制裁를 가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誤報의 不可避性을 주장하는측은 醫師가 誤診을 하는것과 같이 報道機關의 誤報도 때에따라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誤報에대한 지나친 制裁가 言論의 본래적 機能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論理를 전개하고 있다.

### 黑白논리는 禁物

얼핏 생각하면 양쪽의 주장에 모두일리가 있어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 되기가 쉽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言論機關의 誤報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强硬論도, 誤報의 規制를 무조건 반대하는 맹목적인 寬容論도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있다. 이런 경우 둘중 하나를 택할수밖에 없다는 兩分法的 黑白論理는 誤報問題의 올바른 해결을 그르치는 원인이될 수 있다.

오보에는 여러가지 형태와 종류가 있다. 誇張報道에서부터 사실의 歪曲, 變造, 그리고 造作에 이르기까지 오보의형태와 종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 즉 虛僞報道를 誤報라고 한다. 2사람을 5사람이라해도 誤報이지만 없는 사람을 있다고 해도 誤報다. 그러나 오보가 아닌 사실보도를 했다해서 옳은 보도가 이루어 졌다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실보도와 진실보도는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黑人을 게으르고 더럽고 우둔한 종족이라 일반화하여 보도했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보도는 될수있어도 진실된 보도라 할수는없다. 흑인은 부정적인 속성과 함께 肯定的인 속성도 지니고 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흑인은 다른 종족에 비해 매우 낙천적일뿐 아니라 대범하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 측면은 덮어 두고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보도했다면 비록 虛僞報道를 하지는 않았다해도 진실된 보도를했다고 할 수는없다.

이렇게 볼때 誤報(虛僞報道)가 아닌 事實報道를 한것만으로는 言論이 제責任과 任務를 다했다고 할수없다. 한편 言論이 진실된 보도를 하기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誤報를 내었다고 한다면 이런 오보는 너그럽게 보아 주는 것이 옳다. 오보를 막기위해 言論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되면 언론은 몸을도사리게되고 언론이 이렇듯 위축되면 진실된 보도보다 사실보도를 하는데 급급해지고만다. 이렇게되면 쇠뿔을 고치기 위해 소를 죽이는 것과 다를것이없다.

사건과 現象을 보도할때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보도인의 基本倫理다. 허위보도가 아닌 사실보도를 했다해도 正確性과 公正性이 없으면 진실된 보도가 될수 없다. 예를들면 論難의 대상이 되는 현안의 公共問題를보도할때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보도하고 다른 쪽의 주장은 묵살, 혹은 축소 보도한다면 이런 편파적 보도를 사실보도라 할수는 있어도 진실보도라 할수는없다. 허위보도가 아닌 사실보도가 모두 진실보도가 되는것은 아니다. 사실보도라 하더라도 客觀性과 兩面性과 衡平性을 잃은 보도는 진실된 보도가 아니다.

### 마감시간의 壓力

그러나 보도의 정확성이나 공정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보도의 迅速性이다. 아무리 현안의 사건과 現象을 공정하게 보도했다해도 時宜를 놓친 新聞은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렇다고해서 迅速히 보도만하면 객관성을 잃은 主觀的報道, 兩面性을 잃은 일방적보도, 公正性을 잃은 偏頗的報道, 사실이 아닌 허위보도도 용납될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신속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도 중요하다.

迅速하고 正確하고 公正한 보도만 할 수 있다면 더 문제가 될것이 없지만 보도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보면 신속성을 추구하다가 정확성과 공정성을 잃는 경우가 없지않다. 특히 日刊紙의 경우 마감시간에 쫓겨 사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先進外國의 경우에도 이런 오보는 설사 法的問題가 발생한다해도「마감시간의 壓力」(Deadline pressure)을 인정하여 너그럽게 보아 주는 것이 통상적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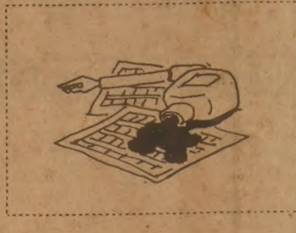
사전에 誤報를 막을수만 있다면 더문제가 될것이 없지만 誤報를 防止하는데 지나치게 집착하면 보도의 본래적 기능을 다할수가 없게된다. 다시말해 言論機關이 제 機能을 다하려면 어느 정도의 誤報는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誤報의 종류와 성격이다. 記者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고의적으로 헐뜯기위해 허위보도를하거나 公正性을 잃은 偏頗的報道를 했다면 이는 法에 정한바에따라 응분의 制裁를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惡意나 고의성이 없는 誤報는 너그럽게 덮어주고 있는것이 先進諸國의 경향이다. 미국의 경우 언론이 뉴스를 의도적으로 歪曲·變形·造作했다는「外延的證據」(Extrinsic evidence)가 있을때에만 사직기관이 조사에 착수한다. 外延的證據란 物的證據를 뜻한다. 뉴스를 歪曲·造作했다는 狀況的證據만으로는 言論機關에 그 法的責任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 설리반사건 判例

법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있다. 따라서 언론이라해서 개인의명예를 훼손하거나 私生活을 侵害할수 없다. 그러나 언론이 명예훼손법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주위환경을 감시하는 기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뉴욕타임즈 對 설리번」事件의 최종 판결에서 워런(Warren)大法官은 『名譽毁損法이 정치적·사회적 비판과 公開的이고 숨김없는 討論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判示함으로써 명예훼손법때문에 공공의 문제에 대한 토론과 公職者에대한 비판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백히했다.

특히 公職者나 公的人物은 公衆의 관심대상이 되기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쉽게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했다. 공직자의경우 기자가 惡意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外延的증거가 있을때에만 법에의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公共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문제에 관련된특정公職者의 명예를훼손하는 경우 이를보도한 기자나 언론은 명예훼손법에의한 制裁에서 免責된다. 공직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公共의 問題에 대한 언론의 토론과 비판을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이 설리번事件判決의 취지다. 설리번 판결은 公職者에 대한 언론의 비판권리를 증대시킨 반면 公正을 기할 의무를 감소시켰다. 설리번事件의 判決文중「공직자는 언론의 당연한 비판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법의 보호를 일반인과같이 받을수 없다」는 부분을「뉴욕타임즈독트린(New York Times Doctrine)이라 한다. 그후 美國大審院은 로젠부름사건의 판결에서「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公衆의 利害가 관계되어 공중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나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惡意를 갖고 의도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한 명예훼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判示함으로써 명예훼손법때문에 言論의 批判機能이 위축되지 않게하려하고 있다.



### 法의 象徵的기능

言論의 誤報를 막기위해 誤報를 낼때마다 언론에 철퇴를가한다면 언론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公共의 문제에대한 토론을 活性化시키지 못할 것이며 또 감시의 대상이 되는 公職者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할수없을것이다.

우리 언론이 誤報를 내고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誤報보다 더 중대한 과오는 꼭 보도해야할것을 보도하지 않는 과오다. 보도해야 할것을 報道하지않는 狀況이 誤報自體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아야할것이 아닌가? 法은 象徵的機能을 하는데 그치는것이 바람직하다. 法이 道具的機能을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

# 이스라엘·시리아軍 2개월안에 撤收

## ―레이건、레바논外相에 保障

## 이·레바논秘密협상 진척

【베이루트·텔아비브UPI AP=聯合】 레이건美대통령은 엘리에·살렘 레바논 외상에게 레바논에 주둔중인 이스라엘군과 시리아군의 1단계철수가 앞으로 2개월이내에 이루어질 것을 보장했다고 한 레바논 정부소식통이 17일 말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아리엘·샤론 이스라엘 국방상은 이날 그동안 레바논과 비밀리에 협상을 벌여왔으며 그결과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관계가『사실상의 평화적 타결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한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레바논정부는 샤론국방상의 이같은 발언을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살렘외상은 美·英·佛을 순방하고 귀국한후 베이루트라디오방송을 통해『레이건 대통령은 레바논 위기가 종식되어야한다는 굳은 결의를 보였다』고 전하고『우리는 레바논문제가 다른 지역분규와 별도로 해결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레바논정부의 또다른 소식통은 미국의 1단계철수안은 시리아군을베이루트~다마스커스 간고속도로부터 베카계곡으로 철수시키는한편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남쪽11㎞의 다무르까지 철수시킬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확인했다.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스라엘군·시리아군·PLO전투병력철수협상을하는동안 레바논군이 이들 철수지역에배치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샤론 이스라엘 국방상은 마리브紙와의 회견에서 자신이 지난 수개월동안 美國측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하지않은채 레바논과 비밀리에 협상을 벌여와 레바논과이스라엘은사실상평화적해결단계에이르렀다고말했다.

이에대해 레바논 국영방송은 정부대변인의 말을 인용, 샤론 국방상이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을 가진적이 없다고 마리브지와의 회견내용을 부인했다.

미행정부의 한대변인은 레이건 대통령이 최근 메나헴·베긴 이스라엘 수상에게 서한을 보내 이스라엘군의 신속한 레바논 철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波 자유노조戰略 밝히는 바웬사 해체된 폴란드自由勞組지도자 레흐·바웬사가 17일상오 그다니스크의 자기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자유노조의 장래전략을 밝히고 있다. 【그다니스크18日UPI聯=聯合】

## 西獨 來3월 早期總選가능

### 콜聯政、不信任 고의로可決

【본UPI聯=聯合】 헬무트·콜수상의 西獨우파연립정부는 17일 하원에서 실시된 對정부불신임안표결에서 고의적으로 패배, 예정보다 19개월앞당겨 내년3월6일에 조기총선을 실시할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날 표결에서 콜수상의중도우파의원들이 고의로기권, 2백18대8, 기권2백48로정부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콜수상은 불신임안이 통과된 직후 칼·카르스텐스대통령을 예방,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6일 조기총선을 실시할것을 결정해주도록 요청했다.

## 韓·日의원聯대표단 일행53명 내일渡日

李載瀅회장을 비롯한 韓日의원연맹 한국측대표단일행53명은 오는20일부터 3일간 東京에서열리는 연례합동총회에 참석하기위해20일상오 10시KAL便으로출국한다.

### 人事異動

聯合通信 ▲기획취재부장 韓健錫(생활과학部長) ▲문화과학부장 申瓚均(문화部長) ▲여성생활부장 李貞熙(外信2부차장) ▲연라부장 安鍾鳳(편집2부장)

# 안드로포프 權力강화

## KGB議長에 체브리코프 임명

### 心腹 페도르추크 內相에

【모스크바UPI聯=聯合】 신임 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는 그의 오랜측근 2명을 보안기관들의 책임자로 앉힘으로써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시켰다.

관영 타스통신은 17일 안드로포프가 보안기관 지도부 개편을 단행, 비밀경찰인 국가보안위원회(KGB)의장 비탈리·페도르추크(64)를 내상에 전보하고 KGB부위원장 빅토르·미하일로비치·체브리코프(59)를 새 KGB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신임내상인 페도르추크는 지난5월 안드로포프의 뒤를 이어 KGB의장에 임명됐었다.

페도르추크에 내상직을 물려준 니콜라이·슈촐로코프(72)는 지난66년부터 내상직을 지켜왔으며 지난달사망한 故브레즈네프의 심복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보안기관지도부 개편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미 공표된 안드로포프의 부패및 경제사범 퇴치운동노선에 따른것으로 보인다.

# 趙紫陽중공首相 오늘 阿洲순방길

## 周恩來이후 19년만에 10國방문

## 제3세계와의 「조용한外交」다져

◇趙紫陽

趙紫陽 중공수상이 19일 1개월에 걸친 아프리카 10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중공이 反蘇, 親美정책에서 美蘇등거리외교로의 정책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이번 외교長征은 특히 제3세계와의 관계를 재강조하려는데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19년전 故 周恩來수상이아프리카 9개국을 순방한 이래 중공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인 이번 순방국은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기니, 자이레, 콩고,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케냐등 10개국이다.

趙紫陽은 이번 순방길에美蘇의패권주의를 공격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소련과의 관계정상화회담에서 유리한 고지에의 先着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공은 아프리카내에서 경제원조·상업교류등을 꾸준히 확대하는「조용한 외교」를 추진, 아프리카단결기구(OAU) 회원국 51개국 중 45개국과 관계를 유지하는외교적 호황을 누리고있다.

아프리카내의 이디오피아, 모잠비크, 앙골라 등 좌익정부들을 공공연하게 지원하는 소련과는 달리 중공은 좌우익에 관계없이 공평한 외교정책을 펼치고있다.

OAU회원국중 중공과 수교하지않고있는 나라들은레소토, 스와질랜드, 말라위, 아이보리코스트, 앙골라, 폴리사리오등 6개국이나 앙골라와는 곧 국교가 수립될예정인 반면 아이보리코스트는 아직도 臺灣과의 강력한 무역거래관계를유지하고있다.

현재 중공의 對아프리카협력방법은 지난70년대의 無이자차관공여에의한 탄자니아~잠비아간 철도건설등 대규모계획을 지양하고 주로 경공업 농업 의료계획등으로구성돼있다.

이같은 현상은 毛澤東의자력갱생노선에서 鄧小平의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변화에따른것이다.

중공·아프리카간 긴밀한 외교관계가 유지되는 또다른 주요원인은 중공의 시혜에의한 대규모 무역불균형상태의 지속이다.

주로 기본적 소비재와 섬유류로 구성된 중공제품에대한 아프리카인들의 수요는매우 높으며 이들 상품은 특히 값이 싸다는 평판이나있다.

중공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의 對아프리카 무역량은 4억7천9백만달러, 지난 한해 동안은 13억달러에 달한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최근까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중공의 4大 현대화노선추진등으로 인한 국내자금사정으로 보아 趙紫陽의 이번 순방으로 對아프리카경제원조를 실질적으로 더이상 증가시킬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질것 같지는 않다.

다만 지난 63년 周恩來가 中蘇결렬후 『혁명을 위한 분위기가 성숙했다』면서 아프리카를 부추기며 순방한데 반해 趙紫陽은 다시 中蘇해빙의 분위기 속에서 이 대륙을 순방한다는 것이 중공의 외교노선의 변화가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朴來富기자】

---

# 메아리

## 百貨店 散策

歲暮의 傳令은 뭐니뭐니 해도 백화점이다. 한 해는 백화점에서 맨 먼저 그리고 가장 요란히 저문다. 크리스머스의 화려한 장식이라든가 연말연시 大賣出의 커다란 광고뿐 아니라 백화점 안으로 무더기로 빨려 들어가고 토해져 나오는 인파들을 보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백화점의 嚆矢는 1852년에 문을 연 파리의 봉·마르세 백화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에 개점한 일본의 미쓰꼬시(三越)지점이 처음이고, 그 後身이 지금의 新世界백화점이다. 그 新世界로 年末을 구경나가 본다.

백화점안은 북적댄다. 요즘 하루 약 7만명의 고객이 찾아온다고 한다. 하루중에서는 하오2시부터 3시까지가 피크를 이루어서 전체의 20%가 이時間帶에 몰린다. 백화점이 말해주는 年末의 한달이란 고객수나 매상고에 있어서 일년치의 15%를 차지하는것을 의미한다. 한해중 매상이 가장 많은 날이 12월29일인데 이 한백화점에서만도 10억원어치의 물건을 사간다니 대단한 歲年이다.

百貨店이 처음 생길때는 백가지 물건밖에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 이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은 30만종이나 된다. 그중 선물세트로 나가는 것이 1천5백종쯤이다. 연말에는 팔리는 상품의 70%가 선물용이라고 한다. 내의, 양말,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 건강식품, 쇠고기등의 코너에 특히 손님이 많이 몰려 있다. 秋夕대목에는 잘 팔리는 것이 식품위주인데 비해 연말에는 식품외에 잡화를 사가는 사람이 많다.

손님들은 언제나 처럼 여자가 압도적이다. 대개 남녀고객의 비율은 3대7로서 전체 손님의 60%가 30대내지 40대의 여성들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가격이나 便利性 등 理性的인것이 상품선택에 크게 작용했지만 요즘에는 感性을 충족시키는쪽에 손이 간다. 디자인, 色相, 개성적인것, 우월감을 나타내는것을 고른다는 것이다.

백화점에 와서 물건값을 깎자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正札制가 확립되었으면 고객들의 자세는 세워졌다. 그럼 파는쪽의 자세는어떤가.

입구의 안내양이나 賣場의 점원들, 그리고 엘리베이터 걸들은 많이 부드러워졌다.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면에 있어서 가장 개선된곳 중의 하나가 백화점이 아닌가 싶다.

한가지 물어보려면 퇴박당할까봐 겁이 나고, 물건을 만지작거리다가 사지않고 돌아서면 뒤통수에 눈총을 맞고하던 때는 지난것같아 다행스럽다.

이백화점에는 현재 賣場에 7백명의 점원이 나와있다. 백화점측에서는 이들에게 매일 아침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그가운데 롤·플레잉이라는 서비스교육이 있다. 손님을맞아「어서오십시오」하는데서부터「안녕히 가십시오」까지를 손님의케이스따라 模擬인물을 등장시켜 훈련을 한다. 손님들의 모든 불평 事例를 갖다놓고 이에 대처하는 연습도 시킨다.

金聖佑 〈編輯委員〉

세계의 백화점중 가장 서비스가 좋은 곳은 일본이다. 지난8월에는 일본의 한 백화점에서 노련한 사원들을 초빙해와 친절교육을시켰다. 이들은 고객이접근했을때부터 전송할때까지의 기본용어와 기본동작을 10단계로 나누어 하나하나 가르쳤다. 이때 일본사람들이 지적한점은 우리나라 점원들의 서비스에는 감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 성의를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상품하나도 구매가 결정되고나면 이미 손님것이니 정성스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었다.

이런교육에도 불구하고 우리점원들은 친절이 어릴때부터 몸에 배어있지 않기때문에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고 백화점측은 실토한다. 사실 백화점안을 한바퀴둘러보면 점원들은 아직도 활짝 웃고있지 않다.

東京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 맨 처음 친절운동을 벌인것은 이세딴(伊勢丹)백화점이었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친절한 東京올림픽」을 치렀다. 新世界는 이점에 착안하여 지난2월 88올림픽친절캠페인을 시작했다고한다.

백화점은 生活人의 講堂이다. 모든 사람의 생활이 백화점과 직결되어있다. 新世界, 美都波, 롯데등 서울의 3대백화점에는 年5천만명이 찾아 온다. 백화점이 親切教室일때 전국적으로 그것을 배우는 사람의 수가 얼마이겠는가.

---

# 마쵸레스토랑

새해에도
우리교민들께 많은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제가 카나다에서는 가장 오래된 한국 일류 요리사를 모시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1차 왕림하셔서 저희음식을 맛 보십시오.
자신있게 말씀드리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해 창 올림

□주류일체 취급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넓은 파킹장 교통 편리
□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
□주 소 : 4035 Gordon Baker Rd.(스카브로) ☎ : 498—1300

한국일보 특집판

연재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現代史의現場 ⑨

題字 原谷 金基昇

# 開化에 눈뜬 儒生義兵將

## 旺山 許蔿

日帝통감부를 힘으로 뒤엎어 나라의 自尊과 독립을 쟁취하고자했던 기개와 雄志는 지금 慶北 金陵郡 南面 芙桑洞 舫巖山중턱기슭에서 한그루의 老松과 더불어 외로이 잠들어있다.

旺山 許蔿. 그는 柳麟錫 崔益鉉등과 함께 한말의병사에서 빼놓을수없는 의병장이다. 그는 1차의병전쟁인 乙未의병때 의병장이었고 11년뒤 2차의병전쟁인 丁未의병때 다시 擧兵했다. 의병사를 통해볼때 한번 의병을 크게 일으킨 사람이 두번 起兵하는예가 극히 드문데 그점에서 바로 旺山의발자취는 더욱 빛나고 있다.

그는 또 의병장 가운데 가장 벼슬이 높았던 사람가운데 하나였다. 議政府參贊까지올랐던 旺山은 벼슬아치라면 너나없이 의병을 배척하던 당시 사회현실에서 예외적인 존재였으며 그만큼 의병들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다.

東大門에서 淸凉里에 이르는 길이 旺山路라고 명명된 것은 지난69년11월26일 서울시고시 제1093號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거의모든사람이 이길을 旺山路라고 부르지않고 있으며 이길이 旺山路인것조차 모른채 오가고있다. 이길이 旺山路인것은 乙支路나 退溪路보다 그연유에 피맺힌恨이 있고 불타는 憂國之心이 서려있다.

丁未의병전쟁때 대담한 서울탈환작전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했던 旺山은 몸소 결사대 3백명을 이끌고 京畿道楊州에서 東大門밖 30리지점까지 진격했다가 신식무기로무장한 일본군의 저항으로 痛恨의 退軍을 해야만 했던 길인 것이다.

길이름을 짓는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시도로과에 문의한결과 旺山路로 지정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담당직원조차 『그런 길이름은 처음듣는다』는 답변이었다.

旺山은 1855년 지금의 慶北 龜尾市 林隱洞에서 전통적인 유학자가문의 4형제중 막내로 태어났다.

맏형인 舫山 許薰은 당대에 손꼽히던 유학자 가운데 한사람으로 旺山은 형의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7세때 그가지은 漢詩가운데 月爲大將軍 星爲萬兵隨 (달은 대장군이 되고, 별은 만병이 되어 따르도다) 라는 귀절이라든지 折花春在手 汲水月入門 (꽃을 꺾으니 손에 봄이요, 물을 길으니 달빛이 문안에 드네) 라는 귀절등은 그의 비범한 詩才와 함께 뒷날 의병장이될 자신의모습을 예시해 주고 있다.

그가 不惑의 나이에접어든 1895년 乙未사변이 일어났고 전국의 儒生들사이에서 의병운동이 불길처럼 번져갔다.

1896년3월10일 金山 (지금의 金泉) 장날 그는李殷贊 趙東鎬 李起夏등과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그를따르는 수백명의 장정들이 金山郡무기고를 접수, 무기를 나눠가진뒤 北上길에 올랐다.

그러나 知禮군수는 이사실을 大邱관아에 알리고 군내 자위군을 소집, 旺山의 의병부대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知禮군에는 이른바 土匪保防團이란 東學軍을 토벌했던 잘훈련된 군대가있었다. 병력수가 1만명에 이른것으로 알려졌던 保防團과의 1차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公州 大邱의 관군과 서울서내려온 관군의협공을 받아 旺山의 부대는 鐵川으로 자리를 옮겨야했다.

여기서 旺山은 내시 田慶雲이 가지고온 왕의 傳旨를 전해받았다. 『만일 군대를 해산하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라』는 요지의 강경한 명령이었다.

## 丁未年엔 서울탈환 작전도
## 官吏로 先覺的인 정책 건의

忠孝愛君사상을 배워 실천해온 儒生의 한사람으로 이같은 왕명을 거역할수는없는 일이었고 국내정세도 親日내각이 실각하고 단발령이 철회되는등 의병의 요구가 일부나마 실현되고있어 旺山은 눈물을 머금고 군대를 해산했다.

의병해산후 3년되던 1899년 그는 뜻밖에 왕명을 받아 圜丘壇 (조선호텔 구내소재) 참봉이라는 말직을 얻었다. 그는 入侍한지 5년만인 1904년8월 議政府參贊에 오르기까지 빠른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것은 그의 탁월한 경륜과 청렴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尹履炳 宋秀晩등과연명으로 상소한 論時事疏에서 『이웃 열강이 우리를 넘보고 능압하기를 그칠줄 모르는 까닭은 우리가 약한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국토가 적어서도, 인구가 적어서도, 재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곧 정치가 바로 서지못한 때문입니다』라고 내정개혁을 건의하고 있다.

이무렵 그가 올린 또하나의 헌의(獻議)에서는 학교를세워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에 유학시킬것, 水力발전에 힘쓸것, 水利안전답의 관개용으로 水車를 이용할것, 市場稅와 航海稅를 폐지경감하여 서민을 보호할것, 노비계급의 해방과 적서차별을 철폐할것등 구체적이고 선각적인 정책을 건의하고있다.

그는 論時事疏에서 러시아와 일본세력의 틈바구니에서 국권을 보전하기위해 중립화정책을 펼것을 강력히 요구해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1904년 일본이 노일전쟁을 일으키자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군을 성토하는 격문을 발표, 일본경찰에의해 투옥되기도했다.

그러나 그의 건의책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나라의 힘이너무 약했다. 1905년6월 그는 『…어쩌서 스스로 비굴을 감수하고 권리를 양보하여 스스로 굴복과 패망의 길을 택하시나이까. 이는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빼앗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버린 것이오, 일본이 우리 영토를 빼앗지 않았는데 우리스스로 영토를 잃었음이 아니겠읍니까』라는 통렬한 상소문을마지막으로 관직생활7년을 청산하고 낙향했다.

그러나 이해 乙巳조약이체결되어 국권을 잃었고 1907년丁未7조약이 체결되어 한국군이 강제해산되자전국에서 의병전쟁이재발했다. 당시 그는 漣川 鐵原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통감부에 高宗의 復位, 외교권환귀, 통감부철거등 30개조의 강경한 요구조건을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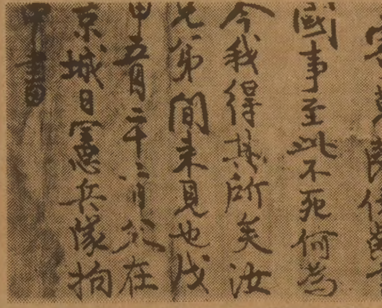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힘밖에 없다고 판단한 旺山은 13도의병을 집결, 작전참모장이되어 대대적인 서울탈환계획을 모의했다.

1908년2월28일 총공격을 시도했으나 총대장인 李麟榮이 부친상을당해 귀향하는 바람에 연합의병대는 흐지부지 해산됐다. 旺山은 그뒤 연합의병을 재결합시켜 서울탈환을 실현코자 노력하던중 그해6월 京畿道漣川에서 일경에 체포됐다.

그는 『의병을일으킨자가 누구며 의병대장이 누구냐』는 일본헌병대의 심문에 『의병을 일으킨자는 이등박문이고 의병대장은 나다』는 유명한답변을남겼다.

법원심문에서 그는 일인재판관을 향해 『그대들은 일본인이요, 나는 한국인인즉 그대들의 재판을 받을수없다』고 심문을 거부했으며 『그러면 헌병조서에따라 재판하겠다』는 재판관의 엄포에 『그것 또한 그대들 마음대로다. 한번 죽음은 본시 각오한바다』고 결연히 맞섰다.

그는 1908년10월21일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네아들에게 남긴 유서내용이 『나라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죽지않고 어찌할것이냐. 내 지금 죽음의 자리를 얻었으니 너희 형제는 와서 보도록하라』였다.




◇『나라일이 여기에 이르니 죽지않고 어찌하랴…』 일본헌병대에 갇힌몸으로 쓴 친필유서.

뒷날 安重根의사는 旺山을 평하여 『우리 2천만 동포에게 許蔿와 같은 盡忠竭力용맹의 기상이 있었던들 오늘과같은 國辱은 받지않았을것이다. 본시 고관이란 제몸만 알고 나라를 모르는 법이지만 그는 그렇지않았다. 따라서 그는 官界 제일의 충신이라 할것이다』고 했다.

旺山의 손자인 許敬誠씨(56·大邱市山格3洞1429의17)에 따르면 旺山의 유해는 처형직후 움막에모셔져 7개월여동안 방치되었다가 1909년5월 지금의 舫巖山중턱에 안장되었다고한다.

金烏山이 마주보이는 해발 5백m고지의 이 인적이끊긴 산중턱으로 모셔지게된 원인에 대해 許씨는 『할아버지께서 芝泉精舍란 정자를 짓고 학문을 닦던 곳이 바로 산밑 개울가』라고 말한다.

許씨에따르면 旺山은 네아들을 두었는데 이들 모두 아버지가 처형된뒤 일경의박해를피해 滿洲와연해주로 이민을갔으며 許씨자신도 旺山의 2남의 맏이로 滿洲에서태어났다고했다.

旺山의 장손을 포함, 나머지 4촌형제들은 지금 모두 滿洲및 소련에서 살고있으며 許씨 3형제만 유일하게 해방후 귀국, 할아버지의 묘소를 돌보고있다고 말한다.

許씨 3형제중에서도 아래로 두동생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 살고있으며 텍사스州 휴스턴한인교회 목사로 시무하고있는 막내동생 道誠씨(49)가 할아버지의 의병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유품을 발굴했으며 旺山文集에수록된 대부분이 [illegible]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許씨는 겸손해했다. 滿洲와 소련에 거주하는 나머지 4촌형제들가운데 아직 보관중인 유품이 더러 있다고 전하고 지금 모스크바에서 대학교수를 하고있는 4촌과는 편지연락도 가끔 있다고 말했다.

지난62년1월 大邱達城공원에 旺山의 순국기념비가세워졌고 그해 건국공로훈장 重章이 수여됐다.

기념비가 세워지던해 이사업을 위해 旺山기념사업회가 결성됐었으나 그후 아무런사업실적이 없이 유명무실한채로 있다가 지난가을 舫山, 性山, 旺山등 3형제기념사업회가 새로 발족, 첫 사업으로 旺山文集을 간행했다.

1950년대 大邱시장을 역임한 舫山의 증손자 許洽씨(78·大邱市 中區東仁洞3가192)에 의해 발족된 3형제기념사업회는 지금은 빈터로 남아있는 생가자리에 기념관을 짓고 차례로 문집을 발간할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達城공원의 순국기념비가 풍우로 마모된데다가 회색화강석에 비문을 陰刻했기때문에 글자가 보이지않아 비석을 烏石으로 바꿀참이라고 말했다.

毅菴 柳麟錫이나 旺山 許蔿 勉菴 崔益鉉 그리고 그밖의 수많은 의병과 의병장들이 기울어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韓末의병운동의 특색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임진왜란때의 의병운동의 전통을 이어 학자들이 중심이되고 앞장을 섰다는 점이다. 그것은 요사이 일부 학자들의 지나친 俗物主義性向과는 달리 학문의 진리와 정의를 실천에 옮기겠다는 강력한 주체운동이요 救國운동이었다.

둘째는 韓末의병운동이 일본만을 상대로 한것이아니라 우리의 관군과도 싸워야한다는 쓰라림이었다.

세째는 운동의 성격이 결사적이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민족과 나라가 위기에 처해 맨주먹으로라도 뛰쳐일어나지 않고서는 못배기는 熱血의 기백이었다.

그것은 무모한 것이었으며 또 무모한것임을 그들도모르는바 아니었다.

毅菴은 그의 격문에서 『성공과 실패는 본디 우리의 헤아릴바가 아니다』고 몇번이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들수있는 것은 儒生출신의병들이 고루한 전통에만 얽매여있었던것이 아니라 개화를 서서히 받아들여야한다는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그것은 주체성의 확립과 전통의 보호가 강조되고있는 요즘에있어 더욱 價値를 나타내는 민족의 사상적 지주인 것이다.

【林鍾乾기자】

◇大邱達城공원의 순국기념비. 손자 敬誠씨(사진)는 비석의 비문이 보이지않아 기념사업회에서 烏石으로 비석을 바꿀 계획이라고 전했다.

# 抗爭13년은 바로「韓末義兵史」

## 國際法·여론에 호소한 對日외교전 평가받아야…

吳世昌

(嶺南大學史學科敎授)

義兵은 外亂을 당하여 국가적 위기를 민족적 측면에서 구하자는 자발적 대중봉원운동이다. 1895년의乙未義兵 항쟁으로 시작된 韓末의 의병은 1905년의乙巳의병으로 再燃되었고 1907년의 丁未의병으로 고조기를 맞게된다. 당시의 의병운동이 抗日의식을 기본으로 하였다는점은 일관된 것이었으나 그시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관점에서 質的自己발전을 하고있다. 특히 乙巳의병이후는 乙未당시의 儒林을 중심으로한 부분적동원에서 全國的으로 그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主權회복의 수단으로 對日교전과 아울러 萬國公法및 國際여론에 호소하는 對日외교전을 표방한것은 주목할바다. 그것은 소극적 抗日排他의식을 초월하여 近代的 국제사회에 참여하기위한 적극적 自主의식의 전개로 볼수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韓末義兵전쟁의 전개과정으로 볼때 許蔿의위치는 단연 손꼽을수있다. 어느면으로는 그의 개별적 義兵활동자체가 韓末義兵史와 彷彿하기 때문이다. 그의 義兵활동기간은 1896년의 乙未義兵으로 시작하여 1908년 日本軍에게 체포될때까지 13년으로 義兵將중 最長에 속한다.

許蔿는 儒生으로 그의 初期思想을 보면 勤王的 忠義思想에 투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官路에나간 1899년이후는 新학문에만 집착하지않고 新학문을 접하게됨으로써 그의 의식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이 스스로 意識화대의 불가피성을 터득한것과 張志淵을 만나게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전한다. 때문에 그의 義兵思想도 초기에는 斥邪衛正의 義兵將이었으나 1905년이후는 愛國啓蒙思想까지 수용한 특이한 義兵將이었다. 그의 進步的이고 自主的인 開化思想은 1904년 議政府參贊으로 올린 10個條의 國政改革案에서도 이미 나타나고있다.

1908년 京畿道 臨津江一帶에서 활동하던 許蔿部隊는 京畿와 江原에 隸下부대를 동원토록하여 日帝는 그 鎭壓에 步兵47聯隊와 각지 수비대 병력을 투입하고 있었다. 「朝鮮暴徒討伐誌」는 「…그리하여 許蔿는 正義를 표방하고 또 軍律을 규정하여 劫奪暴戾를 誡하는등…비록 그 內情에 있어서는 종래의 暴徒와 다름이 없으나 軍紀를 발행하여 物資의 調辦을 뜻대로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韓末義兵史에서 初有의대작전이었던 서울奪還연합작전시13道義兵의軍師長이었던 許蔿가 總大將 李麟榮의 이름으로 各國領事館에 보낸通文은 큰의미를 갖는 것이다. 義兵전쟁은 高宗의 勅諭에의한 獨立전쟁임을 강조하고 國際法上 交戰단체이므로 列強이 인정하고 正義人道를주장하는 나라들의 성원을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許蔿는 이작전이 성공하면 韓國問題해결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國際政治에 대한 일정한전해를 갖고 있음을 알수있다.

그는 義兵운동에대하여 오직 倭人과 차마 함께 이땅에서 살수 없기 때문이라고 단호한 對日투쟁관을 피력하였다. 또 「日本은 말로는 韓國保護를주장하지만 內實은 韓國을 滅亡시키려고하는 禍心을 包藏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들은 坐視할 수 없어 한목숨을 버려 義兵을 일으켰다」고 日帝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의 행동이 비단 韓國을 위할뿐만 아니라 日本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며 한국이 독립되어야동양평화가유지된다」고하였다. 그의 이러한 東洋平和論은 安重根義士의 東洋平和論과 함께 유명하다. 安義士도 「2千萬 동포에 許蔿先生과같이 忠을 다하는 용맹의 기상이 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나라의 욕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왜경에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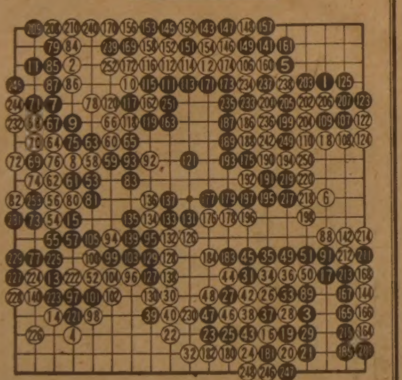
朝鮮駐箚軍憲兵司令官으로 뿐만 아니라 警務總監 警務局長으로 헌병경찰의 創始者인 明石元二郞의 전기도 許蔿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幾百千의 그들 폭도가운데서도 閱歷과 聲望이 발군하고 漢學의 造詣가 깊으며 특히 易學에 뛰어나 衆民으로부터 師事되어 선생의 경칭으로 불려지는 者로 許蔿라는 巨魁가 있다. 그는 慶北善山郡에서 태어나 從二品 嘉善大夫 勅任秘書院丞(內閣書記官長) 平理院長(大審院長)등의 官歷을 가졌던 一代의 명사이다… 그는 실로 많은 폭도중에서도 가장 관威를 떨치고 그래서 가장 暴虐의 체포를 어렵게하였다… 賊魁이기는 하나 실로 國士의 風度가 있었다. 폭도중의 巨魁이기는 하지만 일반 비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칭송은 그를 직접 실무한 明石의 솔직한 表現이었다. 儒學者로서뿐만아니라 國際公法과 東洋平和를論하는 외연한 그의 인격에 감복한것이다.

맏형 舫山 許薰이 「儒敎의 학문에 있어서는 내가 아우에게 양보할 것이 없지마는 포부와 경륜에는 내가 아우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한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 第14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總譜 255手完 (각5시간·덤5집반)

白 (7段) 徐 奉 洙 <1勝>

黑 (7段) 盧 永 夏 <2敗>

### 徐7段 우선 1勝

【白반집勝】 徐7단은 올해도 쾌조의 스타트로 서전을 장식했다. 과연 다시 한번 도전권을 딸지, 어떨지는 좀처치고 좌우간 한판한판 착실히 이겨갈 요량임은 분명하다.

盧7단은 앞서 첫판을 역전패하더니 이번판마저 분패했다. 앞으로남은 4판이 어찌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시드組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것이다.

이바둑은 시초 하변싸움에서 黑25가 완착이었고 이하51까지 된다음 白에게 52의곳을 앞긴것이 치명적손상이었다.

그다음 黑53으로 적극전법을 시도할때, 白54에 대하여 黑55론 56쪽을 젖혀 싸우는것이 보다 강력했을 것같다.

黑25와 55 두곳의 작전실패로 때이르게 고전에 빠진 黑은 그후도 각처에서 적극적인 작전을 속행하여 白으로 하여금 수동적자세를 취하게 만들었다.

중앙쪽 黑95가 그 하나의 수법으로 97, 99의 맥은 가위 고수의 수법이였다.

그리고 白은 상변 끝내기에서 손을 돌려버리고 마치 오기다툼이라도 하듯이 우하귀를 白144로 달린 때문에 黑145를 당하여 형세가 혼해졌으나 黑은 최선의 끝내기로도 반집차를 줄일수가 없었다. 41…28。90…27。155…150。159…148。216…211。241…237。243…238。254…117。255…따내고이음。

【一凡】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97>

朴婉緒 作 金光培 畵

### 부드러운 겨울 ㉓

하마터면 큰일날뻔 했어.

수지는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몸서리를 치며 산동네의 골목골목을 종종걸음쳐 내려왔다.

이걸로 끝이야. 다시는 다시는 그 족속들과 상종을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다가 이제부터 그들과 상종을 할 건수가 남아있지도 않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묘한 낭패감에 빠졌다. 유기사를 건설회사측 해외인력담당과 직접 연결시켜줬겠다, 이제 남은 일은 언제떠나느냐밖에없고 그건 수지가 중간에서 어쩌구 저쩌구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뭔가를 저지를것같은 위기의식은 그녀의 등허리를 집요하게 따라붙고있었다. 위험물은 밖에 있는게 아니라 그녀 안에 있었다.

어서 이 고비를 넘겨야돼.

그녀는 자신이 강렬하게 원하고있는 게 뭔가를 직시하기가 두려워 이렇게 다만 덮어두고자했다. 며칠안에 유기사는 중동으로 떠날테고, 알뜰한 오목이는 송금되어오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겠지. 지금도 부자됐다고 히히대는 데 그렇게되면 산동네선 재벌 났다고 소문날지도 몰라. 아마 곧 산동네를 면하고 교외의 주택지에 아담한 양옥집을 장만할지도 모르지. 오목이라면 능히 그럴 거야. 그게 다 뉘 덕이때. 나같은 구인을 만났기 때문이야. 구인이란 게, 토정비결속에는 흔해빠졌을지 모르지만 현실에, 그것도 이 급성장한 문명도시에 아람곳인가. 애타게 구하는 사람조차 그게 백일몽인 걸 알고있으련만 나는 오목이에게 현실적인 구인이돼 주었거든.

그걸로 나의 속죄는 끝났어. 속죄는 충분했으므로 다시는 상종이 계속되지않도록 뒤끝이 깨끗해야돼.

수지는 마음속으로나마 처음으로 속죄를 생각한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강렬하게 원하고있는게 뭔지를 깨달았다. 그건 참회였다. 그녀가 두려워한것도 다름아닌 참회의 기회였다. 속죄했으면 그만이야. 오목이에게 참회함으로써 오목이가얻는건 아무것도 없잖아.

만일 사전에 오목이에게 나의 죄의 대가로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속죄와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참회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물을수 있었대도 오목이는 서슴지않고 나의 속죄를 택했을거야. 오목이는 바보가 아니니까.

가까스로 가라앉힌 마음이 집에 오자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밥투정에 식모애는 애를 먹고 있었다.

『어제는 닭버터구이를 좀 먹길래 오늘 또 했더니 입에도 안대지 뭐예요』

『얘들아 언제 우리 타잔 형님 초대해서 불고기 파티 한번 다시 할까?』

아이들은 이미 일남이에대해 별 흥미가 없는지 싫다고 좋다고도 안하고 식탁을 도망쳐 이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일남이뿐일까? 그올망졸망한 계집애들도 함께 초대해야지. 일곱아이를 한데 앉히긴 우리식탁이 너무비좁을까? 그렇지만 오목이네 두루기상에다 대면 우리 식탁만하면 잔치상도 차릴수 있을거야. 아이들이 함부로 섞어 앉아 싸우고 침 흘리고 빼어먹고 마음껏 아귀다툼을 하게 내버려둬야지. 아냐 정말인들는 아이는 이 웬수야 하면서 머리통도 좀 쥐어박아야돼.

수지는 멍하니 혼자서 빈 식탁에 일곱아이들을 모아놓고 즐거운 소란을 벌였다.

『사모님, 상 올릴까요?』

『아, 아냐. 먹었어』

『어데서요? 설마 그 일남이네서요?』

『왜, 아냐? 꽁치 넣고 끓인 김지찌개가 일미던데, 우리 아이들도 한번해줘볼까?』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 백만장자되어 錦衣還鄕

## "남을 돕는일은 스스로를 돕는것"

### 5년전 全財産 1천만원 장학금내놓고 빈손으로 美國간 金泰熙씨

『空手去, 滿手來』. 5년전 맨손으로 미국에 이민갔던 金泰熙씨(38·한국일보77년6월20일자 사회면)가 세밑에 백만장자가 돼서 금의환향했다. 金씨는 이민을떠날때 13년동안의 퇴직금과 집까지 판돈등 전재산 1천만원을 사회에 쾌척하고 빈털터리로 미국행비행기를타 화제가됐던 인물. 77년6월17일의 일이다.

그는 현재도 뉴욕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형 金韓熙씨(53)의 권유에따라 미국이민을 결심했었다. 그러나 떠나기에앞서 자신의 전공기술과 근면, 노력만있으면 충분히 자립할수 있다고판단, 될수있는대로 돈을챙겨 떠나는 여타의 이민들과는 정반대의행동을 취했던것. 물론 가족들이 반대했지만 조국을떠나는자가 조국을위해 할수있는 마지막일은 그것이 최선의방법이라고보아 태극기하나만 달랑간직한채 비행기를 탈수있었다.

그러나 미국땅에내리자 사정은좀 달랐다. 각오는 했지만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1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내놓고 왔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형 韓熙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남들은 한푼이라도 더 갖고 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네가 아직 미국사회를 모르는 모양인데, 한심하구나』라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도 할수없다는듯이 일본계운송회사에 취직을 시켜줬다.

金씨는 꾹참고 이곳에서트럭을 운전, 주 1백20달러를 받으며1년간을버텼다. 봉급생활로는 미국에 있을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金씨는 저축을위해 일부러 흑인슬럼가에 90달러짜리 싸구려방을 얻었고 부인 權寧子씨(39)가 재봉일로 살림을 거들었다.

뼈를깎는노동으로1만5천달러가모아지자 金씨는 교포의 서비스공장구석을빌어 폐차된 트럭안에책상1개와전화기1대만을 달랑놓고 1인 운송회사를차렸다. 교포들의 이삿짐을 전화로주문받아 날라주는이삿짐센터였다.

이때 金씨의 목표는 트럭1대를 사는일. 뉴욕에서 LA까지 대륙횡단도 여러번했다. 그런데 金씨의눈에 새로운 돈벌이요령이 비쳤다. 뉴욕에서 LA까지 편도로트럭을 임대하는데 1천8백달러가 필요한데 뉴욕시내에선 일주일트럭임대료가 고작 2백50달러로 자신이 직접운전하면 트럭임대료를 제외한 마진이 1천5백50달러나되는좋은 장사였다.

金씨는1만달로서울―부산간의 30배나되는 뉴욕―LA간 대륙횡단왕복을 1주일에 마치는 초인적인 노동을 했다. 햄버거와 콜라로 끼니를 때웠고 잠은 하루 달리는 틈틈히 잤다.

◇태극기만 들고… 77년 6월17일 전재산인 1천만원을 모두 장학금으로내놓고 태극기만 들고 빈몸으로 미국으로 떠날때의 金泰熙씨。

◇5년6개월만에 운송회사 사장으로 백만장자가돼 잠시 귀국한 金泰熙씨。

그때 그사람

## 어엿한 運輸회사社長

### 악착같이벌어 매년 이웃돕기誠金도

이렇게 6개월을 노력하자 생활의여유도생겨 1만달러짜리 중고 트럭을 손에 넣을수있었고 따라서 金씨의 돈버는속도도 점점 빨라졌다. 또 LA, 서울, 釜山에 지점을 만들었다. 처음엔 이삿짐만 취급했으나점차 수출입화물과 미국인들의 짐도 취급했다.

부르클린의 1천8백여평 대지에 사무실과 창고를지어놓고 컨테이너트레일러등 트럭15대를 굴리는 어엿한 운수회사사장이 되었다.

뉴욕의 거리에서「한국운수」란 큼직하게 한글표시가된컨테이너트레일러를 미국운전사들이 끌고 다니는 걸 보면 金씨의 사업성공을 알만하다. 미국인직원들은 金씨에게「나폴레옹」이란 별명을 붙였다. 자그마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지칠줄 모르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한다고붙인 것이다.

金씨의 소원은 미국에「一家」를 이루는 것. 우선 85년까지 5백만달러를 모으겠다며 자신에 차있다.

그렇다고 수전노같이 돈만 버는것도 아니다. 金씨는 미국에 건너간 77년부터 연말만되면잊지않고 꼬박꼬박 불우이웃돕기에 1천달러씩을 보내왔다.

金씨의 도움을 받은 곳은 서울鍾路區大方洞 시립부녀보호소, 良才洞과 新吉洞의 새마을유아원등이 있다.

한편 金씨의 장학기금은그동안 3천만원으로 늘어나순직하거나 사고로 일터를 잃은 한전직원들의 자녀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金씨는『남을돕는일은 스스로를 돕는일이된다』면서『앞으로도 물욕을 내지않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金善宗기자】

# 國校生 계단서 깔려 39명重輕傷

## 大邱 終業式후 몰려나오다 校門앞서

【大邱】18일 상오 11시35분께 大邱市 東區 新岩洞 新岩국민학교(교장 강성교·58) 남쪽교문 계단에서 겨울방학을맞아 종업식을 마치고 귀가중이던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밀려나오다가 넘어지면서 수십명이 깔려 2학년 4반 박효열군(8)등 3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당한 어린이들중 31명은 이날하오 파티마병원, 대구정형외과, 제일정형외과, 경북대부속병원등에서 치료를받고 귀가했으나 중상을입은 8명은 계속치료를받고있다.

특히 사고당시 가장 밑에 깔린것으로보이는2학년4반 도현정양(8) 1학년8반김수정양(7) 2학년12반 박범수군(8) 등3명은 의식불명인채 중태다.

이날 사고는 종업식을 마친 어린이들이 가파르게 경사가진 남쪽문 계단을 한꺼번에 내려오다가 앞서가던 어린이들이 넘어져 뒤따라 내려오던 어린이들이 2중 3중으로 그위에 넘어지면서일어났다.

사고가난 남쪽교문은 폭8m정도이며 시멘트로된 계단으로 모두 20개며 매우 가파르게 경사를 이루고있다.

학교측은 사고가나자 즉시 전교직원들을 동원,중경상을 입은 어린이들을 병원으로 업어 후송했다.

학교측은 이날 사고가 계단양옆에 늘어선 잡상인들이 종업식을 마치고 돌아가는어린이들에게 각종 광고물을주며 앞을 가로막다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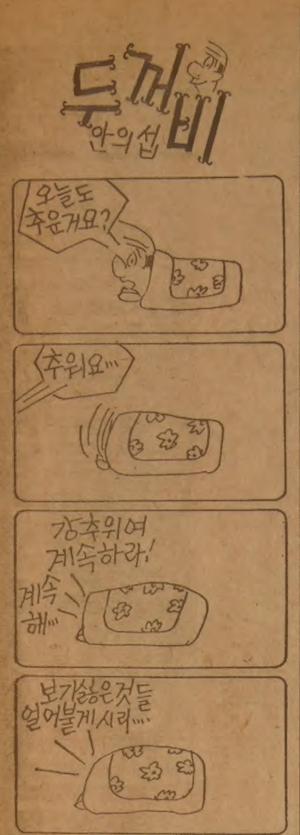
한편 金容大 大邱市교육감은 이날하오 사고가난 新岩국교를 방문「이같은 사고가 일어난데대해 학부형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말하고 학생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부상당한 어린이들을 위로하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韓】

# 폭력 농구선수拘束

## 韓銀의 尹振九

서울中部경찰서는 18일 한국은행 농구부소속 尹振九선수(25)를 폭행치상혐의로 구속했다.

尹선수는 지난17일 하오1시20분께 서울獎忠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대통령배쟁탈전국남녀 농구대회 최종예선전인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기업은행센터 任琪烈선수(25)와 리바운드볼을 다투다 任선수의 팔꿈치에 얼굴을맞아 코피가흐르자 격분, 任선수의 얼굴을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혐의다. 경찰이 尹선수를구속한것은 경기장폭력과 사회지도층인사의 폭력을 사회정화적차원에서 엄단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것이다.



## 전국 初中高校 겨울放學 시작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18일부터 시·도교육위원회 별로긴겨울방학에들어갔다.

전국의 학교들은 늦어도 오는22일까지는 모두 겨울방학에 들어가게되는데 방학기간은 대부분 48일간으로 가장짧은곳은 제주도의 고등학교(36일간), 가장긴곳은 서울지역의 국민학교와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등으로 50일간이다.

## 日서 해외여행禁止 崔昌華목사가 提訴

【東京】외국인등록증에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외여행이 금지된 재일교포 崔昌華목사(北九州市거주)는 내년1월13일 東京지방재판소에「지문날인거부자의 출입국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崔목사는 17일 변호사들과 협의한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유린이라는 이유로 지문날인을 거부하고있는 崔목사는 지난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인권관계회의에 참석하기위해 재입국을 신청했으나 日本법무성에 의해 거부당했었다.

崔목사에 의하면 후꾸오까(福岡)縣 온가군에사는 재일교포 安日出秀씨(26)도 지난11월 친척방문을위해 재입국을신청했으나똑같은이유로허가를 받지못했다. 【韓】

# 韓食집「주문食單制」

## 내년부터 손님요구따라 밥·반찬 판매

내년1월1일부터 음식점의 주문식단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18일 음식낭비를없애고 손님들에게 청결한 식품을 제공하기위해 우선 한식집을 대상으로 공기밥을팔도록하며 간장, 고추장,된장등을 제외한 나머지 반찬은 손님의 주문에따라 값을가산해받고 불고기등「1인분」으로 표시되는 음식은 반드시 무게를 표시해 팔도록하는등의 주문식단제를 실시키로했다.

정부는 이계획에따라 한식을 주로제공하는 대중 전문 유흥음식점을 대상으로 전국에 시범업소를 연내에지정, 정부양곡을 방출가격으로 공급하는등 혜택을주어 보급한뒤 84년이후부터는 전면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시범업소에 음식품목별로 식단견본을 만들어 진열대에 전시토록하고지역별로 전통음식도 개발, 보급하기로했다.

주문식단제는보사·내무·농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정부는 이를 정착시키기위해 내년부터 공직자, 정부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이 시범업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보급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 10억臺골동품窃盜

### 전국무대…4명拘束 2명立件

【晋州】晋州경찰서는 18일 전국을 무대로 10억대의골동품을 훔쳐팔아온 천현재씨(29·경남 晋州市玉峰南洞 637의3) 정경섭씨(28·晋州市上鳳西洞1076)등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대권(28·주거부정) 황갑수(29·晋州市玉峰北洞) 마석훈씨(32·주거부정) 등 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쳐온 골동품을 상습적으로 사들인 골동품상인 통성화랑대표 박원명씨(42·서울鍾路區惠化洞175의1) 장생화랑대표 정좌근씨(45·서울鍾路區積善洞117의2·17)등 2명을 장물취득혐의로 구속하는한편 장물을 운반해준 여준호(28·晋州市將台洞35의17) 이수화씨(33·晋州市上鳳西洞803)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19일새벽 충북淸原郡南二面尺山里상에서 미륵보살동좌상1쌍(숙종4년제작, 시가5천만원상당)을 훔친것을비롯, 경남과 충북, 전남·북등 전국을 무대로 80년1월부터 지금까지 전후40회에걸쳐 골동품상에 팔아온혐의다. 【韓】

## 한국형 警備艦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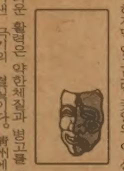
【鎭海=申鉉鎬기자】해군의 한국형경비함 진수식이 18일 상오 코리아타코마 조선소에서 李銀秀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장병들과 金鍾洛코리아타코마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사진)

이번에진수된경비함은 경제적 설비와 최신전자장비를 갖추고있고 기동전과 복원성이뛰어나 대공·대함·대잠작전에 탁월한성능을갖고있다.

## 텔레퍼디

### 세계女핸드볼 得點2위 尹秉順양

## "동료에 대한 이해·애정이 必勝비결"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것은 희망적인 일이다.

여자핸드볼선수 尹秉順양(19·사진·仁川시청소속)은 그것을 이번에 확인시켜 주었다.

尹양은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 출전한 6개국 선수 1백여명중 개인득점랭킹2위를 차지한 세계핸드볼의 기린아.

77㎝의 장신으로 필드를 달리는 尹양의 모습은 野性의 얼룩말을 연상케한다.

하지만 알고보면 尹양의 이 싱그러운 활력은 약한체질과 병고를 이겨낸 극기의 결실이다. 淸州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늑막염을 앓아 한동안 어머니의 등에 업혀 학교에 다녔고, 청주一信여중에 입학했을 당시만해도 뜀박질은 생각할 수 없는 허약체질이었다. 선천적으로 육식을 싫어해서 스태미너가 달렸고, 고등학교때는 척추디스크수술까지 받았다.

그러나 중학교시절 尹양의 지도교사는 이 허약한 소녀에게서 앞날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尹양은 고되고 힘든 훈련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생애를 새롭게 엮어나 갔다.

득점랭킹2위라는 사실에대해 尹양은 매우 겸손해한다. 슛을 때리는 순간은 동료들의 합동작 합동작이 쌓여서 만들어진 귀한결정체이기 때문에 한사람의 순간이 아니라 팀워의 산물이란 것이다. 따라서 슛이 실패했을 때는 동료들 모두에게 낯을 들지 못할 정도로 미안하다는 것. 또 동료에대한 이해와 애정이야말로 實戰에서 상대를 이기는 비결이라고 尹양은 말했다.

단체경기의 선수는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야한다는 말도있다.

볼을 몰고 적진으로 처들어가는 순간에도 다른 동료들의 위치와 포즈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상대편의 반격에 대비한 전략을 마음과 마음으로 교신하고 있어야만한다. 그러나 實戰이 끝나고나면 승부에 관계없이 늘 후회가 따른다고한다. 배운기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고 동료들과의 텔레퍼시가 완벽치 못했다는 점등이다.

자신을 이겨내고 또 남을 이해하는 것이 實戰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핸드볼선수 尹양이 어른스러워 보였다. 【金蕃기자】

# 全南지방 大雪 곳곳 交通두절

【光州】光州지방을 비롯, 전남도내 일부내륙지방에 17일부터 내리기시작한 눈은 18일상오 7시현재 長城지방의 21·3㎝를 최고로 光州14·9, 羅州2·3, 靈光5·0, 和順12·0, 光山13·2, 潭陽4·3, 寶城1㎝(최저) 등 도내평균4·2㎝의 적설량을 보였다.

17일상오부터 산발적으로 내리기시작한 눈은 이날하오2시 전남내륙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한밤눈으로변했고 이로인해 17일밤8시 靈光―운장간교통이두절된것을비롯, 이날밤 光州―無等山, 長城―靈光, 光州―和順간등 4곳의교통이 두절됐으나 18일상오7시를기해 모두 다시 소통됐다. 【韓】

## 「기적의 아기」誠金 匿名의독자 카드도

「기적의아기」의 주인공 鄭明陽(한국일보9월11일자보도)앞으로 18일 익명의 독자가 크리스머스카드와 함께 성금2만원을 본사에 기탁해왔다.

## 5行뉴스

◆原州지방합동청사준공 【原州】우리나라 지방행정기관 합동청사로서는 처음인 原州지방합동청사가 18일상오 강원原州市丹溪洞 현장에서 준공돼 ▲전매원州지방국토관리청▲산림청 중부영림서▲농수산부 농수산물검사소 原州출장소▲노동부 原州지방사무소 5개기관이 입주, 업무를 보게된다. 【韓】

◆制憲국회의원 崔獻吉씨 제헌국회의원이며 경기도지사를지낸 崔獻吉씨가 18일 상오5시 서울 城北區城北洞85의62 자택서 숙환으로별세했다 향년82세. 발인은 20일 상오10시 자택서. 장지 경기 南楊州郡 瓦阜面 栗石里선영 ☎762-2086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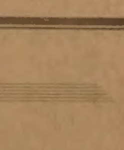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오전8시~오후8시
금-토: 오전8시~오후9시
일: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쉬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 體力소모 三星, 海龍에도 물렸다

## 漢陽大, 시소끝에 延大꺾어 91-90

### 대통령盃농구 準準決勝…코오롱은 第一銀에 逆轉勝

三星電子가 토끼 두마리를 잡으려다 모두 놓친 격이 되었다.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된 제1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 남자 농구대회 6일째 준준결승전에서 三星電子는 전날 現代와의 대전서 지나치게 체력을 소모, 海龍에 74-67로 패퇴, 現代와 海龍에 잇따라 무릎을 꿇는 불운이 겹쳤다.

海龍은 黃有夏 李原宇 金緖錫의 활약으로 申東燦 혼자 고군분투한 三星電子를 압도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延世大와 漢陽大의 준준결승서는 漢陽大가 91-90으로 이겼다.

한편 여자부 東邦生命은 金和順·車良淑·吳顯珠등 장신트리오의 활약으로 서울信託銀行을 82-65로 완파했으며, 코오롱은 후반 金福順의 분투로 第一銀行에 66-58로 역전승, 각각 준결승전에 나갔다.

海龍과 三星電子의 대전은 체력에의해승부가 가려졌다. 三星이 전날 現代와의 대전서 심한 체력소모를 하지않았다면 준결승전에 나갈수있는길이 트였을지 모른다. 게다가 경기종료6분전 申東燦의 부상퇴장이 치명적이었다.

海龍은 黃有夏의 외곽슛이 호조를보이고 金豊助·李原宇 두가드가 게임을 잘이끌었으며 수비에서도 三星공격의축인 林正明을 철저히 마크했다.

三星은 기대를던 李寧根 李晟源의 외곽슛이 잘터지지 않아 申東燦 金亨年의 숏에 의존했으나 海龍의 파워에밀렸다.

海龍은 三星의 대인방어를 잘풀고 가드들이 게임을 잘 풀어 전반을 36-30으로 앞섰다.

◇제6일 준준결승

▲여자부

| | | | | |
|---|---|---|---|---|
| 코오롱 | 66 | 42-26 24-32 | 58 | 제일은행 |
| 동방생명 | 82 | 34-29 48-36 | 65 | 신탁은 |

▲남자부

| | | | | |
|---|---|---|---|---|
| 해룡 | 74 | 38-37 36-30 | 67 | 삼성 |
| 한양대 | 91 | 39-49 52-41 | 90 | 연세대 |

◇점프도 絶妙해야 無抵抗 海龍―三星의 준준결승전에서 海龍의 黃有夏⑪가 몸을 뒤로 제치며 절묘한 점프슛을 하고 있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 心印·聖修·光成工高 新興高 4強戰진출

### 학생綜合탁구

제20회 회장기쟁탈 전국남녀 학생종합탁구대회가 18일 釜山 德花女商체육관에서 개막, 첫날 남고부 단체전에서 大邱心印高·春川聖修高·釜山光成工高·全州新興高등이 각각 승리, 4강의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날 全州新興高는 朱珽漢등 고교상위랭커들이 버틴 강호 시온高를 4-1로격파, 기세를올렸다.

중·고학생탁구 정상을 가리는 이번 대회에는 남녀중·고등별 단체전에 32개팀, 남녀별 종합랭킹을 정하는 개인전에 2백67명이 출전했다.

대회는 22일까지 계속된다.

◇첫날전적

▲남중부단체전(준준결)
충남대신 4-0 광주무진
서울환일 4-2 부산남

▲남고부단체전(준준결)
대구심인 4-1 신진공고
춘천성수 4-0 전남영흥
부산광성공 4-1 경남대아
전주신흥 4-2 경기시온

▲여중부단체전(1회전)
서울동덕 4-0 부산계성
경남현대 4-1 대구경혜
부산부일 4-3 목포여중

## 野球채택문제 논의 李체육·스미드會長

李源京체육부장관은 18일 세계아마야구연맹(AINBA) 로버트·스미드회장의예방을 받고 아시아지역에서의 야구발전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자리서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올림픽에 야구를정식종목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 男복식서도 覇權

### 世界 학생卓球

제4회 세계대학생탁구대회(브라질·포토레자)에 출전한 한국의 金琦澤·盧潤寬은 단체전에이어 18일 개인전 남자복식결승에서도 서독의 스텔바 넬바처조를 3-0으로 물리치고 우승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여자복식결승서는 한국의 朴銀珠 白良美조가 일본의 야마시다(山下)·다찌하라(遠原)조에 3-0으로 져 준우승에 그쳤다.

혼합복식서는 金琦澤의 컨디션이상으로 스위스의 부시니·토머스로 파트너를 바꾸어 출전한 白良美가 盧潤寬·朴銀珠조를 3-0으로 제치고 우승했다.

단식은 17·18일 벌어진다.

◇개인전 복식결승

▲남자
金琦澤·盧潤寬 3 (21-17 21-13 21-16) 0 스텔바·넬바처(서독)

▲여자
야마시다·다찌하라 3 (22-20 22-20 21-19) 0 白良美·朴銀珠

▲혼합
白良美·토머스 3 (21-17 21-15 21-19) 0 盧潤寬·朴銀珠

# 殷永三·朴炯沃 첫날 RSC勝

### 아마복싱 選手權

제36회전국아마복싱선수권대회겸 6회인도네시아 국제대회파견 선발대회가 1백5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한가운데 18일 동국대체육관서 개막됐다.

첫날 플라이급 1회전에서 殷永三(인천동양)은 예리한 원투잽과 스트레이트로 신동기(밀양권투체)를 3회2분45초만에 RSC로누르고 2회전에 진출했다.

주니어 대표선수인 밴텀급의 朴炯沃(인천광성고)은 원투 스트레이트와 오른손어퍼컷으로 金炳學을 3차례나 다운시킨뒤 3회52초만에 RSC승을 거두고 2회전에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이 아시안게임출전의 여독이 풀리지않아 참가하지않았고 상비1·2군선수들만출전했다.

◇첫날전적

▲라이트·플라이급 1회전
吳光洙(전남체고) 기권 2회1분10초 한종원(한영고)
李範燁(한화체) 기권 2회1분58초 鞠順一(원진)

▲플라이급
蔡憲國(부평) 기권 3회35초 尹鳳基(원주복싱)
殷永三(인천동양) RSC 3회2분45초 신동기(밀양권)

▲밴텀급
朴炯沃(인천광성고) RSC 3회52초 金炳學(청운실고)

## 日, 北韓초청않기로 도오꾜 靑少年축구

【東京=聯】日本축구협회는 내년 3월 도오꾜(東京)에서 개최할 계획인 극동4개국 청소년대회에 북한을 초청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 選手層넓히고 經驗 살려야 LA새종목 空氣銃등 겨냥

## 사격 尹德夏 朴鍾吉

### 非公認 세계타이도…롱런 可能 尹德夏

### 金유지 무난한 世界水準 선수 朴鍾吉

### 「金메달코치」가診斷하는 金메달리스트 潛在力은…

사격은 11개 종목을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분리, 22개의 금메달을 갖고 있다.

◇南相完코치

◇金佐斗코치

한국은 11개종목 개인기록중 10개종목서 아시아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3개에 그쳤다.

1천2백점만점에 1점차, 동점으로도 1, 2위가 갈리는게 사격이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느 수준에 달하면 자신과의 싸움이다.

따라서 사격에선 컨디션에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오랜 경력과 대전경험이 필요하고 넓은 선수층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95%는 2~3년간의 훈련으로 이뤄지나 나머지 5%는 경험과 자질, 정신력등이 복합되어 닦아 진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선 총을 만져볼 기회가 거의없고 총을 두려워하게까지 되어 저변이 넓어질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일부 중고교에서 팀을 키우고 있지만 명문대학에서 사격을 외면하고 있고 실업팀들도 경비가 덜 드는 공기총에만 집중하고있다. 나머지 트랩, 스키트등은 국내를 통틀어 봐야 한종목에 10명내외고 시설부족으로 전국체전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한국대표는 대부분 현역군인 가운데서 선발되고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尹德夏 朴鍾吉도 군입대후 선수생활을시작했다.

尹德夏를 지도한 南相完코치는 『사격의 저변확대와 함께 선수들의 경기경험이 필요하다. 뉴델리서 참가하는 한국선수들의 기록은 국내 성적보다 많이 밀렸었다. 가능한 많은 대회에 참가, 경험과 노련미를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이 한국보다 우세한 것은 끊임없는 경기를통해 기량을 연마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스키트선수 4명은 뉴델리대회전 소련서 6개월간 전지훈련을했고 이번 대회 7관왕에 오른 북한의 서길산도 한햇동안 7번이나 외국원정을하며 경기경험을 쌓았다는게 南코치의 설명이다.

이에 비하면 많아야 1년 1~2회의 외국대회에 참가하는 한국선수들에게는 강인한 정신력만으로는 무리일수도 있다.

역시 한국선수중에는 尹德夏와 朴鍾吉이 가장 유망한 선수이다.

자유소총3자세개인과스탠더드3자세 개인에서 금메달을 딴 尹은 소구경복사와 자유소총3자세의 비공인 아시아최고기록을 갖고있다.

### 트랩·스키트 育成…海外참가 늘리는게 急先務

◇사격 2冠王 뉴델리 아시안게임 사격서 2개의 金메달 (소구경3자세·소구경 스탠더드개인)을 차지한 尹德夏.

그중 80년4월 올림픽파견선발전에서 세운 5백99점(6백점만점)은 비공인세계타이기록.

『尹德夏는 아직 경력이 6년밖에 안돼 국제경험이나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지만 84년LA올림픽·86년아시안게임에는 성숙기에 접어들것 입니다』

南코치는 尹德夏가 사격선수로는 필수적인 정신적 여유와 책임있는 선수임을 지적하고 착실히 경험만쌓으면 롱런할수 있을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소총에는 尹德夏외에 徐長鉉 權宅烈 金準永등 비슷한 선수들이 있어 그래도 전망이 밝은편이다.

그러나 권총부문서는 朴鍾吉이 독보적인 존재. 방콕대회에이어 2連覇한 朴鍾吉은 36세의 노장이지만 철저한 자기관리로 자신의 최고기록을 유지하는 믿음직한 선수이다.

朴鍾吉의 코치인 金佐斗씨는 『朴의 현기술은 세계수준이며 페이스만 유지하면 86년아시안게임서도 무난히 金메달을 따낼수 있을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일단 84년 LA올림픽서 새로추가되는 공기총부문을 겨냥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트랩, 스키트등도 균형있는 육성이 요구된다. 【兪爽根기자】【끝】

# MBC서 '뛴다', '못뛴다' 「白仁天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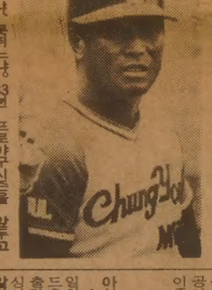
## 選手명단 公示時限 넘겨 다른球團 "자격상실" 주장

白仁天이 83년 타석에 설수 있을까. 프로야구 82년 타격왕인 MBC靑龍의 감독 겸 지명타자 白仁天의 83년 선수활동자격에 대해 이견이 분분하다.

83년 시즌을 앞두고 소속팀 MBC와 재계약협상을벌이던 白仁天은 감독·선수중 택일하라는 구단측 요구에 격분, 지난달27일 감독직 위약금을 내고 팀과 결별,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다. 다른 구단 입단의 길을 모색하던 白仁天은 MBC의 새로운 제의에 응해 지난 13일 다시 MBC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白仁天은 커미셔너에게 자신의 자유계약선수임을 공시토록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채 MBC 보류선수로서의 공시시한(협약66·67조, 단 금년에 한해 12월5일로 연기)을 넘겼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월5일 마감된 각구단 제출 보류선수명단을 공시절차후에만 선수활동이 가능하다는 협약53조를 근거로 6일자 공문으로 각구단에 통보했다.



◇뛰느냐, 못뛰느냐. 83년 프로야구시즌을 앞두고 선수자격시비에 휩싸인 白仁天.

이 공시명단에서 누락된 白仁天이 83년 선수로 활약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MBC를 제외한 5개구단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뒤늦게 발생한 白仁天의 자격상실사태에 다급해진 KBO는 6일자 공문일부를 정정한다며 뛰어다녔으나 구단들의 거부를 받았다.

KBO는 지난 6일발송공문중 「53조에의거한 공시명단」을 「공시예정명단」으로 정정한다는 공문을 18일 재차 발송했으나 각 구단들은 실행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움직임이다.

KBO는 白仁天에대해 뒤늦게나마 자유계약선수공시절차를 밟아 재계약하는것으로 구제의 길을 찾고있다. 그러나 자유계약선수라 하더라도 별도의 계약규정이 없기때문에 53조의 일반규정을 따라야한다는것이 협약의 올바른 해석이다.

白仁天의자격 시비는 미비된 협약, KBO의 근거조항 오역으로 비롯된 것이다.

현재의 협약을 근거로한 합리적인 선수자격 취득절차는 각구단이 보유권(일차 계약교섭권)을 가진 선수명단을 11월25일까지 커미셔너에 제출하고 커미셔너는 이를 검토, 30일까지 공시해야한다(67조). 구단은 12월1일부터 계약을 체결, 시즌개막 5일전까지 KBO등록을 마쳐야하며(84조) 커미셔너의 계약승인및 등록을 거쳐 명단을 공시함으로써 선수활동 자격이 주어진다(52·53조).

## 스포츠 短信

### 아시안게임出戰복싱환영의밤

◆…대한아마복싱연맹은 19일하오6시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뉴델리 아시안게임 출전선수환영대회를 겸한「복싱인의밤」행사를 벌인다.

### 알리 來韓시범경기 무기연기

◆…故金得九선수를 추모하기위해 12월하순 한국에서 거행할 예정이던 프로복싱前세계헤비급챔피언 무하마드·알리의 시범경기가 무기연기됐다.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98>

## 부드러운 겨울 ㉔

식모애는 아이들이 먹다만 닭고기를 한접시에 모으면서 살피는듯한 의심쩍은 얼굴로 수지를 빤히 쳐다보았다. 수지는 식탁위에 팔을 괴고 얼굴을 묻었다. 수지는 큰소리로 악을 쓰고싶었다.

너는 오목이가 아냐. 너는 수인이야. 내 동생 수인이야. 내가 너를 처음에 모른척한것은 일곱살 적의 내 잘못을 덮어두기 위해서였어. 그 잘못을 건들이지않고서는 너를 아는척할수 없었기때문이었어. 실상 일곱살적의 그 일은 죄랄것도 없지않니. 일곱살은 죄를 저지르기엔 너무 이른 나이야. 그건 그냥 잘못이었고, 그 미친 전쟁의 악랄한 장난질이었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것은 일곱살적의 잘못이아니라 그후 너를 수없이 모른척한 죄라는것을, 잘못을 죄로 덮어두려한 어리석음이란는 것을.

『사모님 요새 이상하시더라』

식모애가 혼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아무 대꾸도 안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원하고있는 무엇인가가 마침내 그녀를 박차고 그 싱싱한 모습을 드러낼것같은 예감이 그녀를 죄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 엎드린채 얕은 잠에 빠졌다. 얼마만인지 식모애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면서 말했다.

『사모님 요새 이상하시더라』

식모애는 제법 비난하는 표정으로 수지를 굽어보고있었다. 수지는 자기가 이상해지지도 않았고, 비난받을 까닭도 없다는걸 보여주기위해 서둘러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차갑고 거만하게 식모애의 무지각이 더럽게 번진 입술을 노려보고 나서 식당을 나와 집안을 살폈다.

식모애의 입술언저리 빼고는 집안의 모든 것은 제자리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트집 잡을데라곤없었다. 앞으로 칠팔년이야 더 부려먹을수 있겠지. 그녀는 아직 열일곱이란 식모애의 나이를 새삼스럽게 흐뭇하게 여겼다.

이층까지 돌보고나서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 불을 꺼주고 내려오다 계단이 꺾인 곳에 붙어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모습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밤 동안만 켜두는 촉광낮은 불빛때문일까, 약간핏기가 가셔보이는 대신 평소의 특징은 더 잘 드러나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다년간 공들여 가꾸어놓은 완벽한 귀부인의 얼굴이었다. 부유하고, 교양있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인정 많은듯하면서도 차가운 표정도 완벽하면서도 대리석으로빚어놓은 것처럼 견고하기도 했다.

수지는 한발짝뒤로 물러서면서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래, 저 여자에게서 추악한 과거를 들추어내는 일은 어림도 없는 일이야. 대리석을 찔러 피를 흘리게하는 일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야.

그 생각때문에 수지는 안심했고 또 절망했다.

침실로 돌아와 커튼을 제치고 마지막으로 마당을 살폈다. 나무에 매달린 정원등이 잎을 떨군 겨울 나무와 짚을 두른 장미나무와 오솔길과 아이들의 놀이틀을 어슴푸레 비치고 있었다.

엄마 이 집엔 나무 가장귀에도 전깃불이 달렸어.

일남이가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신기해하던 생각이 나면서 수지의 입가엔 절로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후 며칠 안돼 수지는 유기사로부터 내일 모레 떠난다는 전화를 받았다.

『모레? 그렇게 빨리요?』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경망스럽게 놀랐다.

『네, 사모님 덕택에…』

유기사가 우울하게 말끝을 흐렸다.

#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모국으로 가시는 길—KAL

### 알찬 서비스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읍니다.

대한항공은 주 23회의 편리한 스케쥴로 가장 빠르게 미국과 한국을 직결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주11편, 뉴욕에서 주4편, 호놀루루에서 주 8편씩 서울로 직행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뿐입니다.

모국을 방문하실 때는 어느 항공사보다 편리한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서울

| 편명 | 출발 | | 도착 | | 경유지 |
|---|---|---|---|---|---|
| KE011 | 월·수·토 | 13:00 | 화·목·일 | 19:20 | NONSTOP |
| KE015 | 화·목·금·일 | 22:00 | 목·토·일·화 | 06:20 | 앵커리지 |
| KE001 | 화·목·토·일 | 08:40 | 수·금·일·월 | 20:40 | 호노루루·東京 |

뉴 욕➡서울

| | | | | | |
|---|---|---|---|---|---|
| KE007 | 화·목·금·일 | 23:00 | 목·토·일·화 | 06:50 | 앵커리지 |

호노루루➡서울

| | | | | | |
|---|---|---|---|---|---|
| KE050 | 월·수·금·일 | 00:40 | 화·목·토·월 | 06:30 | NONSTOP |
| KE001 | 화·목·토·일 | 13:40 | 수·금·일·월 | 20:40 | 東京 |

※ 모든 시간은 현지시간 임
※ 본 시간표는 정부인가 조건이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읍니다.

精誠을 다하는 우리의 날개
KAL 大韓航空

대한항공 Tel: (416)862-8250
390 BAY ST. SUITE 720
● 서울여행사 535-6004
● 제일여행사 535-2377
● 신세계여행사 536-2155
● 한국여행사 531-4607

★카텐을 유 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전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que
전화: 769－5956 김명근.

##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퍼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八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 구 인

7학년 남학생 공부 도와주실 분
영어, 수학 위주.
전화 : 767-1702(오후 6시이후)

경험있는 풀타임 여자캐쉬어 구함.
1666 Queen St. W. Tor.
전화 : 532-6143, 532-9638

좋은사람 구함. Full Time 주유소(Gain) 영주권자로써 1년 이상 거주자. ◉877 Dundas St. W.(Bathurst St. 서쪽 300M)
내 방시간: 9am~3pm, 7pm~9pm

Part Time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전화 : 447-2116 (Mrs. 윤)

Donut Shop Casher 구함.
학생환영(스카보로 지역)
전화: 497-4221 Mrs 김.

한식·일식·중식 겸한 요리사 3명 구함.
초봉 : $1,400 (일식·중식은 한국스타일 원함)
전화 : (403)252-2225 (캘가리)

Part time 스토아 캐쉬어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488-1634

입주하셔서 할머니를 돌봐 주실분 구함.
전화: 275-0339 Mrs. 임
(오후 6시이후 전화 요망.)

급히 아주머니 헬퍼 구함.
전화 : 532-1054 Mrs. 오

입주 또는 출퇴근하시면서 3살반된 애기 봐 주실분.
단, 담배피우지 않는분에 한함. ◉스카보로 북쪽.
전화: 496-1664 Mrs.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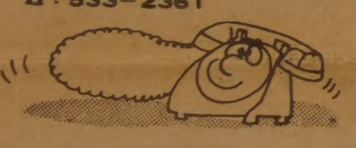
풀타임, 파트타임 남자헬퍼 구함.
전화 : 622-2643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가족같이 애를 봐주시며 지낼분 환영함.
전화 : 669-6438

Smoke & Gift 가게 풀타임 캐쉬어 구함.
오전9시~오후5시. 2180 Yonge St. 3층
M & M Shoppes. Mr. or Mrs. Dharsee. 내방바람.

##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 한국기관·해외지사

| | |
|---|---|
| 총영사관 | 598-4608 |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 외환은행 | 364-2890 |
| 외환은행 Bloor지점 | 533-8593 |
| 한일은행 | 865-0456 |
| 조흥은행 | 363-3448 |
| KAL | 862-8250 |
| 금호실업(박수웅) | 224-2491 |

## 교민단체

| | |
|---|---|
| 한인회 | 755-9288 |
| 노년회 | 755-8079 |
| 실업인협회 | 533-7923 |
| Y.M.C.A. | 536-1166 |
| 코리아타운번영회 | 532-2727 |
| 동우회 | 261-2917 |
| 호남향우회 | 651-8835 |
| 캐나다체육회 | 248-8846 |
| 한인신용조합 | 533-9387 |
| 천주교신용조합 | 363-0097 |
| 한인태권도협회 | 630-3095 |
| 상공인협회 | 421-9144 |
|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 533-2361 |
| '88 올림픽후원회 | 623-3674 |
| 송공문화협회 | 444-3658 |

## 개인지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ri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원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Tofel Michigan Test 준비
아동학습지도(다년간 지도경험) Honour B.A.In Economics
최미경 전화: 242-4745(오후 6시이후)

##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빌딩과 비지네스 매매.
잘 꾸며진 작은 레스토랑과 2층에 2 Bed Room 아파트.
Queen St. East.(of Dufferin)
아스킹 : $193,000
전화 : 363-2440.
G.R.Paterson Real Estate Ltd.

Winter 피아노, 새피아노 가격 $3,500 을 $2,300에 팔고자 함.
좋은 컨디션과 조율했음.
전화: 665-8233, 636-1430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파트 빌딩앞. 주매상: $3,200. 좋은 가격에 양도하겠음
2350 Lakeshore Blvd. W. 직접 내방바람.

Montreal Trust Company Realtor.
플라자내에 좋은 비지네스를 원하는 투자가를 찾읍니다.
다운페이: $250,000이상.
딴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읍니다.
당신에 스페샬 리스트 Dave Lal
전화: 275-5555

주인이 정년퇴직으로 구두방과 빌딩매매
또는 가게렌트도 합니다.
803 St.Clair Ave. W. 전화 : 654-1455

Take-Out 햄버거 비지네스 팝니다.
Income: $85,000/Y ◉주6일 영업. ◉하루12시간 오픈
문의시간: 오전9시~오후9시. 782-6893 Peter.

해밀턴 큰길에 있는 플라자내의 경쟁없는 그로서리 스토어. 주매상 5천보장.
렌트 700불. 7년간+10년옵션.
Asking $52,000+스탁.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8Door Walking Cooler. New Equipment.
문의처 : 1-388-4825

▲Florida,Custom Built 2Bed Rm집.
중앙식 에어콘과 히팅.
대지 80'×125'. 1983년 2월에 입수.
아스킹: $27,500 US달라.
Clearwater에서 35분 북쪽 on U.S. 19. Beach에서 7분거리.
전화: 665-9115
▲휴양지 수페셜라이징한 물개지 회사
Gross: 1 Million이상. 주인은 정년퇴직.
전화: 665-9115

수입 좋은 건물.(Bloor & Dovercourt)
디타치드. 방10개. 화장실3. 부엌2.
10%이자 아스킹: $79,900. ◉$10,000 다운페이.
전화: 298-7000 Silwin.
SILWIN REAL ESTATE LTD.

—"FOR LEASE"
—밀크스토아 장소. Brampton과 Oakville.
Oakdome Realty Ltd.—Realtor John W. Westerberg. 전화: 844-0363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Office space for rent
1500 Sq.Ft. 1736 Queen St. W. 불에 타지 않는 안전창고 100 Sq.Ft. 전화 : 960-1888

아파트 쎄브렛. 3Bd. Rm. ◉Albion & Weston에 있는 새아파트. ◉리스: 83년 8월까지.
전화: 488-2436(B). 745-0409(R)

Victoria Pk. 서브웨이에 있는 3Bed Rm. 콘도미니움 아파트 렌트 렌트: 월 $695(다 포함)
전화: 698-6415. 624-3849

1 Bed Rm. 아파트 렌트. 교통 편리함.
싱글이나 부부에 적합.(Eglinton & Mt.Pleasant)
전화 : 488-1634

새로 꾸민 지하실 2 bdrm(거실, 부엌, 목욕탕) 세 놓습니다. Bathurst와 St.Clair 지역임. 월 $280
출입구 따로 있음. Mrs.채 Tel: 651-5388

방세 놓음(Victoria Pk. & Finch)
1Room(월 120불) 여자분에 한함.
전화: 497-4221 Mrs. 김

## 집 매 매

디타치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연락처 : (416)461-3363(H). 463-7423(B) 송영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에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 교민간의 경쟁과 상도의 ❶

## 그 문제점과 처방·비젼

김철수 (토론토실업인)

### ◆머릿말

필자는 M신문에 의하여 두차례에 걸쳐 한인사회에 지탄 받아야할 인물로, 혹은 교포간의 사업경쟁을 일으킨 표본적 인물로 문제화된 인물이다.

작년봄에 M신문에 「가게 꾸며 권리금 받아 재미 보는 K씨의 소행」이라는 제목하에 필자에 관한 기사가 필자의 확인도 없이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 기사내용이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의 정보를 최악의 부정적 상태로 유도했으며, 감정의 와중 속에 언론이 동참한 것이다. 거의 일주일밤을 설치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40여년을 살아온 무슨 인생이 사회에 지탄을 받아야할 대상이 됐느냐는 것과, 필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더욱 괴롭고 견딜 수 없었다. 마침내 그 괴로움을 개인적 신앙속에 주되신 생명의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 긴 시간동안의 터질것만 같은 심장속의 고백은 자아를 깨는 아픔을 거쳐 주님의 위로가 있었고, 드디어 평강을 얻었다.

인간의 행동은 그의 사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문제의 사고를 교민사회에 내놓고 범교민적 진단을 받아야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거의 일주일을 바쁜 일손을 놓고 밤잠, 식음까지도 줄여가며 약 100페이지의 글을 써서 M신문에 내놓았으나 그것도 추려서 2회에 걸쳐 싣다가 약속을 어긴채 중단해 버렸다.

시간은 흘러 망각해 버리려 했으나 지난 11월26일자 M신문의 「과다경쟁으로 찌들어진 상도의」라는 전면톱기사는 필자로 하여금 다시금 사회적 진단을 받아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필자도 인간인 고로 인간적 감정이 있으나 이성적반응을 하려고 힘썼다. 또한 한인사회의 교민간 경쟁문제를 순간과 부분에서 사고하려 하지 않고, 그 근본적 뿌리를 통한 (1)「문제점」들을 열거하고, 그것들의 구체적 (2)「처방」들을 다루었으며, 한인사업계의 (3)「비젼」까지도 생각해 보았다.

필자는 학문을 깊이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글을 쓰는 특별한 기술을 터득한 사람도 아니다. 글의 표현보다 글속에 있는 줄기를 이해해 주기 바라며, 논리정연한 이론의 제시보다 삶을 사고하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핏속으로 용해된 체험과 실제 개인적 삶 속에서 하느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없이 행동하고 있는 사상을 표현했다. 교민들의 엄정한 진단을 바란다.

이 글의 서두를 대하면서 특히 M신문에 감사한다. 스스로를 성찰하며 빛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연약성을 일[illegible] 주었으며, 그 아픔속에서 불로 연단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적 사고의 뿌리를 재삼 확인하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 ◆임시변통

우리는 임시변통적 처세를 많이 한다. 문화적으로 산세와 지세는 지역에 사는 사람의 성품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산과 물이 생긴대로 급하고 강팍하며 성품의 굴곡이 심하다. 이 유동적환경에 대한 처세도 또한 유동적이며, 임시변통적이다. 그래서 모든 행정과 모든 국가의 대사들이 지도자나 책임자가 바뀔때마다 변하고, 근본적 문제들을 역사적, 혹은 대국적 견지에서 다루지 못하고, 현실적이며 순간적 처세로 임시 변통하고 있다.

오늘 상도의와 교민끼리의 경쟁문제를 다루는 일반적 견해나 이 문제를 유도하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같다. 어찌하여 한국에서의 한인끼리의 경쟁은 허용하며, 이곳 이민사회에서는 안되는가?

그것은 바로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지상에 생물이 존재하면서 탄생된 것이 바로 경쟁이다.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 경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화, 문명은 창조돼 왔다.

한인 이민사회가 어떠한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교민끼리의 경쟁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오늘 그 진통은 한인사회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인류전체가 겪은 것이며, 겪고 있다. 이 경쟁이나 과다경쟁을 막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임시변통일 수밖에 없다.

### ◆속단과 오해

필자는 한인사이의 경쟁에 관하여 펴는 이론들중 통계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다. 사업에 관하여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이나, 사업에 경험이 없거나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같다. 공통적 결론은 그래도 이억만리 벌어 먹고 살겠다는 사람 옆에 가서 망쳐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도 똑같이 생각한다. 과연 어느누가 동족을 망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겠는가? 과연 우리 교민들중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오늘 우리들 주위에는 남의 문제를 책임감없이 말하며 덧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나쁜 사람은 우리 교민속에 없다. 자신에 그러한 의도가 없는 것처럼 남에게도 이러한 사람은 없다.

M신문에 묻는다. 귀신문은 기존하고 있는 3개의 신문을 망치게 하기 위하여 새 경쟁자로 등장했는가?

○씨에게 묻는다. 귀하는 P냉동을 망치게 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실협은 두개의 기존 도매상을 망하게 하는데 협동조합 설립목표가 있는가?

이러한 여론조성에 언론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하며, 이것은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인 것이다. 구석구석에서 참새들이 어떠한 말들을 만들어 내는거야 어떻게 막으리오 마는 언론만은 이성과 통찰력으로 속단과 오해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언론까지도 속단과 오해가 심한 것같다. 단지 주관성과 객관성의 차이일 뿐이다. 아무도 기존 동족업체를 죽이거나 망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며, 그들이 그 속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 혹은 새로운 사업의 개척 가능성을 보고 새로이 도전하는 것이다. 경쟁자 스스로가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 경쟁이 객관적으로 동족에게 피해입히는 결과로 나타날지라도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는 특수상항들이 있다. 그 특수상항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공통적 이해가 있다면 바로 내 속의 이기성과 같은 이기성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 ◆자기 모순

한인사회의 상도의와 교포간의 경쟁문제에 직면한 우리 교민사회는 엄청난 모순과 혼돈 속에 방황하고 있다.

필자가 8년전 도매상의 사업자금을 위하여 미국 워싱톤에서 한국인 상점들과 단체구매 계약에 성공한 LOEB도매상의 본사(오타와 소재)와 합자의 최종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때 LOEB회사 사장 MR.M LOEB은 HIT라는 한인도매상이 20인(?)의 한국사람들에 의해 새로이 등장된다는 정보를 그는 입수했다. HIT의 등장은 나의 사업에 결정적 치명타였다. 이것이 사업의 경쟁인 것이다. 나는 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아마 이 실패의 원인을 동족끼리하는 환경속에서 찾으려고 시도했다면 아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든가, 미움과 증오로 병이나 누웠을는지도 모른다.

필자는 그 원인을 자신의 연약과 부족속에서 찾았다.

사업자금이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누르는 것은 당연하며, 나쁜 품질을 생산하는 회사가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에 눌리는 것은 당연하며, 위치가 좋은 상점이 좋지 못한 상점을 누르는 것은 당연하다. 어찌하여 사업경쟁의 원리를 인접한 한인상점 옆에 다른 한인이 경쟁자로 등장해서는 안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기존하고 있는 태권도도장에 또다른 도장의 탄생은 어떤 원리위에서 해석되어지며, 한국식품, 식당, 여행사, 의사업, 도매상…등이 사업경쟁은 어떤 원리위에서 해석되어지는지 알 수 없다.

기존하고 있던 3개의 한인신문에 도전한 네번째의 한인신문은 어떤 기초위에서 자기 사업의 등장을 한인사회에 설득하고 있으며, 3개의 신문이 부족하여 제4의 경쟁이 필요했는지 알 수 없다. 이미 기존하고 있던 P냉동회사에 도전한 O씨의 냉동회사설립은 어떤 기초위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며, 이미 2개의 한인도매상이 겨우 연명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속에서 「실협」이라는 대외명분을 걸고 협동조합(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도매상이다)을 설립하겠다는 의도는 기존 두 도매상에 대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 아닌지 실협에 묻고 싶다.

과연 한인상점 옆에 또 다른 한인상점의 등장이 한인사회에 지탄받아야할 대상이 된다면 3개의 기존신문에 새로이 경쟁자로 등장한 제4의 신문도 지탄받아야 하고, P냉동회사에 도전한 O씨의 냉동회사도 지탄받아야 하며 기존 두개의 도매상에 도전할 협동조합도 지탄받아야 하며, 실협은 그 계획을 포기한 후 교포간의 경쟁의 중재에 나서야 하며, 전한국인 사업인 거의가 지탄받아야 할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우리 한인들은 기존사업체를 인수하거나 개점할 때 "나도 같이 벌어먹고 사십시다."하고 들어온다. 그러나 또다른 한인경쟁자가 자기가 들어온 것과 똑같이 들어오면 "나를 망하게 하려 한다"며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떠들며 욕설을 퍼붓는다. 이것은 자기모순이다.

우리들은 겉과 속, 앞과 뒤가 너무나 다른 모순을 갖고 있다. 상점이 하나일때는 별일이 없었으나 여러개의 상점을 손대다 보니 몸집이 커서 부딪치는데도 많았던 것같다. 한인사회의 문제로 등장된 것이다. 작년도의 실협이사진과 집행진에서 만나자고 하여 만났다. 영문도 모르고 나갔는데 심문대에 올려 세웠다. 화재의 초점은 나의 근황과 문제의 상점에 관한 것이였다. 특수한 여건하에 있는 문제의 상점과 필자의 일반적 사업관을 설명했다. 그들의 결론은 필자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즉 정당성이 있다는 뜻이다. 당사자의 면전에서 할말이 없으면 없는 것이지, 뒤에서 할말이 있 것은 무엇인가?

교민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면 당해야 하며, 잘못된 사고는 수정되어야만 한다. 면전에서 지탄할 수 없는 정당성이 있어 뒤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침묵을 지켜주기 바란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다.

조국에 있었던 우리—, 단상에서는 할말이 없는데 왜 단하에서는 그렇게 말들이 많은가? 왜 면전에서는 할말이 없는데 뒤에서 할말이 많은가? 우리는 왜? 주장하는 시간에는 말이 없다가 결정하여 복종하는 시간에 말이 많은가? 우리는 너무나 단상과 단하, 면전과 면후, 주장과 복종을 혼동하며 살아온 모순을 갖고 있다.

### ◆이기성과 기득권

한인상점 옆에 또하나의 한인이 동족끼리를 생각지도 않은채 자기의 이기성때문에 들어왔다고 가장하자 그 동족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는 것도 바로 이기성인 것이다. 자기 상점이 있는 지역엔 절대 다른 한인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사고는 더한 이기성인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지역과 분야엔 동족이 경쟁자로 등장해서는 안된다는 사고는 더한 이기성인 것을 알아야 하며,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지역엔 어떠한 한인도, 부동산투자도 해서는 안된다는 사고는 도대체 어디에다 기초를 둔 사고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옛날 서부시대에 광활한 땅을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만큼 신나게 달리고서는 땅위에 팻말을 꽂았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의 이름을 쓰고, 철조망을 쳤다. 그것은 곧 자기땅이다. 하도 땅이 넓고, 사람도 많지 않아 남이 점령한 땅 말고도 너무나 넓은 땅이 있어서 남의 기득권을 인정했다. 그리곤 자기의 기득권도 인정 받았다.

그후 인구의 증가는 그 기득권을 인정치 않았으며, 자기땅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경쟁(싸움)으로 바뀌었다. 나의 기득권을 인정받기 원하면 남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조건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자!

기존상점을 구매하든, 새로운 상점을 개점하든, 이미 주위에 있는 원주민상점이나 한인상점의 기득권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자율적 경쟁원칙하에서 우리의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 똑같은 원칙하에 또다른 경쟁자가 등장되는 것이다.

### ◆동족끼리

우리는 동족상쟁이니 동족끼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 동족상쟁이니 동족끼리는 협력해야만 한다는 것이 좋은 이야기같지만 사실상 많은 문제의 씨를 안고 있다.

필자는 다음의 이유들 때문에 "동족끼리"라는 사고를 깨야하며, 동족끼리를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북미속의 우리는 한반도 속의 우리가 아니라, 복합문화속의, 세계속의 우리이기 때문이며,

둘째, "동족끼리"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인종차별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며,

세째, 동족끼리, 혹은 애국 애족이라고 즐겨 사용하는 것 속에는 위선적 사고가 깔려있다.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우리는 세계속의 한인이다.)

그 끼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을때는 문제가 없는 듯 싶지만 끼리 밖에 있을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또한 인간의 삶은 끼리 안에 있을때도 있고, 끼리 밖에 있을때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6.25를 통하여 동족상쟁을 미워한다. 그 동족상쟁은 동족끼리라는 사고방식에 원인이 있다. 동족끼리라는 말은 동족들간에는 싸우지 말고, 똘똘 뭉치자는 말이다. 즉 동족아닌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말의 단위를 한단위 내려서 생각해 보자.

같은 고향사람끼리, 같은 동창끼리, 같은 계군끼리니….

타고향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들의 이권을 보호하고, 덜 손해보며, 보호하자는 생각이 바로 지방색을 스스로 만들어 냈으며, 6.25의 비극은 바로 사상이 같은 사람끼리의 철저한 단합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한다.

역사는 곧 증인이며, 반복이다. 이조의 사색당쟁은 무수한 우리 선배들에 의하여 비판되었지만, 근대한국의 의정사와 현실적 우리의 교민사회는 그것들의 반복이며, 철저한 끼리끼리의 단합이다. 남인, 북인속에 동인, 서인의 의견이 없으며, 야당과 여당속에 반여당의 의견이 묵살되어야 하는 철저한 끼리끼리가 실제적 우리의 병폐이다.

끼리 밖에 있는 사고가 끼리 속에서 인정될 수 없는 쇄국적 사고가 바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인 것이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대원군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역사의 핏속에 흐르는 우리 민족의 사고의 현실적 열매가 바로 대원군을 등장시킨 것이며, 그의 사고는 바로 민족 전체의 대표적 사고인 것이다.

우리는 동향, 동창, 같은 당원 동포끼리 밖에 있는 사고가 우리의 끼리 속에서 인정되어질 수 있는 사고의 폭을 여는 초원이 대원군시대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조국과 사업의 경쟁문제를 다루는 근본적 사고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형제아닌 아이들과도 싸워서는 안된다는 기초위에 형제끼리 싸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웃집 아이들과 싸우는 것은 용납되어지며 강하게 주장되어질 때 형제밖에 있는 인격에 대한 멸시와 부정적 사고가 형성케 된다. 우리에게 인류애가 없는 동족끼리가 우리에게 강하게 작용되어질 때 동족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부정적 사고가 형성되며, 우리가 심은 그대로 우리는 돌려받게 된다.

이 나라 시민의 의무중의 하나인 To live with peacefully with our neighborhood라는 말은 바로 끼리끼리의 사고를 깬 역사성과 포용력 있는 사상인 것이다. 바로 그것은 동족끼리의 사업경쟁도 다른 민족과의 동일한 경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경쟁에서 낙오한 동족을 인류애와 민족애의 기초를 둔 사랑으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질서있는 사상적 조화인 것이다.

▲인종차별의 근원

같은 동향사람, 같은 동창끼리의 철저한 단합이 이루어질 때 그들 스스로가 부르짖는 지방색과 파벌의 장본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학가의 중국학생들이 떼를 쳐다니는 끼리들 때문에 그 끼리에서 소외당한 캐네디언학생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차이니스"라고 하는 것이다.

캐네디언상점 근처에 한인이 들어가 그들의 사업에 타격을 주는 것은 괜찮고 동족끼리의 경쟁은 절대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바로 이 복합문화의 다양성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이다. 진실로 한인끼리의 사업경쟁이 마음이 아프다면 캐네디언과의 경쟁속에서도 같이 마음아파하는 것이 올바른 논리이며, 그 논리위에서 우리는 동족이나 원주민이나 같이 아끼며, 때로는 당당하게 대항하여 경쟁도 하는 것이다.

어느 캐네디언이 한국인들은 케네디언상점만 죽이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반가운 눈으로 보며, 우리의 이민을 그들이 환영할 것이며, 우리의 상점에 고객으로 오겠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들로 하여금 인종차별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인 것이다.

인종차별이란 자기속에서 남들을 차별하는 사람의 자기방어적 자세에서 오는 심리적 열등감이다. 우리는 설령 자기를 차별하는 인종차별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긍정적사고를 가지므로 그들 속에있는 부정적 나의 이미지를 긍정적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 ◆남이 잘되면 배가 아퍼

우리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이 사고가 우리민족 개인 속에 뿐 아니라, 오늘 이 특정한 한인교민사회 전체에도 이 사고가 깔려있다.

그 현실적 증거가 바로 협동조합의 범교민적 요망이며, 교민끼리의 경쟁을 막고자 하는 언론의 여론조성 가운데서도 읽을 수 있다.

교민사회의 구매력은 정말 천문학적 숫자이다. 이 막강한 능력은 자연발생적으로 한인소매상의 지원에 의한 한인도매상이 수개는 섰어야 하며, 그 도매상의 능력은 기존도매상을 위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한개의 도매상도 서자마자 쓰러져야 했고, 2개의 현존 도매상도 신통치 못한 형편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모두들중 남이 특출나게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는 잠정적 사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며, 어느 개인이나 회사가 수십개의 연쇄상점을 갖는 것을 범교민적으로 원치 않고 있으며, 언론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격려하는 신문사설이나 격려사들을 관심있게 들여다보며 느낄 수 있는것이 있다. 물론 협동조합이라는 제한된 것 속에서의 격려사이기 때문인 것도 이해할 수 있으나 공통점이 있다. 어느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끼리 도와서 한인의 도매상을 키워 주어야 한다는 것에는 인색하면서 그 이익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협동조합만은 키워야겠으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자는 것이다. 즉 이 막강한 한인사회의 사업적 배경을 통하여 어느 한인의 개인적 성공도 허락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같이 흥하든지 같이 쇠하든지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토록 저주하며 미워하던 공산주의는 그 사상이나 행동면에서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그들의 경제체제조차 비능률적인 것을 남북한의 비교속에서 배워 왔으며, 오늘날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개인성장 없는 집단성장은 있을 수 없으며, 국가성장이나 민족성장, 혹은 교민사회의 성장은 바로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서 최대의 능률을 유도해낼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서있는 이땅은 그러한 개인적 성공과 성장이 능률을 이룬 자본주의 체제이며, 그것이 좋아서 우리의 이민을 선택한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